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3권 1호 통권10호

1981. 2

- 特輯 I 教育課程 改編의 展望과 課題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教育課程 變遷과 背景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探索
 國民精神教育을 위한 教育課程의 接近方案
 科學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의 接近方案
- 特輯 II 學校級別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
 幼稚園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中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實業系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 국 교 육 개 발 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 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号)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이다.

幹 部 陣

洪 雄 善 (院 長)
南 億 祐 (副 院 長)
尹 正 一 (企 劃 調 整 室 長)
辛 世 浩 (教育課程研究部長)
金 潤 泰 (教育發展研究部長)
金 亨 立 (教育放送部長)
丁 海 運 (事 務 處 長)
吳 軫 錫 (教育資料局長)

研 究 陣 (責任研究員) 가나다順

姜 相 兆*	郭 柄 善	郭 相 萬
金 文 淑	金 炳 聲	金 性 洙
金 水 日*	金 永 哲	金 在 福
金 學 泉	金 賢 中	南 明 子
朴 道 淳*	卞 榮 啓*	徐 廷 華
成 侷 濟	安 貴 德	柳 三 汰
李 大 揆	李 秉 鎬	李 延 燮
李 玉 任	李 載 昌	李 定 根
張 錫 祐	張 彥 孝	崔 鍾 運
韓 冕 熙	韓 鍾 河	洪 基 亨*
洪 思 明		

*滯美修學中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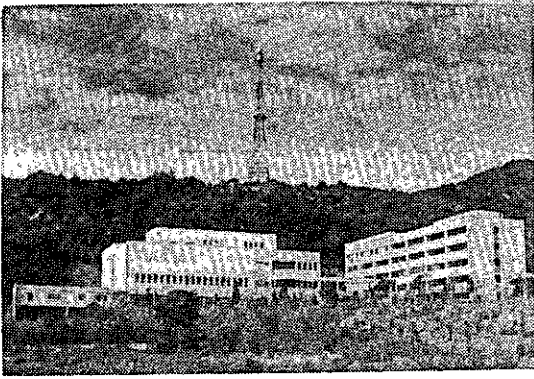
目次

題字 孫在馨
表紙 申允澈

卷頭言	教員의 重要性	南億祐 / 3
1981年 文教施政	文教政策의 方向	文 教 部 / 5 長 官
論 壇	文教問題의 根源과 構造	朴俊熙 / 8
特 輯 I	教育課程 改編의 展望과 課題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辛世浩 / 11
	教育課程 變遷과 背景	韓晁熙 / 15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探索	郭柄善 / 18
	國民精神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의 接近方案	安貴德 / 21
	科學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의 接近方案	韓鍾河 / 25
特 輯 II	學校級別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	
	幼稚園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李延燮 / 29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金在福 / 32
	中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裴浩柁 / 35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陳勸長 / 38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郭相萬 / 41
研究報告	學校의 社會的 風土改善의 方向	金炳聲 / 46
	國民學校 物理的 環境의 問題點	李正福 / 53
	特殊教育 現況分析研究	姜善甫 / 56
	入試制度 比較研究	朴修賢 / 63
本院紹介	1981年度 本院 主要事業	
	教育課程研究	/ 68
	教育發展研究	/ 70
	教育放送	/ 72
	教育資料·情報管理	/ 74
院內動靜	編輯後記	/ 76

36
永昌





본원 전경 (左 방송동, 右 연구동)



브리태니커사로부터 교육혁신공로상을 수상받는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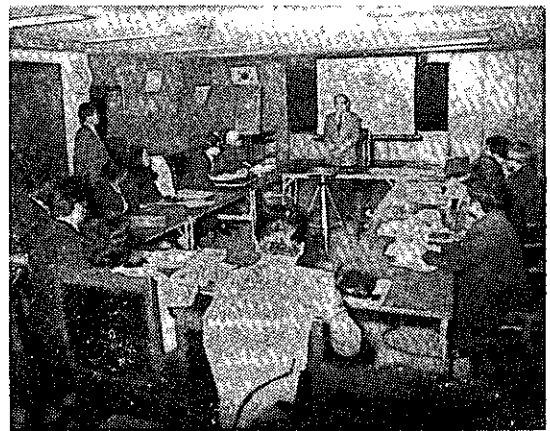
학교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그랜드 세미나



국민학교 통합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아시아지역 전문가 회의



교육방송의 방향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탐색을 위한 세미나



AID 후원으로 시행한 교육정책 및 연구에 관한 동남아 지역 교육 행정가 연수

敎員의 重要性

南 億 祐
(副 院 長)

敎育의 核心

우리가 어떤 現象이나 問題에 接近할 때 看過하기 쉬운 오류는 그 本質이나 根源, 核心에서 벗어나 副次的이고, 周邊的이며, 枝葉의인 것에 얽매어 本末이 전도되는 일이다.

生命體에 있어서, 動物의 경우 가장 重要한 器官은 心臟인 것이요, 植物의 경우 가장 核心의인 部分은 뿌리일 것이다. 한편 機械를 움직이는 本體는 原動機일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現象·問題에는 가장 中核의인 變因, 또는 變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敎育에 있어서도 이 같은 中核의인 變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敎育課程, 學制, 敎授—學習資料, 學級經營, 生活指導, 敎育評價, 學校建築·施設, 아니면 入試制度, 敎育財政일까? 이런 모든 것에 앞서서 敎育의 成敗를 左右하는 열쇠는 무엇일까? 敎育에 있어서 가장 中核의 變因은 敎員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敎育問題를 보는 基本立場에 있어서나 敎育革新을 부르짖는 根本態度에 있어서 대체로 敎員의 問題를 輕視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傾向이 많다. 結局 이 말은 그만큼 敎育問題解決에 한치라도 더 가까이 接近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敎育에 있어서 改善·革新·刷新·向上·發展 등 어느 말을 사용하건 그를 實行하고 達成하는 主體는 언제나 敎員임을 알아야 한다.

敎育革新의 主體

오늘날 敎授—學習方法的 改善, 入試制度的 改革, 學制改編, 敎育課程의 改編, 學級經營의

合理化에 이르기까지 敎育革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敎育의 各分野·領域에 걸쳐 敎育革新의 熱氣가 드높다. 그런데 問題는 정작 敎育革新을 主導할 主體勢力인 敎員이 별로 없다는 안타까운 現實이다. 마치 멋있는 必勝의 戰略을 짰으나 막상 戰場에서 싸워 줄 將兵이 없는 形便과 같다고나 할까. 韓國의 슬한 敎育革新이 그 동안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大部分 시들거나 中途下車해버린 理由가 바로 敎員의 變數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즉 敎育革新의 主體的 役割者는 敎員이다. 따라서 敎育革新의 原動力·根源을 敎員에서 찾아야지 다른 變數에 지나치게 強調를 두면 失敗하기 쉬운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俗談처럼 우리는 敎育의 周邊的인 變數·條件들을 改善하면 곧 敎育이 잘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敎育成敗의 根源이요, 敎育을 左右하는 原動力인 敎員을 排除한 思考와 論理가 있다면 이는 空理空論이요, 思考의 유희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敎育이라는 獨立變數에 따라 다른 從屬變數가 달라지는 것이지 從屬變數가 逆으로 獨立變數를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敎育에 있어서 優秀한 敎員, 有能한 敎員, 資質이 높은 敎員을 一次的으로 重視하지 않고 다른 敎育條件만을 앞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主從이 뒤바뀐 主張이 아닐 수 없다. 敎員의 質的 向上 없이 敎育의 質的 水準이 높아질 것을 期待할 수는 없다.

敎育을 左右하는 敎員

敎育의 質은 敎員의 質을 능가할 수 없다. 資質을 갖춘 敎員이 없이 敎育發展을 期待한다는

것은 마치 無資格 醫師에게 國民保健向上을 바라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教育現實을 患者만 잔뜩 入院시켜 놓고 有能한 醫師는 별로 없다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學生들만 바글 바글하지 能力있는 敎員은 많지 않다는 것이 教育現場의 眞相이라면 過言일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文敎부의 일로만 돌리고, 政府次元에서 아니 國家的인 見地에서 敎員養成 내지 敎員問題에 대한 깊은 關心과 強力한 政策提示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教育은 國家百年大計를 세우는 일이라느니 教育은 國家發展, 社會改革, 經濟成長, 人間改造와 直結되느니 하면서 한번도 教育을 左右하는 關鍵인 敎員의 問題에 깊은 思考와 配慮가 없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國家安保를 위해 富國強兵의 政策이 要求되는 것과 똑같이 國家發展을 위해 強力한 教育政策이 必要하다. 美國이 스포트니크 충격 후 蘇聯에 強力히 대응하기 위하여 國防教育法(National Defence and Education Act)을 만들었던 슬기를 배워야 한다. 教育의 問題를 國家的 安保의 次元에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흐뭇한 느낌이 드는 한편 부러운 생각이 든다. 우리 나라에선 언제 教育을 그토록 重視할 때가 올까?

人間社會의 모든 問題는 結局 人間에 歸着한다. 그리고 人間의 모든 問題는 教育에 依해서 解決되어진다고 믿는다. 人間의 知慧, 能力, 良心, 意志에 따라 人間社會는 變化한다. 人間의 知性和 感性 如何에 따라 人間世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人間을 올바르게 키우고 가르치고, 길들이고 能力을 배양하고, 技術을 익히고, 價値觀을 形成시키고 하는 일이 다름아닌 教育이다. 따라서 教育如何에 따라 人間은 달라진다. 人間을 만드는 課業이 教育이요 教育을 맡아하는 사람이 敎員인 것이다. 이토록 重要한 存在인 敎員을, 그리고 敎員의 問題를 輕視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것은 크나큰 過誤요, 失策이라 하겠다.

軍에 있어서 士官學校 教育이 철저하면 할수

록 指揮官으로서의 資質이 높아지는 것이요, 앞으로 軍의 기강과 戰鬪力 증강에 이바지하는 健全인 것처럼 敎員養成이 철저하게 잘되면 그만큼 國民教育向上과 國家發展에 貢獻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確信한다.

敎員養成에 대한 再考

教育은 敎員에 달려있다는 自明한 原理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敎員養成體制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問題點을 열거할 수도 없고, 그럴 제제도 아니기 때문에 論外로 하고, 다만 敎員養成에 대한 哲學, vision, 政策樹立이 아쉽다는 點만을 指摘하고자 한다. 더구나 우리 새 憲法에 平生教育에 대한 明文化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 幼兒教育, 社會教育 그리고 學校教育을 包括하는 教育體制 및 敎員養成制度에 관한 뚜렷한 方向提示가 있어야 할 것이다.

人間の 生命이 貴重하기에 能力있는 有資格 醫師에게만 患者의 診療를 맡겨야 하듯 人間價値가 所重하기 때문에 第二世 國民의 教育은 優秀한 資質을 갖춘 敎員이 맡아야 한다. 아무렇게나 그때 그때 應急措置式의 피봉책으로 臨時로 敎員養成을 하거나 使命感도, 아니 責任感마저도 없는 데에서 손쉽게 敎員養成을 맡아서 形式的인 資格證이나 주어서 내보내는 安逸에서 하루속히 脫皮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政府는 確固한 信念과 哲學을 가지고 敎員養成體制를 整備·強化해나가야 할 것이요, 劃期的인 對策이 時急히 衆智를 모아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敎職에 대한 職業的 威信(occupational prestige)은 더욱 낮아질 것이요, 敎職을 生涯의 職業으로 選擇하려는 學生의 質은 자꾸 低下一路로 치닫게 될 危險이 따른다. 정말로 政策的 決斷이 그 어느 때보다도 要求되는 것이 敎員養成의 問題가 아닐까 생각된다.

優秀한 敎員의 確保없이 教育發展을 念願하는 일은 空念佛에 지나지 않는다. ———●

文教政策의 方向

—精神教育和 科學教育을 위한—

李 奎 浩

(文敎部 長官)

전국의 교직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決心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决心은 분주한 일상 생활에 묻혀서 작심한 지 사흘만에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職責에 관계되는 새로운 결심은 역시 한 해의 生活指標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에는 두 가지 指標들을 늘 指向하면서 敎職生活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精神敎育이고 다른 하나는 科學敎育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요청되는 普遍的인 敎育의 지표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올바른 生活態도와 精神的인 姿勢는 언제나 어디서나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敎育의 첫째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現代 物質文明과 산업사회 안에서的人間疎外の 문제를 생각하면 精神敎育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科學技術이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면서 부러는 또한 科學敎育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

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科學敎育은 先後進國들을 막론하고 크게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國民敎育의 중요한 指標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처해 있는 特殊한 狀況과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歷史的인 展望을 고려하면 우리가 말하는 精神敎育과 科學敎育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精神敎育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야 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科學敎育을 振興시킬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은 우리나라의 모든 敎職者들의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精神敎育이라는 것은 우리의 文化的, 傳統을 떠나서는 생각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따라서 文化的 歷史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위한 敎育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정신이란 그 민족의 역사에 의해서 이룩된 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精神은 歷史의 所產입니다. 그러므로, 歷史가

없는 민족에게는 物質的인 繁榮은 있어도 精神文化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精神教育을 위해서 우리의 民族文化와 그 人道主義的인 傳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忠誠하고 부모에게 孝道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信義를 지키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닦고 갈아서 빛나는 人格을 이룩하는 그러한 精神教育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늘 오늘을 참고 견디는 訓練을 통해서 이러한 精神教育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利己主義, 享樂主義, 功利主義 등의 風潮를 극복하고 이러한 傳統倫理의 價值觀의 정당성을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납득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부터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精神教育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동들에게 愛國心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 국토가 분단되어 있고 지금까지 主權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대 국가를 위한 國家建設의 途上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愛國心을 심어주고 국가건설을 위한 과제들의 성취를 위해서 國民的인 統合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직자들의 祖國과 그 안에서 생활할 인간을 위한 神聖한 義務입니다.

각급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淨化委員會의 모임 등을 이용해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學校生活과 社會生活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討議할 수 있게 하고 언제나 理性的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國民的인 統合力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東西 이데올로기對立과 南北 貧困과 豐饒의 對立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위협받고 있는 祖國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은 意志를 길러주는 것이 우리의 精神教育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직자 여러분!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그리고 무궁화가

꾸기, 혼식운동 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 구석구석을 이용한 식량증산운동 등은 모조리 愛國心을 길러주는 精神教育과 연결되었을 때만 그 교육적인 의의를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직자들이 흔히 오늘의 우리 주변의 사태들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아동들은 感情이나 慾望이 아닌 理性과 互讓으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가적인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지 못하면 우리 後代의 生存權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급학교들의 모든 行事들, 모든 授業時間들, 모든 藝·體能을 포함한 課外活動 등에서 반드시 이런 精神教育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교직자들의 의무이며 또한 보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科學教育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과학의 힘은 인간의 개인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모든 生活領域들에서 지배적인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科學教育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교부는 敎科課程의 改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教育行政에 있어서 科學教育과 技術教育의 振興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각급학교들도 주어진 여건 아래서 과학교육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이 늘 사물을 세밀하게 觀察하고 과학적으로 分析하고 합리적으로 推理하는 습성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들은 이러한 습성을 길러줄 수 있기 위해서 적은 科學教室이라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한된 國家財政이 어느 정도 이러한 과학교실들의 普遍化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모든 학교들은 기성회나 뜻있는 학부모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실속있는 과학교실들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科學教育도 精神教育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교사들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들

을 위시한 모든 교사들이 科學教育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를 위해서 協力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동들에게 세밀하게 觀察하고 과학적으로 分析하고 합리적으로 推理하는 습성을 길러주는 일이나, 주어진 여건 아래서 지역 사회의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科學教育 뿐만 아니라, 또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모자라는 상황아래서 科學教室을 운영하고 아동들이 즐겨서 이를 이용하려 하는 일 등이 어떻게 특정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學校教育을 통해서 어떤 知識이나 技術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自然, 技術, 言語, 宗教, 藝術, 經濟, 體育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이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은 그들의 知能發達의 정도에 따라서 모든 知識들이 科學들에 의해서 制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科學教育의 振興은 모든 교직자들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종래에도 精神教育和 科學教育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 보면서 반성해 보면, 우리는 精神教育도 科學教育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가 종래에 왜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는지 批判해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教育行政家들과 아동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두 자기가 어떻게 새해에는 우리의 精神教育和 科學教育을 위해서 더 철저히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教師는 열두 사람의 우리의 愛國的인 人物들을 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매달 아동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教師는 新聞을 늘 자세히 읽고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바르게 아동들에게 紹介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教師는 매주 한 가지씩 주변의 사물을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아동들의 관심을 刺戟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새해부터는 精神教育和 科學教育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指標들은 단순히 장학방침으로서 학교 교실에 써붙여 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教職의 榮譽과 生命을 걸고 실천해야 될 절대적인 과제들입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교직자 여러분!

우리가 教育改革運動을 시작한 지 이제는 두해째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모든 舊習을 완전히 脫皮하고 교육의 새로운 風土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教職者들 自身の 단순한 決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스승으로서의 體面과 教職者의 責任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決心을 말합니다.

저는 문교부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決意가 굳은 모든 교직자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장애자의 해」인데, 特殊教育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과 故國을 떠나서 僑胞教育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感謝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教職者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 幸運과 큰 成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문제의 근원과 구조

박 준 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한마디로 통털어서 표시하면 하나로 말할 수도 있고, 다시 그것을 분석하면 복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로 집약하면 온 국민의 교육에 대한 기본자세가 문제이겠고 다시 이것을 나누어 말하면 교육정책, 교육구조,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제도, 교육행정기구, 교육행정과정, 교육과정, 교육방법, 각급 학교의 교육지도, 장학과 교육연구 등 수 없이 갈라 놓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어진 제목이 암시해 주는 것은 복수에 가까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단수 또는 단수에 가까운 문제를 제기하고 다루어 보라는 주문으로 들리기도 한다. 아닌게 아니라 주어진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수에 가까운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주어진 제목이 교육문제의 근원을 따져 보라는 것인만큼 그것을 역시 무엇인가 기본이 되는 줄거리 또는 배경을 이야기해 보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 데에도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열거해 본 몇 가지의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교육을 운영하는 가운데에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역시 교육에 대한 온 국민의 기본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되고 파생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나 단수가 역시 근원을 이루어 놓는다는 뜻에서도 그와 같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안다.

2. 그러면 무엇이 근원인가?

이미 앞에서 암시한대로 한국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그 근원을 교육에 대한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안다. 한사람 한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육열, 특히 자녀 교육열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어떤 나라 사람에 지지 않게 뜨겁고 강하다. 그러면 되었지 그것이 뭐가 잘못이나고할지 모른다. 우선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고, 나아가 남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높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이 아니다. 또 나쁘지도 않다.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려하고 받으려 하게 된다. 부모는 무슨 희생이라도 무릅쓰고 가르치려고 한다. 서양 사람이 보면 정말 놀랄 정도이다.

그럼에도 한국교육 문제의 근원을 이 같은 기본적인 자세에서 찾고자 하는 까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을 바꾸면 대부분의 어른이 지니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세, 즉 교육관의 바탕이 지나치게 이기주의적인 것에서만 출발하고 있는데서 찾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의 개인으로 또는 사인(私人)으로서 기르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데에 병폐가 있다. 나와 너와 우리의 논리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때 그것이 결코 고의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와 전통의 문맥 속에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행위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며 기본구조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와 너와 우리의 논리 속에서 살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와 너와 나의

논리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되는 측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말을 바꾸면 공인(公人)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에 바탕을 두고 행위해야 되는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습관과 관습은 혹은 나와 너와 우리의 문맥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규정으로 바뀌어지고 법률로 규정되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와 나와 나의 논리 속에서만 생각되고 행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형성된 교육관은 아직도 여전히 나와 너와 우리의 논리가 생활의 실재를 강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측면이 많다. 다른 부문에서도 그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교육에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과외 공부를 위해서는 어떤 무리를 하고 얼마든지 돈을 쓰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니 교투 돈을 좀 더 내서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때에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내지도 않으려는 것은 그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공익이 사익에로까지 되돌아 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다릴 수 없는 당장의 이기적 목적에만 관심이 쏠리는 현실, 또는 현재주의적인 경향 때문이 아닌가, 국민교육헌장에서 공익을 앞세워야 하는 점을 강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자세는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들만이 가지는 자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이 원활하게 발전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지 아니해 온 정치인들, 행정인들의 자세 역시 그랬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내버려두어도 스스로 교육열과 향학열로 교육하고 배우게 된다는 생각으로 차일 피일 밀고 왔기에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빚은 것도 그 근원은 역시 같은 데에 있고 구조 또한 그런데서부터 이해가 된다. 교육을 한다는 미명으로 사립학교를 세워 대부분은 학생이 내는 돈으로 운영하면서 세금없는 개인 기업과 같은 태도로 학교라기 보다는 시장바닥과 같은 상황으로 화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여기 저기 생겨나게 한 수많은 현상도 바로 같은 근원과 구조라고 보아서 궤히 잘못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늘까지 교육계에서 논의되어 온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 즉 이기주의적 교육관에서 찾을 수 있고, 그

것이 구조화하게 되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3.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와 구조를 개선시키고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해결의 열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이 같은 문제를 제거, 또는 해결하기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 까닭은 간단하다. 수 백년 또는 수 천년을 두고 형성되어 독특한 문화와 전통으로 굳어지고 거기서 사는 동안에 생겨난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위형식이요 보면 그것 자체가 문화성과 전통성을 지니게 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즉 기본적 가치관을 이루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 가치관이란 그리 간단히 바뀌어 지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다. 그것은 또 심층심리학적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이고 문화유전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이 같은 것이 바뀌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혁신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에 걸친 교화이다. 혁신적인 방법이라 하여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을 가지고 어느 모로 보나 다 같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절실하게 생각하던 것이 교쳐지게 되었다는 공명을 얻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교화적 방법은 혁신적인 방법과 같은 공감을 바로 줄 수는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수년이 아닌 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방법과 교화적인 방법이 문맥에 있어서 같은 체계를 이루고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게 할 때에 그 효과는 강화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층 더 효과있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색다른 것을 첨가하여 거의 모든 국민의 공감을 얻게 되고 호응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연초에 대통령의 시정연설 가운데에서 보여준 교육관계 부문에서 강조된 내용은 시의에 적절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서 완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모른다. 그래도 예년에 없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족할 것으로 안다. 두드러진 내용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가운데에 덧붙여 중요한 내용을 교육면에서 실천할 것을 천명하였으니 취학전 교육과 평생 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과열과 공부로 인하여 전체 국민을 괴롭게 하던 상황을 일대혁신에 의하여 우선 진정시키고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여 혁신적 개선을 꾀한 것을 계속 추진하는 일도 부분적으로 보완하며 아울러 새 시대를 열면서 결실하 요구되는 평생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그에 앞서 초기 인간교육의 바탕이 되는 취학전 교육을 강화 확대하겠으며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여 명실공히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 사회 발전의 기틀을 정립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시의에 적절한 정책이요, 옳은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면 무엇이 이 같은 정책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위에서 제기한 정책 자체가 그의 구현방안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남음이 있다고 해도 좋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일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외공부 풍조가 중·고등에서만이 아니라 새롭게 일 가능성이 짙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외공부의 필요성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조

치를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일이다. 이미 대학생 상대로 학원이나 학관에서 손을 뻗치고 있으니 그것이 평생교육기관화 하게 하는 길을 찾아 실현케 할 것이다.

둘째는 초·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 정책과 교원의 질적 향상책을 아울러 강구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학전 교육의 보급, 확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연구, 전문 교원의 양성, 소규모 취학전 교육기관화, 교구 및 교재의 개발을 아울러 서두르고 형식적으로 취학생 수에만 치중하지 말 일이다. 동시에 내무부, 보사부 그리고 문교부가 따로 따로 구상, 시행하는 경향을 지양하고 문교부 중심으로 일원화 하고 체계를 세워서 실시하는 일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세째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지도를 아울러 포함하여 평생교육의 연구와 단계적 프로그램화를 서둘러 역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것이 되게 할 일이다.

이 같은 취학전 교육, 학교 교육의 부족한 점 보충, 평생교육의 체계화와 프로그램화와 동시에 이것을 이론적, 실제적으로 교육개발원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하며 이미 출발한 교육방송을 이론바를·프래 중심의 문제해결식 지도의 방향에서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오픈·에듀케이션과 스콜·가운슬의 역할은 이런 점에서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안다. 또한 당국은 교육개발원 등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이 바람직하다. □

特輯 I : 教育課程 改編의 展望과 課題

-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 教育課程 變遷과 背景
-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探索
- 國民精神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的 接近方案
- 科學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的 接近方案

教育課程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辛 世 浩

(本院 教育課程研究部長)

1. 緒

教育課程이란 教育의 目標, 內容, 方法에 관한 基本計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教材를 執筆하는 일, 敎員들에게 任務를 부여하는 일, 學生의 學業成就를 評價하는 일, 學校를 管理하는 일, 심지어는 豫算과 人力을 配定하는 일 등에 있어서 活動의 目標와 方向을 提示해주는 文敎事業의 基本方針, 또는 計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教育課程은 民族解放으로부터 1954년에 이르기까지 過渡期의 敎授要目時代를 거쳐 그 후 3회에 걸친 改編經驗을 통해 많은 發展을 보아 온 것이 事實이다. 平均 10년에 한번 改編하던 것을 加速化되는 社會變動, 學問發展이 몰고 오는 새로운 知識, 價値, 規範 등을 보다 빨

리 反映시키기 위하여 6年을 一週期로 決定한 일, 編修行政의 專門化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講究된 것, 教育課程 資料의 多樣化를 위한 政策發展 그리고 改編에 對備한 基礎研究, 國際比較研究 등을 실천해 온 것, 教育課程의 設計, 開發 및 評價의 原理와 指針을 作成해 낸 일 등은 그 동안에 보인 教育課程 發展의 例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教育課程의 문제는 계속 指摘되고 있으며 (實은 매우 建設的인 現狀이지만) 改善의 必要, 發展의 素地가 여러 角度에서 論議, 發見되어 온 것이 事實이다.

이 글은 새 時代의 出發에 즈음한 教育課程의 發展方向을 探索해 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論議의 順序는 새 時代의 特性과 그것이 教育課程에 주는 示唆, 그리고 發展方向의 提示가 되겠는데 論議의 能率을 위해 몇 가지 말의 概念을 定義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 이 小考는 1980. 10 韓國教育開發院이 主催한 學制 및 教育課程 發展方向 探索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筆者의 “새 시대의 교육과정 발전방향”을 요약·수정한 것이며 本院의 公式立場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2. 教育課程과 教育課程 發展

教育課程의 意味를 크게 말해서 教育의 目標과 內容에 관한 基本指針이라고 言及했지만, 教育課程이란 말은 실제에 있어서 너무 多樣하게 사용되고 있어 混亂이 일어날 정도로 包括의인 概念이다. 그것은 흔히 意圖된(intended) 學習이라는 計劃으로서 쓰여지기도 하며 實際로 이루어진 學習經驗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지기도 한다. 後者の 경우는 意圖하지 않는(unintended) 그러면서도 실제의 學習場面에서 일어나고 있는 經驗까지도 包含하여 尙장 걸으로 나타나지 않지만(Latent), 그 眞 學習課程을 통해 보이지 않게 얻어지는 潛在的 結果까지를 包含한다. 또 이른바 Course of Study, 處方된 目標, 內容, 方法을 陳述한 計劃으로서의 文書 등은 前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教育課程의 意味를 더욱 混亂시키는 것은 教科課程이란 말이다. 學校가 展開하는 教育活動은 教科的인 것과 教科外的인 것이 있어서 前者를 전거함에 기본이 되는 計劃을 教科課程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다. 말하자면, 教育課程의 各論을 의미하는 것이다. 教育課程이라는 教育活動의 基本計劃이 全敎員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는 데도 큰 原因이 있겠지만 결국 教科書가 바로 教育課程이라는 認識이 아직 教育界 一角에 있는 것 같으며 學習者에게 실제 주어지는 經驗을 重視하는 사람들은 敎師가 現場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觀心을 갖기 때문에 敎師가 바로 '教育課程'이란 말이 成立되기도 한다. 또 教育 自體가 갖는 內在的 目的을 重視하는 사람, 教科知識의 構造, 概念體系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教科課程을 教育課程'이라고 主張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가 意味있는 見解이며 主張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 教育課程이란 말은 學校教育의 目標, 內容 方法에 관한 國家水準의 計劃이라고 定義하고 使用키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教育課程 發展이란 말은 教育의 目標, 內容, 方法과 관련지워 發生하는 理

論的 實踐的 문제를 解決하는데 있어서 教育課程이란 文書化된 計劃이 갖는 價値의 向上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政治社會的 要求가 上部의 指示로 學校에 떨어지고, 그것을 실천하자니 教育課程에 明示된 授業時間을 이행할 수 없고 따라서 目標達成이 憂慮되는 現場의 苦悶, 目標, 指導, 評價間의 斷切性, 成績點數의 變質을 비롯해서 적게는 教科書가 너무 어렵거나 쉽다는 見解의 差에서부터 크게는 學力管理, 學校管理를 위한 基準의 不在에서 오는 行政의 形式主義도 실은 教育課程의 發展이 未洽한데 큰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새 時代의 特性和 教育에 주는 示唆

우리의 教育課程은 대체로 말해서 學校運營, 教育體制 運營의 根幹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것은 전통적인 학문구조에 기초한 教科課程과 國家施策으로 附加되어 온, 이른바 정책과목, 그리고 入試爲主의 現場 教育課程 등 2重, 3重의 구조를 지녀왔다. 또 그것은 충분한 시간과 예산, 그리고 專門人力과 發展된 개발 절차의 투입이 매우 미흡한 속에서 만들어 지곤 했다. 진학 위주의 교육 풍토 속에서 우리의 教育課程을 學生들에게 많은 것을 부과지만 그 기초를 공고히 해주고 학습력, 사고력을 키워주는 데서는 성공적인 것이 못 되어 왔다.

이상의 指摘은 우리 教育의 어두운 面을 드러내고 지금까지의 政策決定者, 관련된 研究學者들의 잘못을 꼬집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하나의 새 時代를 맞이하는 出發點에서 現實을 照鑑하고 發展方向을 탐색하여 우리의 學校教育이 眞實로 國民을 위한 것이고 國家建設에 힘있는 것이 되게 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探究해 보려는 것이 그 意圖이다.

우리는 새 해, 새 時代를 맞이할 때마다 今年에는, 80年代에는, 무엇이 좀 시원하게 나아지기를 바라는 期待와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當爲論을 展開하는데 熱을 올리곤 한다. 80年代의

初年度부터 우리는 엄청난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第5共和國 새 時代의 意味가 무엇인가? 또 새 時代의 教育은 어떻게 變할 것이며 어떻게 變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35年을 자라온 韓國教育은 사람으로 치면 壯年이다. 解放後의 定礎期, 50年代의 戰爭의 傷處를 治療하던 復舊期, 60年代의 量的 膨脹期, 70年代의 主體的 覺醒期와 質的 發展 探索期를 거치면서 이제 壯年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이 壯年이 世界 어디에 내키도 몇몇하고 賢明한 韓國人으로서 자랑스럽게 行動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成長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그리고 健壯하고 믿음직한 이 壯年이 政治, 經濟, 文化, 藝術, 宗教 등 어떤 話題를 나뉘도 成熟한 一家見을 가진 聰明한 모습은 또한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自信이 없다. 그러므로 不安하고 焦燥하고 性急해진다. 새 時代는 이런 意味에서 매우 重要한 教育的 課業을 成就할 것을 要請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 時代, 第5共和國은 우리에게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이다.

民主와 正義와 福祉를 내 걸은 새 時代는 이미 憲法에서, 政策에서, 機構組織에서, 그리고 豫算에서 教育을 歷史上 가장 強力하게 浮刻시키고 있음은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 사실이다. 새 時代가 追求하는 社會는 民主社會, 福祉社會에 앞서 教育社會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國民教育에 그 運命을 걸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課外의 追放, 高等教育的 機會擴大, 社會教育, 平生教育, 幼兒教育에 대한 投資와 社會擴大, 教育財源의 大幅의 增加意志 등은 새 共和國의 教育政策을 말 해 주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들 改革 속에서 國民教育을 통한 民主社會, 正義社會, 福祉社會 實現의 意志를 볼 수 있다. 民主主義에 대한 政治的 價値定向과 行態定向間의 不一致 問題, 自由意識에 대한 責任意識의 相對的 缺如, 共同體意識과 全體利益의 觀點에 대한 學習缺損, 黑白論理의 盛行, 他人의 意見을 尊重하고 見解의 多樣性을 인정하는 生活訓練의 未洽 등등의 問題가 해결되지 않는 社會風土 속에서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資本主義의 非理, 非情이 亂舞하는 속에서 正直하고 誠實한 市民의 生活이 威脅을

받는 事例의 續出을 그냥두고 正義社會를 具現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또 富의 公有와 私有概念의 調和, 機會의 均等, 最低水準의 維持, 地域間, 階級間의 衡平, 均等한 配分, 自助와 相扶相助의 調和 등이 지켜지지 않는 經濟秩序를 유지하면서 福祉社會로 이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위와 같은 民主社會, 正義社會, 福祉社會 實現을 阻害하는 問題들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理念의 變化, 制度의 變化, 構造의 變化, 政策의 變化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輕率한 樂觀論이다. 個人의 變化에 正當한 構造變化和 補完關係를 갖지 못할 때 構造變化가 노리는 目標은 褪色되거나 완만해진다. 自由中國, 싱가포르, 이스라엘의 社會改善 成功의 裏面에는 徹底한 國民教育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事實이다. 民主社會, 正義社會, 福祉社會 具現을 위한 個人變化의 方案은 무엇인가? 「새 時代」는 그것을 國民教育에서 찾고 있음이 分明하며 또 그것은 하나의 當爲論이다. 그러면 「새 時代」의 教育政策이 教育課程 設計家들에게 주는 直接 間接의 示唆은 어떤 것인가? 간략히 몇 가지만을 들여본다면, 첫째, 政治社會化 機能으로서의 學校의 教育力이 強化되어야 되겠고,

둘째, 社會全體의 學習場化를 겨냥하는 教育機能의 擴大와 分散이 必要하며,

셋째, 國民精神을 구성하는 知的, 情意的 特性에 대한 學習은 知識의 獲得過程과 生活場面에서의 訓練을 공히 必要로 하며,

넷째, 幼兒教育, 初等教育에 대한 이러한 要請은 어디에서보다 높은 것이며,

다섯째, 全人教育의 效率化를 위한 教育課程의 改編,

여섯째, 體系的 教育管理體制의 確立을 통한 教育革新의 遂行과 學校의 責務性 意識의 提高,

마지막으로 敎員教育의 強化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教育課程 政策의 發展方向

우리나라 政治史上 처음으로 教育은 그 방대

한 潛在力을 發輝할 機會를 갖게 되는가 보다. 우리의 學校教育이 정말로 힘있는 것이 되기 위한 教育課程 發展의 方向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 政策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첫째, 國家發展과 人間完成을 위한 教育의 基本性格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各級 學校教育의 目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부터가 분명히 정리 되어야 할 것이다. 教育法에 명시된 몇 가지 目標, 國民教育憲章 등에 나타난 여러가지 知的, 情意的 德目에 대한 分명한 개념 정리 작업이 있어야 하며, 그것의 實踐方案에 관한 多樣한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國民精神教育은 여러 곳에서 그 동안 꾸준히 研究를 進行시켜 온 것 같지만 그들 위한 구체적 目標, 內容, 方法이 綜合的으로 提示된 研究가 없는 것 같다. 分散的으로 있었던 그동안의 經驗은 統合 整理되어 教育課程 設計에 投入되어야 한다. 國民精神을 위한 教育에 있어서 해야 한다는 當爲와 規範的인 主張은 무엇을 어떻게 라는 科學的 探索過程으로서의 方法論에 이어져야 하며 그것은 다시 教育課程 設計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새롭게 強調되는 價値를 既存 教育課程에 追加하는데서 오는 教育課程의 附加的(Additive) 性格을 是正해야 할 것이다. 基本構造의 變化를 통해 科目의 統合, 範圍의 縮少, 基本概念 中心의 選別的 內容選定 및 再組織 등을 통해 附加的인 性格에서 오는 문제를 防止해야 할 것이다.

學校의 教育課程은 學生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教育內容, 科目, 時間의 축소 조정은 一部 教科 專門家들의 反對를 무릅쓰고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政策課題이다. 各 教科教育 전문가들의 一理 있는 主張들이 모두 합쳐 教育課程에 반영되면 學生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量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셋째, 現代의 教育管理體制, 學校經營體制를 確立하여 教育課程, 教育評價, 學校評價, 獎學, 編修가 相互 連結되는 教育政策의 開發이 바람

직하다.

넷째, 教育課程 資料의 多樣化 政策이 講究되어야 하며 關係資料를 開發하는 일에 있어 劃一化의 度를 어느 정도 풀어 地方分散을 試圖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教科書에도 學生들에게 긴요한 여러가지 學習資料를 地域의 特殊性과 開發能力을 고려하여 市道教育委員會別로 또 教育廳 단위로 研究·開發·活用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教育課程 開發專擔機能·設置 運營의 本格化 政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을 그렇게 活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相應하는 法的 措置와 身分의 保障이 있어야 하며 人力과 組織의 適正規模에 確保 維持되도록 하는 育成策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教育課程 開發에 必要한 基礎研究와 教育課程이나 教科書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時間과 예산과 專門人力 投入를 보장하는 政策配慮가 時急하다. 教科 專門家에 의한 教科研究 外에도 教育理念家, 哲學者, 插畫家, 兒童心理學者, 授業設計專門家, 發達心理學者 등의 事前 研究가 있어야 겠고 무엇보다도 철저한 전문적 개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教育課程의 研究·開發은 教員教育과 밀접한 關聯下에서 進行되어야 한다. 教育과정 연구개발 結果는 결국 일선학교 교원을 통하여 보급·실현되므로 教育과정의 根本目的과 內容이 教育現場에서 얼마나 適切하고 效率的으로 實現되느냐 하는 문제는 教員의 資質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教員養成 및 現職教育은 教育課程 研究開發의 一環으로서 考慮되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양성 및 現직교육기관에서의 教育과정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要請된다. 또한 教育課程이나 教科書가 開發되는 과정에서 教員의 참여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검토·실험·수정의 후속과정에서의 그들의 참여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

教育課程의 變遷과 背景

韓 晁 熙

(本院 責任研究員)

1. 緒

우리 나라 教育課程의 變遷에 대한 時代 區分은 여러 가지 基準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945年 우리나라의 光復을 基點으로 하여 불려 洪雄善은 韓國의 教育課程 運動을 ① 教授要目 時代 ② 教科課程 時代 ③ 教育課程 時代의 3段 階로 나누어 考察하였으며,

金豪權은 1974年에 中央大學校 附設, 韓國教育問題研究所에서 發刊한 「文教史」의 時代 區分을 그대로 따라 ① 定礎期, ② 再建期, ③ 改革期, ④ 發展期로 區分하였고,

金宗西는 ① 教授要目の 強調 ② 教科教育課程의 強調 ③ 生活中心 教育課程의 強調 ④ 學問中心 教育課程 強調의 時期로 區分하였으며,

1979年에 韓國教育開發院에서 提示한 國民學校 教育課程 改善研究報告書에서는 ① 教授要目期 (1945~1954) ② 第1期 (1955~1962) ③ 第2期 (1963~1972) ④ 第3期 (1973~현재)로 區分하였다.

이 밖에도 다른 觀點에 따라 區分한 例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洪雄善과 韓國教育開發院의 區分을 절충하여 ① 教授要目 時代 ② 教科課程 時代 ③ 教育課程 1期 ④ 教育課程 2期로 區分하여 各 時代의 特徵과 背景을 考察하기로 한다.

2. 우리 나라 教育課程의 變遷과 背景

1) 教授要目時代 (1945~1954)

教授要目 時代라 함은 美軍政下에서 教授要目を 制定 實施하였던 時期를 말한다. 光復 직후의 教育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는 日帝의 帝國主義 政育方式을 버리고 民主主義 精神을 기르는 일이었다. 따라서 우선 한글을 가르치고 公民과 國史에 重點을 두어 各教科를 指導하면서, 시급히 各級學校의 教科目 편제표와 時間配當表를 作成하였다. 그리고, 教授要目 制定 委員會를 組織하여 教授要目を 制定 活用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는 比단 美軍政時代에만 限定된 것이 아니라, 그 當時 마련된 教授要目は 1955年 「教科課程」이 制定 公布될 때까지 運營되었으므로 그 시기는 실제로 10年間 계속되었다.

1949年 12月에 教育法이 公布되었으나 그 法에서 規定한 教育理念이나 教育 目的에 符合되는 「時間配當基準令」과 「教育課程」은 5年 뒤인 55年에 制定되었으므로 그 5年間은 教科課程의 摸索期 또는, 定礎期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過度期의 教育은 한마디로 日本의 帝國主義와 全體主義인 植民地 教育에서 民主主義의 自主教育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우리는 傳統의 教育의 階級主義, 差別主義를 배격하고, 民主精神에 입각한 새로운 教育을 希願하였으며 人間

을 道具化하는 것으로 目的을 삼는 教育에 反하여 自我實現을 위한 教育을 提唱하였다. 그리고 劃一主義的 教育을 거부하고 各各의 個人差를 認定하는 教育을 부르짖었으며 過去의 文化的 遺産을 전달하는 知識中心의 教育, 教科書中心의 教育을 배격하고, 산 教育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教育觀은 美國의 進歩主義 教育思想의 特色을 一部 反映한 것이었다. 그러나 當時의 여러 가지 與件¹⁾의 不備로 인하여 教科間의 규제는 엄격하였으며 강의, 필기, 그리고 記憶을 위주로 하는 暗記 또는 注入式 教育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

2) 教科課程 時代(1954~1962)

教科課程 時代는 새로 樹立된 政府가 公布한 教育法²⁾에 따라 1954년에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을, 1955년에 「教科課程」을 公布한 때부터 1963年 教育課程을 改正할 때까지에 이르는 8年間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우리나라 教育의 再建期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教科課程은 教育法에 명시된 教育理念과 새로운 教育思潮(특히 進歩主義)에서 強調하는 全人的 兒童中心의 理想을 反映하여 學生의 經驗·生活에서 發見되는 問題를 中心으로 하여 폭넓은 領域의 單元을 따라 學習이 展開되도록 指導하는 方法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며 勞作教育을 強調하였다. 즉, 이 시기는 그 간에 部分的으로 反映하여 왔던 進歩主義 教育思潮를 本格的으로 反映하려 하였던 時期이다.

그러나 1955년에 構成된 「教科課程」은 急하게 制定해야 할 必要에 쫓겨 우리나라의 教育現實을 등한하게 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教育課程 構成에 대한 哲學이나 技術의 未熟에 터하여 外國의 教育思潮를 받아들인 結果 韓國教育이 當面한 問題를 檢討하고 消化시킬 겨를도 없이 서둘러 制定할 수밖에 없었던 當時의 特殊한 諸般 與件으로 인해서 많은 缺陷과 未備點을 남기게 되었다.

그것은 「教科課程」의 內容에서 뿐만 아니라 教育課程에 대한 用語도 整理하지 못한 채 教授要目, 教科課程, 教育課程의 用語를 막연하게 쓰고 있었다. 이는 Syllabus, course of Study, Curriculum이라는 用語의 概念을 混用한 것이라 하겠다.

3) 教育課程 1期(1963~1972)

教育課程의 1期은 1963年 2월에 各級學校의 「教育課程」이 公布된 때부터 1973年 教育課程이 改正되기 以前까지를 말한다.

1955년의 「教科課程」은 時代의 進運과 國內外 情勢의 變遷에 미추어 볼 때 실정에 맞지 않으며 基礎學力의 부족을 초래 하였고, 구체적 目標의 제시가 要請된다는 것이 1959년의 輿論調査에 나타났다. 그리하여 文教部는 教育課程 개정작업을 서둘러 1963年 2월에 制定된 教育課程을 公布하였다. 그것은 종전의 「時間配當 基準表」와 教科課程을 묶어서 教育課程으로 하였고, 教科活動과 反共·道德生活 및 特別活動의 3코 오스에서 教育課程의 全體 構造를 갖추었다. 內容에 있어서는 自主性, 生産性, 有用性을 強調 하였고 組織에 있어서는 合理性을, 그리고 運營에 있어서는 地域性을 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를 우리나라 教育課程의 改革期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內容面에 있어서 國家民族의 自主性을 教育課程에 反映함으로써 우리의 歷史意識과 使命感을 自覺하는 自主的 人間의 育成을 기하고자 하였고, 實業, 實科, 科學技術教育을 強調한 것은 勿論, 모든 教科를 通하여 生産性的 向上을 意圖하였다. 그리고, 國家社會의 要求와 學生들의 生活에 必要한 課題를 中心으로 生活經驗을 通한 教育을 強調하면서 有用한 社會人과 자랄 수 있는 實踐人을 기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특징은 當時 教育課程의 定義에서 教育課程은 “學生들이 學校의 指導下에 經驗하는 모든 學習活動의 總和라고 밝힌 意味에서도 쉽게 찾

1) 軍政 初期에 教育을 擔當하였던 美軍職員들 가운데 教育을 理論적으로 指導할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韓國人 指導者 중에 外國에서 教育學을 배운 사람이 있었으나 韓國 教育의 실정에 어두어 충분한 指導力을 가지지 못하였다.

2) 教育法은 1948年 12월에 公布되었음.

아를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63년에 개정된 교육課程은 우리 社會의 必要와 課題를 充實히 反映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傾向은 美國의 進步主義가 1940年代에 들어와 兒童中心 傾向에서 擴大되어 소위 社會中心教育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美國의 後期進步主義 특징이 우리나라의 60年代 教育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當時 우리 나라의 學校에서도 社會問題를 學校教育에서 다룸으로써 社會의 必要에 연결되는 소위 「地域社會學校」의 理論이 部分的으로 鞭치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이러한 傾向이 美國 教育思潮의 影響이라고만 하는 것은 어렵고, 當時 韓國社會에서도 國家發展과 民族主體性이 크게 高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當時에 개정된 教育課程은 “해방 후에 導入된, 生活中心, 經驗中心의 教育思潮를 이때에 비로소 實踐面에서 받아들인” 結果가 된 셈이라고 洪雄善은 말하고 있다.

4) 教育課程 2期(1973~현재)

教育課程 2期은 1973年 개정 公布된 教育課程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

文教部는 1969년부터 63년에 개정된 教育課程의 一部를 수정·보완하기 如作하였다. 종래에 國語와 併行하였던 漢字教育을 初·中學校에서는 폐지하였으며 國史教育을 強化하고, 中·高等의 實科教育을 필수로 하였다. 그리고 反共·道德教育을 強化하고 特活을 통한 國民教育憲章 理念의 實踐을 꾀하였다.

이어서 文教部는 73年 2月과 8月에 國民學校와 中學校 教育課程을 公布하였고 74년에 高等學校 教育課程을 公布하였다.

이 개정된 教育課程은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을 基本方向으로 삼고 國民의 資質의 函養, 人間教育의 強化, 知識과 技術教育의 刷新을 基本方針으로 삼았다. 그리고, 具體화된 學校教育의 一般目標에서는 自我實現, 國家發展 및 民主的 價値 等の 범주로 區分되어 있다.

이 教育課程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하나는 教育의 方向에서 國民精神教育의 強化이며 또 하나는 教育의 方法的 原理에서

學問接近 方式을 教育課程의 背景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基本概念의 理解와 知識의 構造의 學習과 探究의 能力을 重視하였다. 그러나 數學, 科學, 社會 等 知的 探究가 크게 強調된 一部 教科에서는 學生의 要求나 教師의 資質, 學校施設 面에서 實現上의 困難點이 많이 提起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나라가 1970年代에 와서 새로 제정 선포한 國民教育憲章을 教育의 理念的 지표로 하였으며 韓國의 民主主義의 土着化, 새마을 精神의 具現, 安保態勢의 強化 等 主體性 있는 教育을 確立하면서 社會 道德性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점을 反映한 것이며 한편 學問의 哲學的 立場에서 1960年代 初부터 美國에서 새롭게 매두된 學問中心 教育課程 思潮의 一面을 反映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現在 우리 나라의 教育課程은 복잡한 現代社會의 理解에 불가피한 知的 教育과 諸 社會의 要求를 同時에 反映한 教育課程으로서 教育의 적절성을 어느정도 고려한 發展의 教育課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意味에서 1970年代를 우리 나라 教育課程의 發展期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展望 및 맺는 말

모든 時代의 教育課程은 그 時代의 哲學的, 社會的, 心理的 要求를 反映하면서 全人教育으로서의 調和로운 發展을 위하여 지속적인 變化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國內外 情勢의 어려운 問題를 극복하고 새로운 福祉國家의 建設을 爲하여 새 時代에 부응하는 國民教育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강인한 體質과 復雜한 現代 社會의 理解에 필요불가결한 知的 能力, 그리고 豐富한 人間性과 투철한 國民精神을 強調하는 教育을 통해서 國家의 繁榮은 勿論,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수 있는 健全한 人間育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調和로운 教育課程의 設計와 그의 合理的 運營에 대한 探究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탐색

곽 병 선

(본원 책임연구원)

1. 서 언

교육과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들은 교육이론의 발전, 학문과 공학의 발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요구의 변화 등이다. 73년에 개편을 본 현행 교육과정은 그 연한으로 봐도 다시 개편할 시기에 도달했지만, 80년대 초에 새 공화국의 출범을 맞이한 정치 사회적 특수상황, 앞으로 전개될, 그리고 지향하여야 할 10년, 또는 20년 후의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 필자는 교육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변수들을 우리나라 교육의 특수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러한 검토 속에서 시사되는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개편의 변수들

현행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데 있어 방향탐색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량 고등교육 체제로 전환된 데 대한 대책으로서, 둘째는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셋째는 급변한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해 여름에 단행된 대학입시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개방체제로 전환시킨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개혁이 단행된 동기는 과열과외라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고등학력사회로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 분야의 발전적 배경과 그 미래를 조망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량 고등교육체제로의 진입은 단순한 과열과외 병폐해소라는 측면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고등지식사회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왜 우리가 고등학력 또는 고등지식 사회로 이행하여야 하는가는 여러 측면에서 해답을 구할 수 있으나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우리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뇌산업, 지식산업으로 활로를 열어야 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국민의 思考力과 知力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산업구조로 점차 우리나라의 산업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관찰은 교육과정 개혁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사회 등 여러면에서 경험하고 있는 변화도 대량 고등교육의 필요와 더불어 교육과정 개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현태인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문화적 지체」, 「미래의 충격」과 같은 변화의 병을 앓기 쉽다. 즉 변화에 낙오되었을 때 적응에 실패한 결과로 생기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는 현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를 배웠지만, 오늘날은 과거 뿐만 아

니라 미래도 학습하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부단히 변동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단절의 시대」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와 더 나아가 그 교육과정 속에 변화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대량 확산과 더불어 두번째로 고려되는 점은 학교교육의 기능을 평생교육의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꾸준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교육은 결국 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완성시켜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은 계속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은 한 학생이 학교학습이 끝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고력——과학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학교교육에서 강조해야 된다.

이처럼 대량 고등교육으로의 전환은 지식사회의 진입을 가속화시켜 개인과 사회의 적응력과 개척능력을 높여주게 될 것이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은 학습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강조를 뒤야 한다.

교육과정 개혁의 두번째 중요변수는 현행 학문중심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1973년에 개편된 것으로서 소위 미국에서 1960년대를 주도했던 학문 교육과정 운동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기본원리는 학문의 성격에 맞게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처음 시작 당시에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거의 해결해 줄 수 있는 접근으로 평가되었다. 아직도 이 학문 교육과정의 원리는 교육의 실제에서 부단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 말은 「학문 교육과정만이 교육과정의 가장 좋은 접근방법이라」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은 학문적 접근 외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접근 방법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학문 교육과정의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는 순수지식, 추상적 지식을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지식의 실용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지식의 전문화를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을 무시하게 되는 점이다.

셋째는 독립 분산된 지식영역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학문간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들면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부터 교과로 분리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경우이다.

네째, 학문성(discipline)이 비교적 명확한 지식의 영역(수학, 물리같은 교과)에 우선권이 주어져 교육과정에서 위계가 생기고 교과간 불균형이 유발된다.

다섯째, 학문적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학이나 수학을 모방하려는 다른 영역에서의 노력은 결국 사회와 문학같은 영역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도의시킨 채 추상적 순수개념에 강조를 두게되고, 정서적 영역을 취급하는 음악이나 미술과의 예술활동의 약화를 가져오기 쉽다.

여섯째, 학문의 구조를 이루는 요인에 대하여는 학자간에 일치를 보기가 힘들고 때문에 이것을 교육과정 설정 지침으로 활용하는 데는 타당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미숙한 학습자를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학자나 기술자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대한 의심스러운 가정(假定)이다.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지(認知) 또는 탐구과정의 질적(質的)인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 학문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불평되는 주요 이유는 학생의 발달정도에 따른 특성을 무시한 채 학문적 특성만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탐구과정을 거의 절대적으로 분산된 지식의 범주안에서만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는 무시하기 쉽다.

아홉째, 학문교육 과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발

달에서 특히 중요한 정의적 영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학문 교육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찾아 본 것이다. 현행 학문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폐기되어서는 안될 좋은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현행 학문 교육과정의 장점을 포용하면서 이 접근의 협소한 시각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통합교육과정의 접근, 내용의 정선과 수준의 적정화가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관련된다는 세번째 주요 변수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과 교육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정치는 교육에 적게 관여할수록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좀더 확대해 나가면 교육의 내용은 진리에 관한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고 때문에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동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위 恒存主義 또는 本質主義의 입장이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 교육과정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소홀히 해석하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한 국가 또는 사회체제를 형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특정한 맥락속에서 전개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중요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적인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정치적 문제도 되는 것이다. 요즈음은 지식사회화의 공헌으로 교육과정의 정치성, 교육과정과 이념(ideology)과의 관계에 관한 주제가 교육과정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을 관찰해 볼 때 상당한 부분이 시대성과 정치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식이 脫歷史的, 脫政治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는 교육 과정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교육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강력하게 작용할 때 교육과정에 주는 변화는 보다 가속화될 수 있다. 여하튼 교육이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

고 하면, 이 외적 요구를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과업은 교육 전문가들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개편에 관련된 제언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논의에서 당연시하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정 개발체제와 교과서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설정에 관한 권한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그 개발과정에서 일선교사, 지역단위 교육전문가를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다. 물론 현행 체제는 국가의 교육목표나 새로운 교육원리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일관성있게 파급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교사의 소외현상, 지역적 적절성 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일체가 중앙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계획 및 수업내용을 선정 제시하는 기본활동에 있어서 피동적,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기 쉽다.

둘째, 교사가 본연의 활동 즉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나 사고를 평소에 수행하려고 하여도 이미 따라가도록 주어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고하거나 연구하고 싶은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결과로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교육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소의 기회가 봉쇄될 수 있다.

셋째, 중앙에서 획일화한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적, 학교별 특수성이나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비추어 볼 때 교수-학습 면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일률적인 적용은 교사와 학생을 다같이 교육 내용에서 소외시킬 수 있다. 피상적, 형식적인 교육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교육과정 개발의 폐단을 다소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안이 있을 수 있겠다. 교육과정 기본방향이나 지침은 중앙에서 마련하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24페이지에 계속)

國民精神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的 接近方案

安 貴 德
(本院 責任研究員)

1. 國民精神教育의 概念과 必要性

國民精神教育을 教育課程에 反映하고 初·中
高教育을 通하여 一貫性있게 효율적으로 實施하
기 위해서는 우선 國民精神教育의 개념 정의와
그 構成 要素를 分明히 해둘 必要가 있다.

國民精神教育의 개념을 정립하고 초·중고별
內容 體系化를 위한 努力은 최근에 더욱 활발히
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제안되고 있는 내용도
본원에서 初·中高 教育課程에 國民精神教育을
體系的으로 投入하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연
구 논의된 결과임을 밝혀둔다. 물론 國民精神
教育의 概念定義에 있어서나, 各급학교 教育과정
에의 투입 前提條件提示와 國民精神教育 內容항
목의 提案 等에 있어서 完全히 合議된 事項도
아니며 따라서 論議의 餘地가 없는 完全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토
의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國民精神教育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개선에 대
한 노력을 기대한다.

國民精神教育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들에게 익
숙한 概念이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그 개념의 정
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한 국가의
國民으로서 그 누구나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基本的인 價值觀, 態度, 信念 등, 情意的 側
面을 강조하여 그 개념을 규정하기도 하고, 從來

실시해 오던 반공교육, 도덕교육, 통일 안보교
육, 국민윤리교육, 정치교육, 사상교육 등의 내
용을 모두 포괄하는 概念이라고 넓게 해석하
기도 한다.

이렇게 國民精神教育의 개념을 달리해석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이 개념이 가지는 統合性 思想
性 時事性의 특징 때문이라고 한다¹⁾.

여하튼 이 개념을 규정하고 거기에 따른 內容
要素를 밝히지 않고서는 各급학교 教育과정에의
反映은 虛構에 머물고 體系的인 國民精神教育活
動을 展開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단 國民精神教育의 概念을 學校教
育을 通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國家가 追求
하는 理念과 政治·社會體制의 正當性을 이해하
고 이에 對한 信念을 가지며 國家와 民族을 自我
와 同一視하는 共同體意識을 가지고 國家와
民族을 爲하여 봉사하고 合理的 民主生活을 영
위할 수 있는 도덕적 人格을 갖추도록 하기 위
한 教育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의 國民精神教育이 종래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一貫된 지침하에 움직이지 않고 새
마을 教育, 도덕교육, 국민교육헌장 이념구현 교
육 등이 各급 各級로 斷斷적으로 展開되어
왔었다.

그리고 종래의 接近方法들이 當爲性을 強調한
水準에서만 머물고 理論的 體系的 基礎가 定立
되지 않아 그 教育成果에 多少 懷疑가 없지 않
았다.

그러므로 國民精神教育은 지금까지의 斷片의
인 接近方法을 統合 體系化하여 學校教育이 效

1) 박용현 : 國民精神教育의 定向, KEDI : 國民精神教育의 諸問題 1976. pp. 13-16.

果의으로 擔當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必要에서 提起된다. 國民精神教育은 이러한 우리 나라 教育 自體의 教育 內的인 問題가 가져다 주는 必要外에도 몇 가지 重要한 教育外的인 要因에 依해서도 그 필요성을 살피 볼 수 있다.

첫째, 우리 국가의 냉엄한 정치적·국제적 현실이다. 냉혹한 남북 분단의 現實과 自國의 利益을 絶對的으로 앞세우는 國際社會의 환경 속에서 우리 內部的 政治的 混亂과 政治發展의 未熟은 國家의 存立自體를 위태롭게 함을 10.26事態 以後의 우리 社會는 立證하여 주었다. 이러한 國家의 現實에서 國民共同體意識 形成을 위한 教育은 그 어느 때보다 要請되고 있다.

둘째, 우리 社會의 많은 사회적·병폐와 부조리가 근시안적 利己主義와 前近代의 情實主義, 缺乏된 民主的 生活方式 등 基本的인 國民精神의 結여에 依한 것이 없지 않다는 反省이다. 健全한 國家 社會를 形成·發展시켜가기 위한 價値觀 確立이 教育的으로 要請된다.

세째, 자라나는 世代를 國家理念과 體制에 適應시키고 政治社會化 訓練에 關한 教育의 接近이 理論的으로 成立되어 國民精神教育의 問題를 體系있게 다룰 수 있는 學問的 根據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學問的 發展은 종래의 國民精神教育에 對한 接近方法의 改善을 要請하고 있다.

2. 國民精神 教育內容 反映을 위한 基本前提

國民精神教育을 學校教育이 效果的으로 擔當하기 위해서 이 教育을 통해서 育成시키고자 하는 人間像을 淸명하고 이에 關連된 教育 內容이 무엇인지 確證하고 이를 모든 學教級別 教育프로그램에 어떻게 反映 組織할 것인지에 關한 教育課程이 構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國民精神教育을 위한 教育課程은 곧 이 領域의 教育을 體系化한 學校 教育의 設計가 될 것이다. 이러한 國民精神教育 體系化를 위해서 몇가지 前提되어야 할 基本 가정들이 있다. 이 基本 가정들은 國民精神教育의 基本 성격울 좀 더 具體的으로 부연하고 이를 學校 教育으로 體系있게 접근(各級學校 教育課程에의 投入)시키는데 고려되

어야할 教育的 觀點에 關한 것들이다.

첫째, 國民精神教育은 우리가 追求하고 있는 國家理念 및 體制의 正當性에 關한 教育을 근간으로 한다. 理念 教育의 基本 目標은 歷史 意識이 투철한 한국인을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民族共同體意識, 國民經濟意識, 民主的 生活態度를 기르는데 關連된 知識, 理論, 價値를 國民精神 教育內容의 根幹으로 한다.

둘째, 國民精神教育은 學校教育 全般을 理念教育의 立場에서 보는 限 教育的 觀點이다. 그러므로 國民精神教育은 어느 특정 영역이나 교과의 프로그램만으로 效果的으로 實現될 수 없다. 學校의 모든 活動 領域과 철저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學生들의 價値信念의 획득이 學校의 교과 教育만으로 可能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교의 의도적인 지도와는 關제없이 習得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세째, 國民精神教育은 幼稚園 教育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上位級別 教育機關에서 一貫되게 實施하여야 한다. 國民精神教育은 궁극적으로 價値의 信念化 및 態度的 形成에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一貫性 있게 教育되지 않는 한 그 效果를 거둘 수 없다.

네째, 國民精神教育은 時代的 變化에 따른 國家的 社會的 要求를 基本的으로 反映하되 어느 特定 政權의 立場을 초월하여 純粹한 教育的 立場에서 꾸준히 實踐되어야 한다.

다섯째, 國民精神教育은 國民精神의 基礎가 되는 知識, 價値, 理念에 關한 知的 習得 뿐만 아니라 이를 生活 속에서 實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生活訓練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國民精神教育의 效率的 達成을 위하여 一貫性있는 學校教育의 實施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社會環境의 조성도 必要하다. 이를 爲하여 各階 指導層 人士들에 對한 教育도 꾸준히 實施되어야 한다.

일곱째, 國民精神教育의 內容은 關聯된 여러 분야의 學問的 探究로 밝혀진 妥當한 知識과 原理, 또는 立證된 事實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理論과 實際에 있어서 劃一性을 維持하도록 構成해야 한다.

여덟째, 國民精神教育은 盲目的 注入과 같은

敎化의 方法이 아니라 合理的 思考力을 높일 수 있고 個人의 潛在力을 最小限으로 伸張시킬 수 있는 敎育의 原理에 依해서 展開되어야 한다.

3. 國民精神 敎育內容

1) 學校敎育에서 國民精神敎育의 位置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學校 敎育은 이 期間의 자라나는 學生들로 하여금 그들의 發達 水準에 따라 價値있는 目標들을 效果의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돕는 專門的 實踐過程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國民精神敎育이 學校敎育을 通하여 效果의으로 達成할 수 있도록 學校敎育의 目標로 關聯짓는 일은 어느 특정 敎과나 活動 目標에 反映시킬 수 있는 性質이 아니라 모든 敎科活動과 기타 學校活動에 關連되어 있다. 즉 國民精神敎育의 중요한 問題들은 知識情報敎育(知的側面), 價値敎育(情意的側面) 生活指導(行動側面)와 상호 關連되면서 補完的 측면을 가지고 있다.

2) 國民精神敎育 內容要素

國民精神敎育을 學校敎育이 效率的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設制로서 國民精神敎育의 目標과 그 構成要素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民精神 敎育의 下位 目標과 構成 要素

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民族共同體 意識 確立)

A. 國家意識 涵養

- 우리 나라 體制
- 우리 民族
- 우리 文化
- 우리 國土
- 南北分斷의 現實

B. 勝共意識의 涵養

- 共產主義 本質과 虛構性
- 共產主義 侵略的 本性
- 北韓 共產集團의 蠻行과 現實
- 우리 體制의 우월성

C. 國家守護 意志 培養

- 國難克服의 意志
- 總力安保 意識
- 國家利益과 國際協力

② 건전한 경제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國民經濟意識 確立)

A. 國民經濟 意識 涵養

- 自由市場制度
- 經濟計劃과 國民經濟
- 經濟發展과 福祉社會
- 國民經濟

B. 國民經濟 倫理觀 確立

- 기업 윤리
- 근로자 윤리
- 소비 윤리
- 경제적正義

C. 건전한 경제 생활 태도

- 경제 개발의 의지
- 합리적 소비 생활
- 근로 존중
- 자원절약

③ 民主的 生活態度를 지닌 사람(民主的 生活態度의 배양)

A. 민주적 생활 규범에 관한 이해

- 정치 성실한 태도
- 인간 존중 태도
- 공익 우선 태도
- 법과 권위 존중 태도
- 사회 정의 의식
- 협동 봉사 정신
- 자유와 책임 의식

B. 민주 정치 체제에 관한 지식

- 정치 권력
- 정치 과정
- 정치 형태
- 정치 문화
- 정치 발전
- 국제 정치
- 우리 나라 정치의 특수성

C. 민주적 생활 방식 습득

- 자율적 정치 참여
- 합리적 의사 결정

3) 國民精神教育 내용요소와 教科教育과의 관계

위에 提示된 國民精神教育의 內容要素는 學校教育의 모든 領域과 밀접한 관련 밑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내용요소들은 어느 특정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의 설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成就될 수 있는 性質의 教育內容이 아니며 學校教育의 모든 활동에 포함되어 일관성있게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요소들을 學校教育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면 우선 學校教育 활동의 中心인 教科教育活動 以外的 모든 활동과 어떻게 관련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國民精神教育의 내용 요소들이 지식정보에 관한 것, 價値 信念에 관한 것, 태도 습관 형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영역의 교육을 교과교육만으로 국민 정신 교육을 성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각 教科教育에서

는 그 教科가 가지고 있는 學問의 性格에 따라 어느 특정 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役割을 기대할 수 있다. 즉 國民精神教育의 內容 要素를 직접적으로 教科內容으로 취급할 수 있는 教科가 있고 또 間接적으로 學生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교과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國民精神教育의 내용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비중에 따라 教科를 분류하면 위 내용요소를 해당 교과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도덕과, 사회과가 있고, 위 요소들을 간접적으로 폭넓게 담당할 수 있는 教科도 國語과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과는 나머지 학과들을 예거할 수 있을 것이다.

國民精神教育을 各級 學校 學生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效率의로 實現하기 위해서는 國民精神教育의 性格에 따라 確認된 目標와 內容 要素들을 學校級別 學年別로 體系化할 必要가 있다. ————— ◆

(20페이지에서 계속)

개발은 전문 교육연구소나 연구기관에 이양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복수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여러 교육전문 자원인사와 일선교사들의 참여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역적 적절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대안은 중앙에서 아주 상세하게 교육과정 개발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을 토대로 각 학교별, 또는 지역단위별로 학교가 연합하여 학교나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실적 제약 때문에 위 두 가지의 대안은 쉽사리 실현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일 수 있다. 즉 현행 개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육과정 운영상에 있어서 교사에게 지역적 특성이나 교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 교육과정의 융통성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

해서는 金科玉條로 취급되고 있는 教科書觀을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안내를 돕는 교재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教材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학생의 필요, 학교 여건을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능동적으로 가르칠 프로그램을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을 때(또는 학교별, 지역별로도 독자적인 학교안 또는 지역안이 가능할 때) 그런 분위기가 학교현장에 가득할 때, 학생들은 그들의 필요에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그들의 교직 전문성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고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는 교육과정 개발체제, 교수-학습에 관한 프로그램 일체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창안 개발하여 수업효과를 높이는 교사가 우수교사로 인정되고 포창받는 그런 교육과정 개발체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인가? ————— ◆

科學教育을 위한 教育課程上의 接近方案

韓 鍾 河

(本院 責任研究員)

1. 緒

科學教育의 重要性은 문교부 施政目標에서 언제나 優先順位에 올라 있다. 금년에도 문교부의 教育指標에 예외없이 과학교육이 언급되었다¹⁾.

실로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과학교육의 重要性은 문교부 정책으로서 해마다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처럼 과학교육은 政策的으로 강조되어 왔고, 누구나 그 정책에 首肯하였다.

그러면, 이처럼 重要性이 강조된 과학교육이 學校教育課程에서 어떻게 부각되어 왔는가? 1960년~1980년초까지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강조된 것과는 달리 과학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오히려 弱화되어 왔다. 특히 그러한 경향은 高等學校 教育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은 다음 章에서 좀 더 부연되겠지만, 文教政策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學校教育課程은 운영되어 왔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강조된 과학교육이 學校教育課程上에서 왜 소홀히 취급되어 왔는가? 그렇게 된 緣由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우선, 두가지 脆弱點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문교부 정책의 施行過程에서 보면, 文教政策과 學校教育 設計作業과의 밀착된 作業連繫가 부족하거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교육이 이처럼 중요했다면, 學校教育課程의 設計 및 運營上 그점이 明示되었어야 했다. 예컨대, 學校教育課程에서 시간수가 늘어난다든가

고등학교의 경우, 4教科(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를 선택과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必須科目으로 強化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곧 문교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설계작업 간에 연계성의 缺如를 그대로 노정한 것이라고 보겠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의 重要性은 누구나 수긍하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方法에 대한 認識의 바탕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科學 및 技術은 國家 생존과 發展의 原動力이 되며, 학교교육의 成敗가 국가발전의 성패와 直結되기 때문에,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는 論理에 대하여는 모두가 首肯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大義名分으로만 내세우는데 그쳤을 뿐, 교육과정 설계자들(교육학자, 타교과 교육학자 등)에게는 無意味한 口頭禪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과학교과를 타교과목과 마찬가지로 學校教育課程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認定하는 이외에는 어떤 다른 意味나 重要性을 부여하지는 않았었다. 이는 곧 國家의 주요한 教育政策이 교육과정 설계에서는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런 處事는 교육과정 설계이론과도 모순되는 일이다.

어느 교육과정 설계이론에서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요구(needs)가 학교 교육과정의 결정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문교부의 주요 시정지표로 제시된 科學教育의 重要性이 교육과정설계(특히, 시간 편제구성에서)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李奎浩 文교부장관 “1981년 새해를 맞으면서 : 精神教育和 科學教育을 위해서”, 1981. 1.1 신년사에서.

그러면, '81년 새 學校 教育課程을 改編함에 있어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교육과정상에 反映할 수 있을 것인가를 현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기회에 退落하는 과학교육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교육은 더욱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기회에 正常軌道에 올려놓지 않으면, 과학교육의 後退를 더욱 加速化시킬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즈음하여, 과학교육의 正常化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고려사항을 제시코자 한다.

2. 學校 教育課程의 運營 및 構造上의 問題

1) 入試制度가 주는 영향

학교 교육과정의 구조를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전체의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교육이 사양길에 든 원인을 보면, 교육과정의 구조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으나, 교육 전체의 제도상의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入試制度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初·中·高等學校의 교육은 大學入學試驗을 위한 준비교육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入試制度가 이들 學校教育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현상은 目的과 手段이 완전히 전도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바람직한 國民的 資質을 기르는데 있지, 대학 입학시험을 위한 준비교육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다²⁾. 그러나 入學試驗制度 때문에 學校 教育課程의 運營은 완전히 變則的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는 누구에게 責任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엄혀버리고 말았다.

實은 학교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때문에 가장 희생당하는 教科中的 하나가 科學教科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大學入學 豫備考查에서 교과의 比重과

配點 때문에 고등학교 물리교과, 지구과학 교과는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백안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학이 基礎科學 가운데 基礎教科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市內 A고등학교의 과학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退化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A교고는 1977년만하더라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주당 20여 시간이었다³⁾(표 참고). 그러나

A고교의 연도별 과학교육 시간배당 및 교사의 수

교과목	시간수(주당)		교 사 수	
	1977년	1978	1979	1980
물 리	20(3명)	12.5(2)	10(1)	8(1)
화 학	21(3명)	18.3(3)	21.5(2)	—
생 물	21(3명)	17.7(3)	16.4(3)	—
지구과학	21(1명)	12(1)	8(1)	6(1)

1979년도에는 물리의 경우 주당 10시간으로 줄었다. 1980년 경우는 8시간으로 줄었다.

교사의 수만하더라도 전체 10여명(1977년)이던 것이 1980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다. 만일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에는 물리 교사와 지구과학 교사는 둘 중 한 사람이 물러나야 한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우선 입시제도가 수학·국어·영어 등 몇 개 교과에 致重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래를 내다볼 때,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면, 입시제도에서도 그 중요성이 반영되도록 政策을 펴야 옳았다.

입시제도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과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에 상에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살아나도록 과감한 政策的 配慮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學校 教育課程 設計上의 問題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상의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우선, 各級學校 교육과

2) 교학사, 문교법전, (서울, 교학사, 1978), pp.21~24.

3) A고교는 여학교로서 3,4 학급 규모의 학교이다.

정을 어떤 관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느냐이다. 다시 말해서, 과학 교육과정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수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다고 할 때, 어떤 특징과 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구상하느냐이다.

이 문제는 과학교과라는 특수 영역 안에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학교급별 과학 교육과정은 知識體系 中心으로 設計되고 있다. 즉 고등학교의 과학 교육과정(물리교과, 화학교과, 생물교과 등)은 대학의 一般物理, 一般化學, 一般生物 등의 축소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의 물리 교과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內容選定の 原則 및 組織이 대학의 그것에 비추어 이루어 졌다.

한편 중학교의 과학은 고등학교 과학 교육과정, 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내용을 축소한 축소판 교육과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자연과(과학과) 교육과정은 중학교의 것을 축소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국민학교의 아동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의 축소판으로 假定하는 論理가 그 이면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그러한 假定이 아니라면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규정하는 體系가 上級學校의 그것이 下級學校의 그것을 支配하지 말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의 내용선정과 조직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국민학교 아동의 學習能力이나 思考水準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의 그것과는 質적으로 다르다. 이 점은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네 경험으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이해하는 지식을 국민학교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그릇된 것이다. 물론 어느 學者가 가설로 제시하였듯이 「잘 풀어서 제시한다면……」⁴⁾ 이해할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상의 내용을 보면 「그런 式」으로 풀이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떻

게 하면 「그런 式」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한 대답이 없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런 가설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필자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知識體系 中心의 教育課程 設計方法에서 活動體系⁶⁾ 中心의 設計方法으로 전환할 必要性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學習者의 知的, 水準과 能力에 맞게 調整된 「體驗中心 學習活動」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학교육에서 그간 의미있게 감득하지 못하던 과학의 특성(탐구방법)을 과학교육에서 재확인하고 강조하자는 뜻이다.

둘째로 한 학교급별 교육과정 내에서의 구조상의 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심각하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4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이다. 이들 4교과 중 인문계 고등학교(실업계포함)에서는 2개를 選擇하게 되어 있다. 이 「擇二」라는 교육과정이 과학교육을 후퇴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의 구성은 두 가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4교과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하면, 곧 다른 교과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졌다고 보는 오해이다. 실은 4교과는 서로를 긴밀하게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 독특한 탐구방법과 탐구대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各領域의 學問的 體系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 영역은 뚜렷하고 확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두번째 오해는 4개의 교과를 「과학」이라는 한마디로 묶어 보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과학」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본다. 4교과로 분화된 과학 영역은 어느 다른 교과에서 쉽게 넘볼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는 않다. 4교과 영역의 專門性, 效用

4) 여기서의 內容은 知識을 의미함.

5) Buner, J.S. The Procese of Education, Havard-University Press, 1960, p. 32

6) 活動體系란, 탐구과정 중심 또는 문제해결 중심을 의미한다. 이 속에는 연구활동(Research project)도 포함된다.

性이 뚜렷하고 다룰 만큼 심화된 學問領域이다. 그래서 쉽게 統合하거나 묶어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묶어 생각한다면, 한 개로 代置해 보려는 無理가 바로 擇二라는 궁색한 교육과정을 낳게 하였는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법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高等普通教育과 專門教育을 함께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⁷⁾. 이법을 보더라도, 과학의 4 교과를 擇二해야 할 근거가 없다.

그 밖에도, 物理教育은 과학교육 뿐만 아니라 工業教育, 技術教育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교과가 必須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리교과가 고등학교 교육에서 거의 완전히 탈락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結 言

과학교육의 正常化를 위해서는 두가지 면에서 과감한 改革이 요청된다.

첫째로 學校教育課程에서 科學教育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강화하는 방법은 과학교육의 시간을 교육과정 편제상 늘리는 일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은 일대 革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結論으로 말해서 교육과정의 구조상에서 「擇二」라는 政策은 修正되어야만 한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이 공히 必須로 強化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形態이든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은 正常化되기 어렵다.

이러한 強化策은 文敎部가 지금까지 제시해온 施政指標와도 일치한다. 擇二라는 구차한 교육과정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科學教育의 重要性을 주장하는 정책은 口頭禪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과학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까닭은, 과학교육의 체험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知的成熟, 기본적인 사고력(문제해결력)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科學教育은 學生中心의 論理的, 分析的, 批判的, 創意的 活動을

중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증거수집, 증거제시, 증거확인 등의 관찰 실험활동이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學習內容이다. 이런 活動은 學生들의 思考力을 伸張시키는데 淸정일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은 他學問領域을 研究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과학교육은 未來社會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력을 길러 준다. 未來社會는 오늘날보다 더 복잡 다양한 科學 및 技術文明의 世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社會를 살아가려면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生活態度와 方法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교육에서 科學教育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入試制度에 찌든 學校教育課程의 運營을 正常軌道에 올려 놓아야 한다. 우선, 英語·數學·國語에 치중하는 식의 입학시험 방법에는 일대 혁신이 요청된다. 政府가 과감하게 課外授業을 澈絶하였듯이, 입학시험제도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

입학시험 때문에 어느 특정교과의 교육이 잘 된다면, 이 점을 감안하여 과학교과도 입학시험에서 강조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문교부 시정목표와도 일치한다.

실은 현행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배정된 시간수(단위수)에 더해 입학시험 점수의 比重을 配慮하였어도, 과학교육은 현재와 같이 弱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입학시험 제도와 아울러 試驗方法이 너무 知識中心 紙筆檢査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국민학교에서까지 實驗中心 授業이 退落하고 있다. 이러한 試驗方法 때문에 과학교육은 지식전달 수업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科學教育의 正常化를 위하여는 시험제도와 방법상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입시제도와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外的 要因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과학교육의 重要性을 부르짖는 것은 밑뚝어진 항아리에 물붓기나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

7) 문교법전, p.24

特輯 II : 學校級別 教育課程 改編의 方向

- 幼稚園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 中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幼稚園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李 延 燮

(本院 責任研究員)

文敎部 告示 第424號로, 1979年 3月 1日 發表된 幼稚園 教育課程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改編을 해야 된다는 點에 對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點이 있다.

1979년에 告示된 幼稚園 教育課程이 10년전 것보다, 즉 1969년 2월 10일자 文敎部令 第207號로 告示된 것보다, 훨씬 잘되어 있다는 點이다. 幼兒의 發達水準에 맞는 國家意識의 高揚을 強調하고 民主的 價値를 重視하고 自我實現을 부각시킨 一般目標의 設定도 바람직한 것이었으며 具體的 目標에서도 '69년도 것을 다 包含하고 있으면서 '70年代에 새로히 부각된 認知發達 領域을 첨가시킨 것도 높이 살 점이다. 또한 發達領域에 따라서 教育課程의 構造를 나눈 것은 全人的 成長 또는 全人教育의 觀點에서도 환영할 일이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가 펴낸 幼稚園 教育課程 運營資料集에 잘 對比되어 있어引用하면 다음 表와 같다(1979, pp. 20~21).

다음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79년도 유치원 教育課程은 比較的, 抱括的이며 全體적으로 보아 調和를 이루고 있다. 다음의 表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具體的 內容에서도 領域別로 活動 內容을 20~30個로 要目化함으로써 좋은 照會體制가 될 수 있다. 그러면 79년의 幼兒教育課程을 改編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具體的 理由로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作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幼稚園 教育課程도 이 照會體制에서 再考하여야 할 必要性이 대두되었다. 더욱기 앞으로 幼兒教育의 획기적 확충에 따른 幼稚園 教育의 公教育化가 論議될 것이 거의 確實한에 비추어 幼稚園 教育課程과 國民學校 低學年 教育課程을 함께 생각하여야 할 必要性이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이 國民學校와는 別個로 論議되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表>

1969년도 및 1979년도 문교부 유치원교육과정의 비교표

		1969년도 문교부령 유치원교육과정	1979년도 문교부령 유치원교육과정	비 고
차	일 반 목 표	1. 건강한 신체 및 정신으로 생활하는 유능한 한국인 양성	1. 자아실현 2. 국가발전을 위한 주체적식 확립 및 사명감 인식 3. 민주적 가치의 강조	새교육목표에서 국가관에대한 인식이 뚜렷이 나타났음
	구체적교육목적	1. 건강 및 안전교육 2. 기초적 생활습관 획득 3. 자연 현상관찰, 과학적이고 민중적인 사고력 배양 4. 듣기와 말하기 바로하기 5. 심미적 태도와 창조성 기르기	1. 사회화에 필요한 경험 습득하기 2.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를 갖고 표현하기 3. 탐구력과 적응력 기르기 4. 언어습관 및 태도 기르기 5. 신체건강 및 안전에 대한 습관 및 태도기르기	중전의 내용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인지발달 특성에 관한 것이 보완 되었음
이	교육과정의조직	[생활영역에 의한 구분입] 위의 5개 목표와 관련하여 구분함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으로 구분	[발달영역에 의한 구분입] ○ 사회·정서발달 영역 ○ 인지발달 영역 ○ 언어발달 영역 ○ 신체발달 및 건강영역	어린이들은 생활을 통해 배우는 특징이 있으므로 발달 영역에 의한 교육내용분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교육일수와시간	연간 200일 이상이며 하루 3시간 교육을 기준함	연간 200일. 일일 3~4시간. 주 6일간 교육내용 구성상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음	일일 교육시간이 4간정도 있을수 있음
유	궁극적인인간상	전인(全人)	전인(全人)	
	아 동 관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경험을 하게 하는 아동중심 교육관	아동의 흥미중심, 산경험중심, 자발적 발전을 강조하는 아동중심 교육관	
사	학 습 형 태	생활중심, 경험중심, 놀이중심	생활중심, 경험중심, 놀이중심	

改編作業 過程에서 國民學校 教育課程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總들째는 '79년도 教育課程에서는 國民精神 教育內容의 反映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國民精神 教育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論議되어 왔으며 初中高의 教育內容에 適切히 安配되었다. 그러나 國民精神 教育內容의 反映이 現行 幼稚園 教育課程에 뚜렷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이 점을 補強할 必要가 指摘되었다. 國民精神 教育은 넓게 보아 社會發達 領域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9年度 幼稚園 教育課程은 社會發達 領域과 情緒發達 領域을 합쳐 놓아서 이 內容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더우기 國民精神 教育을 幼稚園서부터 高 3까지의 연계성을 再考할 必要性에 비추어 차제에 幼稚園 教育課程에서도 이 部分을 明瞭化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筆者

의 느낌으로는 現行 幼稚園 教育課程에 記述되어 있지 않은 國民精神 教育內容도 現場에서는 거의 每週 2~3回씩 들어 있으며 指導方案도 革 創意的인 것으로 알고 있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것을 選別하여 明文化하면 國民精神 教育 內容選定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세째, 現行 幼稚園 教育課程이 部分的으로 여기 저기 不分明한 점이 있음이 지적되어 왔으며 各 領域別 細部目標 內容陳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가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現象 중에 하나는 文書化되고 公約된 教育課程이 바로 現場에서의 教育自體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現場의 教師들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文敎部令으로서의 教育課程을 幼稚園의 實際 教授狀況에 적용시킬 때 부딪히는 問題이다. 筆者가 直接, 間

接으로 들은 바로는 教育課程에 提示된 教育內容이 너무나 基本的인 것이라서 實際 現場에서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호소에 종종 接하였다. 勿論 文敎部令 教育課程에 詳細한 教育內容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陳述된 目標·內容이 分明하여 現場에서 照會體制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 일일히 다 檢討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과 잘 사귀기
- 基本情緒를 自然스럽게 表現하기
- 本존개념알기
- 물체의 이름과 성질알기
-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하기

以上の 몇 가지는 너무 一般的이라서 國民學校 幼穉園 것인지 分明하지 않을 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文敎部令 幼穉園 教育課程이 모든 教育目標와 內容을 다 詳述할 수도 없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지만 可能한 한 쉽게 理解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비껴, 幼穉園 教育의 一般目標의 하나가 앞으로 다가 올 學校學習에서 要求되는 基礎機能을 길러 주는 것이라는 데는 異義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點이 幼穉園 教育課程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79년도 幼兒教育課程도 學齡前 兒童의 身體的, 心理的 發達特性이 考慮되었겠지만 充分하지 못한 감이 있다. 어느 發達段階도 마찬가지지만은 各 段階에서는 能力的 上限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一般的이기는 하나 對象集團의 發達特性을 分明히 이해하고 그것을

업무에 두고 教育課程을 구성하지 않으면 成人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너무 어렵게 되거나 漠然해지는 예가 있다 하겠다. 幼穉園兒들의 발달특성을 充分히 考慮하여 '79년도 教育課程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反共”, “民族”, “國家”, “數”라는 概念은 成人이 쓰는 말로 제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反共을 強調하는 나머지 “북한의 실정을 알기”라는 목표를 세워 놓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치원아”에게는 우선 南과 北이라는 方向감각도 가르쳐야 하며 實情이 北韓의 慘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떤 참상인가가 분명해야 되며 그것을 더 자란 뒤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유치원에서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막연히 北韓을 시뻘겍게 칠하고 무서운 이디예의 발톱을 그려 넣는 活動은 이 段階 아이들에게는 목표와는 다른 學習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이 反共教育의 問題는 더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여하간 이 時期의 아이들의 發達特徵을 再確認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밝혀두고 싶은 것은 改編이라는 어휘를 썼으나 사실은 改編이라는 말 보다는 修正補完이 더 옳은 表現일런지도 모른다. 현재 이 과제가 진행 중이며, 관계된 여러 전문가들, 즉 심리학자, 유아교육전문가, 초등교육전문가, 교육과정전문가, 현장교사 등이 한 팀이 되어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발표된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教育開發院의 基本方針이 아님을 밝혀 둔다. ◆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金 在 福

(本院 責任研究員)

1. 緒

現行 國民學校 教育課程은 1973年 2月에 공포된 이래 8年이 경과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약 10年을 週期로 教育課程이 改定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週期는 社會의 급격한 變化, 知識과 技術의 폭발적인 增加와 가속적인 發達, 個人이 가지는 欲求와 價値의 多邊化 등에 의하여 점점 短縮되고 있는 것이 世界的 趨勢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 國民學校의 教育課程은 이미 改編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르러 있다 하겠다.

本院에서는 1979年度에 國民學校 教育課程(案)을 研究·開發하여 文敎部に 報告하였으며, 이 案은 1980年度에 文敎部の 審議를 거쳐 現在 補完 中에 있다. 한편 本院에서는 文敎部に 報告한 教育課程(案)을 바탕으로 1980年度에 1, 2, 3學年 教科書와 指導書를 研究·開發하였고, 금년에는 開發된 教科書와 指導書를 現場實驗에 投入하면서 4, 5, 6學年 教科書와 指導書의 研究·開發을 完了할 예정이다. 그리고 教育課程(案)은 文敎部の 최종 審議와 修正·補完을 거쳐 금년 12月에 告示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國民學校 教育課程의 改編과 관련하여 國民學校 教育의 特性 및 現行 教育課程의 問題點을 간단히 살펴보고, 改編되는 教育課程의 方向을 教育目標, 編制와 時間配當, 教科 教育課程의 構成 등으로 나누어 밝혀보고자 한다.

2. 國民學校 教育의 特性

우리 나라 國民學校 教育의 特性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民主國家 國民으로서 必要한 資質을 기르는 基本 教育이다. 教育法 제93조에 의하면 「國民學校는 國民生活에 必要한 基礎的인 初等 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明示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國民學校 教育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 이기도 하다. 곧 國民學校 教育은 健全하고 有能한 國民으로서의 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구에게나 基本이 되는 知識과 技能 그리고 態度를 가지도록 하며 心身의 調和있는 발달을 도모하는 教育이다.

둘째, 모든 國民이 누구나 받아야 하는 義務教育이다. 教育法 第96條에 의하면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가 만 6세가 되는 翌日 이후 最初 學年初로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學年末까지 就學시킬 義務가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國民學校 六年間의 教育이 義務教育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學校教育의 바탕을 마련하는 基礎 教育이다. 國民學校는 후속하는 中·高·大學 教育의 基礎를 마련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앞으로의 諸般 學習에 必要한 基礎的인 學習技能과 基本的인 學習能力 및 態度를 길러주어야 한다.

네째 成長의 諸側面을 豊富하게 하고 바람직한 態度와 價値를 갖게하는 全人教育이다. 國民學校 教育의 對象인 6-11세 兒童들은 成長과 發達이 왕성한 반면 확고한 자기 主觀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模倣이 심하고 感受性이 예민하다. 따라서 教育力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成長發達이 後에 갖게 되는 性格形成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친다. 그러므로 言語, 性格, 習慣, 身體, 情緒, 愛情, 生活에서의 價値觀 등 아동생활 전반에 고른 成長과 發達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現行 教育課程의 問題點

일반적인 問題點으로서, 첫째 새 社會 建設에 맞는 國民精神 教育內容의 반영이 필요하게 되었다. 1980年代의 社會는 民主主義의 土着化, 正義社會의 具現, 福祉社會의 建設이라는 指標를 設定하고 이를 向하여 國民 모두의 總力을 要求하고 있다. 따라서 教育도 이에 부응하는 役割을 糾明하고, 役割에 부합된 目標과 內容을 選定組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리한 學問의 概念·導入으로 인하여 學習者의 發達水準에 맞지 않는 內容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教育은 學習者로 하여금 어떤 事象에 대한 理解를 통하여 다른 事態에 適用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前提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現行 教育課程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水準의 再檢討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學界는 물론 現場 教師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셋째, 知識 위주의 分科의인 編制가 止揚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社會의 諸般 問題事態는 關聯 知識과 創意性을 바탕으로 하는 綜合的 解決을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各 教科의 學問의 特性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教科를 細分함으로써 學生 1人當 부과되는 教科數가 많게 되었다. 특히 1,2學年의 경우 아직 未分化된 상태의 兒童에게 8教科 7책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째, 教育課程에 제시된 內容의 量, 즉 學生들의 學習量이 過多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양성한 成熟期에 있는 兒童들의 身體的 發達이 저해되고, 人間教育으로서의 價値觀 教育과 情緒 教育이 소홀하게 되고 있다.

다섯째, 國民學校의 特性과 機能 및 學生의 水準에 맞는 國民學校 教育目標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現行 教育課程에는 初·中·

高를 망라한 一般目標는 제시되었으나 이를 國民學校의 教科目標로 移行해 가는데 指針이 되는 國民學校 教育目標가 없다. 따라서 一般目標가 教科에 직접 反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여섯째, 教科間에 橫的 關聯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教育課程 構成에서는 縱的 系列性和 繼續性은 물론 橫的 연결과 統一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現行 教育課程에서는 教科間 水準의 差異, 陳述의 差異 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教科의 學年目標間 系列性 缺如, 內容 選定에서 原則 未備, 運營指針 및 指導上 留意點의 模糊性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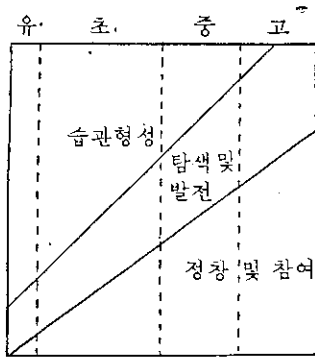
4. 教育課程 改善의 方向

1) 教育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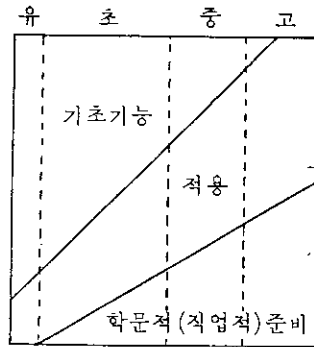
國民學校 教育目標는 教育法 第93條와 94條 및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國民學校 教育의 特性을 바탕으로 하여 社會生活에서의 適應的 機能, 基礎學習 技能, 健全한 價値觀과 態度, 健康한 身體發達과 豐富한 情緒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 立場을 근간으로 하여 目標의 類目은 國民精神의 涵養, 社會意識의 確立, 自我의 實現, 經濟生活의 營爲, 國際社會에의 參與의 5個 領域으로 하여 各 領域마다 몇 개의 目標를 설정하였다. 즉 國民精神의 涵養에는 國家의 維持 및 發展과 關聯된 사항들을, 社會意識의 確立에는 健全한 社會生活을 하는데 필요한 事項들을, 自我의 實現에는 個人生活의 質을 높이고 調和로운 發達에 關聯된 사항들을, 經濟生活의 영위에는 勤勞 및 財貨와 關聯된 사항들을, 國際社會에의 參與에는 文化交流 및 人類共榮에 必要한 事項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各 目標의 設定 및 陳述에서는 教科教育에서의 學習經驗 選定과 指導에 充分한 시사를 줄 수 있으며, 계속되는 中等教育과 關聯하여 一慣性과 系列性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였다. 目標設定에서의 比重 및 陳述에서의 強調點을 中·高等學校와 關聯시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行動 및 實態



學習內容 및 學習能力



2) 編制 및 時間配當

教育課程은 現行과 같이 教科活動과 特別活動으로 나누어 編成하며 教科도 또한 現行과 같이 1, 2, 3學年은 8教科 4, 5, 6學年은 9教科로 하되 教科의 時間配當 原則은 다음과 같다.

첫째 低學年은 基礎 學習能力 伸張, 健全한 價値觀과 習慣形成, 健康한 身體發達 및 情緒涵養을 기하도록 하고, 高學年은 低學年에서 強調한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創意的인 思考力涵養, 實用的인 것의 習得과 活用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教科別로 볼 때 全學年에 걸쳐 國語를 強調하되 특히 低學年에서 더욱 강조한다. 社會算數, 自然, 實科는 高學年으로 갈수록 강조하고 道德, 體育, 音樂, 美術은 全學年에 걸쳐 고르게 배당하되 다른 教科와 相對的으로 比較할 때 低學年에서 더욱 強調되도록 한다.

셋째 教科間의 關聯性과 學年의 發達段階를 고려해서 低學年에서는 教科間의 統合을, 高學年에서는 分科를 原則으로 하여 1, 2學年은 教科別로 時間을 배당하지 않고 群으로 나누어 배당하며, 3學年 以上은 教科別로 時間을 配當한다. 따라서 1, 2學年 教科用 圖書는 다음과 같이 統合하여 제작되도록 한다.

教科	統合圖書名	統合學年
도덕, 국어, 사회	우리 생활	1, 2학년
산수, 자연	슬기로운 생활	1학년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1, 2학년

3) 教科 教育課程의 構成

學校教育의 대부분은 教科教育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學校教育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지려면 各 教科의 目標과 內容이 妥當하며 學習者의 學習을 誘導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 改編되는 教育課程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념하여 教科 教育課程을 構成하려고 하였다.

첫째 學習者의 發達水準과 부담을 고려하여 各 教科內容의 水準을 下向 조절하고 量을 줄인다.

둘째 內容의 選定·組織에서 算數, 自然은 概念體系를 중시하고 體育, 音樂, 美術은 表現을 중시하며 道德, 國語, 社會, 實科는 價値觀 및 生活適應 技能을 중시한다. 또 國語, 算數, 社會, 自然에서 基本學習 能力伸張에 강조를 둔다.

셋째 學生들의 學習은 加급적 探究와 表現 그리고 發見과 創意的 活動을 行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강조를 둔다.

넷째 教科間의 橫的 統一性과 教科內의 縱的 繼續性 및 系列性을 유지하며 目標와의 一慣性 유지에 힘쓴다.

한편 總論部分에 속하는 運營指針과 各 教科의 指導上 留意點은 보다 具體化하기로 하였다. 즉 運營指針은 學校教育 全般에서 필요한 計劃作成, 學習指導, 學習評價, 기타 事項으로 나누고, 教科의 指導上 留意點은 學習指導, 學習評價로 나누어 教師들이 教授活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中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裴 浩 栴

(本院 研究員)

1. 中學校 教育의 特性과 機能

中學校 教育의 特性은 兒童期로부터 青年期로 成長·轉換하는 학생의 心身發達段階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 이 段階에 처해 있는 학생은 身體的, 社會的, 知的 成長面에서 가장 폭넓은 變化를 經驗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急速한 身體發達 및 性的 發達로 因한 諸般 身體的인 變化를 容易하게 受容하지 못하고 심한 情緒不安을 느끼게 되는 한편, 社會性이 발달하면서 父母로부터 獨立하여 完全한 社會人으로서 行動하려는 데에서 심한 葛藤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급격한 知的 能力的 발달로 인한 강력한 好奇心과 探究心이 發動하여 活動範圍가 넓어지고 活動量이 急增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에서 점차 自身的 社會的·性的 役割을 學習하게 되고 自身的 身體的 特性을 受容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思春期에 접어들면서 經驗하게 되는 이와 같은 變化로 말미암아 학생들 간에는 여러 면에서의 심한 個人差가 存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학생 자자는 자기 나름대로 自我停滯感을 형성해가며 個性을 伸張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때 中學校 教育은 後期 兒童期로부터 青年前期로의 가장 큰 轉換을 하며 가장 큰 個人差를 갖게 되는 時期의 學生을 對象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獨自性을 찾을 수 있다.

즉, 학생 자자가 심한 신체적, 사회적, 지적 變化를 경험하고 이를 受容할 수 있게 하며

社會規範 등에 適應하면서 개인의 人性發達을 도모하는데 重點을 두는 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의 발달적 특징으로 보아 가장 독특한 면을 가지면서 國民學校와 高等學校의 連結軸 役割을 하는 측면도 지닌다. 다시 말해서 國民학교 教育의 成果를 더욱 發展·擴充시키는 동시에 高等학교 進학에 對備하는 性格을 갖기도 한다. 또한, 중학교 教育은 國民이면 누구나 지녀야 할 民主市民, 資質涵養에 必要한 普遍性을 띤 國民基礎 教養教育의 性格을 갖는 동시에 각 개인의 適性의 分化를 돕고 個性의 伸張을 도모하는 適性探索의 特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中學校 教育은 모든 部門에 걸친 成長·發達이 調和롭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개인이 情緒적으로 獨立하고 社會的, 性的 役割을 認識·受容하게 하여 社會化를 促進하는 機能을 가진다. 또한 個人的 適性을 探索하고 能力을 啓發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機會와 與件을 造成해 주고 自律學習 習慣 및 能力을 涵養시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개인의 환경·개성에 適合한 價値觀과 態度를 함양하도록 하며 社會 構成員으로서 合理的으로 適應할 수 있게 하는 役割도 遂行한다. 즉, 중학교 教育은 學校教育의 社會化 機能 中에서 社會·文化的 價値規範의 生活化를 中心으로 하는 適應의 機能과 학생 개인의 潛在的 能力과 素質을 啓發해 주는 開發探索의 機能을 주로 갖는다.

2. 現行 教育課程의 問題點

먼저, 현행 教育과정에는 중학교의 獨特한 性

格과 그에 立脚한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教育法에, 국민학교 교육의 成果를 더욱 擴充시키어 中堅國民으로서 必要한 品性和 資質을 기른다는 中等普通教育으로서의 性格만이 提示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중학교의 성격은 教育機會의 擴大 등으로 適合치 않게 되어 중학교의 性格과 機能을 再定立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基本方針과 一般目標의 關係가 不分明하고 一般目標가 教科目標 및 單元目標에 어떻게 反映되는 지가 模糊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基本方針이 一般目標와 마찬가지로 國家 教育理念과 國民教育憲章의 理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基本方針이 일반 목표를 規定하는 上位價值로서 教育理念의 役割을 하지 못하고 있어 一般目標와의 關係가 不分明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一般目標와 教科目標는 相互連繫性이 희박하고 일반 목표의 정신이 教科內容과 어떻게 關聯을 맺는지가 모호하며, 사실상 일반목표와 교과 내용은 相互斷切되어 있다. 또한 各 教科는 教科마다의 독특한 體制만을 강조하고 該當學問의 系列性만을 강조하고 있어 教科 全般的인 相互關聯性, 橫的 連繫性 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세째, 國民的 資質의 涵養, 人間教育의 強化, 知識·技術教育의 刷新이라는 3가지 基本方針은 서로 어떤 關聯을 맺고 있는 지가 不分明하고 教科內容을 選定·組織하는데 明確한 示唆點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構成方針에 관한 것으로서, 靑年前期로서 自率的이고 責任感 있는 品性을 기른다는 中學校 教育의 獨自性을 教育課程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불분명하고, 地域社會의 特殊性에 따라 보다 適切한 學習內容을 選定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모호하기 짝이 없어 실제로 教育課程을 構成하는 데 별다른 示唆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運營指針이 教育課程 運營者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運營지침이 抽象的이고 漠然한 用語들로 表現되고 있어 실제로 교육과정을 運營하는 데 필요한 具體的이고 實用的인 指針으로서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로 行政的 指示나 常

識的인 判斷에 의거하여 運營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생의 個性과 特質을 바탕으로 한 適切한 教育計劃을 세워 教育課程 運營의 個別化를 期하도록 한다는 運營지침은 매우 막연한 것이며 현재와 같은 教育與件에서는 非現實的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섯째, 教育課程 運營의 正常化를 沮害하고 있는 要因으로는 教師의 絕對數 不足, 施設·與件의 未備, 過密學級現狀 등이다. 教師의 絕對數 不足現狀은 教師의 擔當 授業時間數의 過多, 科目相馳, 生活指導의 未洽, 評價의 不實, 敎員의 士氣低下, 學習指導의 不實現狀 등을 惹起시키고 있는 한편, 施設·與件의 未備現狀은 學習指導의 效率化를 막고 特別活動의 正常的인 運營을 沮害하고 있다. 그리고, 過密學級 現狀은 過大學校 現狀을 招來하고 教師不足, 施設·與件의 未備, 生活指導의 未洽, 學習指導 및 特別活動의 不實現狀의 原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特別活動이 正常的으로 運營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活動部署를 編成만 해놓고 실제로는 運營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 바, 그 이유로는 業務負擔의 過多로 인한 教師의 活動意慾低調, 特別教室의 不足, 特活에 대한 認識不足, 그리고 구체적인 活動指針과 프로그램의 빈곤 등을 들 수 있으며 特活이 教科活動과 關聯性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3. 教育課程 改善의 方向

1) 教育目標 및 內容面

中學校 教育은 國民이면 모두가 갖추어야 할 基本的 資質을 기르기 위한 國民 基礎敎養教育의 性格을 지녀야 하므로 모든 개인을 對象으로 自我實現의 基盤을 構築해 주는 동시에 社會發展을 위해 寄與할 수 있는 有能한 社會構成員을 養成하는데 主目的을 두어야 한다. 또한, 高度 産業社會에로의 急激한 社會變化에 對應하고 發展과 福祉社會 建設이라는 社會的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서 國民的 基本能力과 態度를 涵養하는 데 重點을 두어야 한다. 말하자면, 學習方法을

學習시키고 判斷 및 決定能力, 問題解決力, 創意力, 探究力 그리고 變化를 主導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국민공동체 의식, 반공안보 의식,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준법적 생활 태도 등을 涵養할 수 있는 內容을 主內容으로 해야 한다.

中學校 時期의 身體的 領域에서는 급격한 신체 변화를 理解·적응하고 학생 각자가 자신의 身體的 特徵을 受容하게 하며 健康增進과 維持에 필요한 知識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情意的 領域에 있어서는, 各者의 性役割을 學習·遂行하게 하고 긍정적인 自我概念을 확립하고 원만한 人間關係를 形成하도록 한다. 또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基本的 道德性과 價値觀을 확립시키고 自律性을 涵養시키며 審美的 鑑賞能力을 기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知的 領域에서는 基礎學習技能을 획득하고 各者에게 적절한 學習樣式(및 方法)을 習得시키며 學習한 知識을 應用할 수 있으며 경험을 확대하고 探究·開拓할 수 있는 能力과 社會變化에 대처하는 能力을 涵養시키는데 主力해야 한다.

中學校 教育의 課程上 강조해야 할 점으로는,

(1) 集中的인 身體活動을 금하고 過度한 競爭이나 男女間의 경쟁을 止揚하며 신체활동을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個別化하고 多樣한 活動機會를 부여하도록 한다.

(2) 문제해결 및 自律學習의 기회를 주고 學習課題를 個別化하며 學業成就競爭을 삼가하여 成功感, 成就感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

(3) 小集團活動을 권장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4)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결정이나 思考가 가치롭다는 점을 認識시키고 自身の 見解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他人의 見解를 존경할 줄 알게 한다 등이다.

2) 編制 및 運營指針

중학교 教科編制에서는 健全한 價値觀과 共同體 意識의 涵養, 學習基本能力의 獲得, 健全한 身體發達과 情緒의 涵養, 個人的 進路探索 등이 이루어지는데 寄與할 수 있는 內容의 教科(目)를 주로 해야 한다. 학생의 學習負擔을 輕減하고 餘暇活動을 強化하기 위해서 履修教科數와 時間數를 縮小시켜야 하며 學習內容의 重複을 避하기 위해서 細分化된 教科를 統合해야 한다. 한편, 教育課程을 一元化하기 위해서 高等公民學校 및 勤勞青少年을 위한 特別學級과 產業體附設 中學校의 教育課程을 統合해야 한다. 또한 교과에 대한 時間配當에 있어서는 教授·學習의 效率化를 期하기 위해서 教科當 週間 時間數를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教科는 學習의 繼續性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3년간에 걸쳐 계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국민학교와 고등학교와의 連繫를 고려하여 시간을 配當해야 한다. 말하자면 教育課程 運營計劃을 樹立하고 教科學習 指導活動을 전개하며 학습결과를 評價해 가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陳述되어야만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中心部門인 教科活動의 正常化 및 效率化를 期하기 위해서는 教科의 指導上 留意點을 細分化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이 能率的이며 效果의으로 教授活動을 전개할 수 있도록 實用的이고 구체적으로 提示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運營計劃樹立, 學習指導, 學習評價, 기타 教育課程 運營에 관련된 事項들로 細分化하여 제시하고, 學生의 心身發達과 地域社會의 實情 및 學校의 特殊한 教育與件 등을 重視하여 應用할 수 있는 指針이 되도록 해야 한다. ———□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 改編方向

陳 勸 長
(本院 主任研究員)

1. 高等學校 教育의 特性和 機能

教育法 第 104條를 보면,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教育의 基礎 위에 高等 普通教育과 專門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하여 高等學校가 高等 普通教育機關인 동시에 專門教育機關임을 明示하고 있다. 따라서, 高等學校의 特性和 機能은 이 두가지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첫째, 高等學校 教育은 國民으로서의 一般의 教養을 높이는 일을 맡고 있다. 高等學校 教育人口는 해마다 늘어나, 1980년에 中學校 卒業生 중 82.6%가 進學하였으며 1991년에는 91.5%가 進學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高等學校 教育은 이미 中堅 國民으로서의 教養教育이 아니라 萬人을 위한 教育, 國民으로서 받아야 할 普通 教育이라 할 수 있다.

둘째, 高等學校 教育은 卒業後 社會 成員의 一員으로서 生活하는 데 必要한 專門 知識과 技術을 習得시키는 일을 맡고 있다. 우리는 福祉 社會의 具現을 理想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國力伸張에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自然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實情으로는 高級 人力의 活用을 통한 經濟發展, 즉 技術集約의 경제 발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高等學校 教育의 質的 向上을 위한 노력과 함께 專門人의 養成을 위한 저변 人力의 供給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高等學校 教育은 大學에서의 修學을 위한 準備教育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學問研究에 必要한 基礎的인 能力과 適性 및 素質의 探索 確認은 장차의 進路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要素가 된다. 高等學校 教育에서는 이러한 探索的 機能이 특히 強調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高等學校는 普通教育이나 專門教育機關으로서 終局學校이지만 大學 進學者에게는 中間學校라 할 수 있다. 高等學校를 人文系, 實業系, 綜合 學校로 나누고 있는 現實情에서는, 人文系 學校는 中間學校, 實業系 學校는 終局學校, 綜合 學校는 中間學校와 終局學校의 二重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人文系 學校도 大學 進學者에게는 中間學校이지만, 就業者에게는 終局學校의 教育機能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을 人文課程, 自然課程 외 職業課程을 運營할 수 있도록 構成하고 있다.

2. 現行 教育課程 및 그 運營上의 問題點

1) 目 標

現行 教育課程은 高等學校 教育의 特性和 機能 및 國家·社會的 要求와 學生의 發達 水準을 考慮하여 高等學校 教育에서 特別히 強調하여야 할 目標가 具體的으로 提示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高等學校 各科 教育課程 및 그 運營이 의지하고 指向할 方向이 明確하지를 못하다.

2) 教科 編制와 內容

(1) 課程 및 教科(目)選擇

現行 教育課程에는 人文課程, 自然課程, 職業課程이 設置되어 있으며, 學生들이 그 學年에 進級하면서 願하는 課程을 選擇하고 그 課程에 賦與된 教科目을 選擇하여 所定の 單位를 履修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정 선택과 교과목 선택은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 스스로 課程과 教科目을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大部分의 경우, 課程은 學生이 선택하되 課程別 選擇 教科는 教育課程 運營者, 즉 學校가 決定하고 있다. 심지어는, 학교측에서 과정 선택과 과정별 선택과목을 모두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 學生들은 實質的으로 課程選擇은 教科書를 注文할 때인 1學年 2學期 中間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과정 선택이 大學進學 및 進路 選擇과 直結되는 重要한 課業이라는 점을 제대로 認識하지 못하는 점과 學生이 일단 과정을 선택한 후에는 中途에 과정을 變更하고자 해도 容易하게 바꿀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

希望 學生의 不足, 施設 不足, 關聯 科目 專攻 教師의 不足 등으로 職業課程을 運營하지 않는 學校도 있으며, 教科目 선택시에 特定 科目에 대한 希望 學生이 적은 경우에 다른 教科를 권하거나 인접 분야 담당 교사가 분담하여 운영 하는 예도 있다.

教科目 선택이 教育課程 運營者에 의해 決定되더라도 學生의 關心과 要求만 充分히 反映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 理由가 教科教室制가 아닌 學級教室制, 教師數의 不足, 授業 時間數, 大入豫備考査에서의 點數取得 容易度 등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2) 單位制 및 履修科目

現行 教育課程에는 單位制를 中心으로 學年制를 併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學年制 中心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單位制는 授業量을 나타내는 것으로 國民學校나 中學校의 個人別 選擇科目이 거의 없는 現行 教育課程에서는 大學의 學點制에 比較할 수 있는 單位制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學生의 卒業에 必要한 204~222 單位數는 學生들에게 많은 편이므로 縮小시킬 必要가 있다. 또, 學生이 1年間 또는 卒業時까지 履修해야 할 教科目數도 너무 많은 편이어서 學生들에게 負擔이 되고 있다.

(3) 教科 內容

各科 教育課程 內容을 보면, 教科에 多少 차이는 있지만 各 教科의 學問的 體系에 執着하여 複雜한 現代生活에 必要한 問題解決力 및 創意力이나 未來 社會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의 伸張은 소홀히 하고 百科辭典式的 많은 知識의 注入을 强要하는 경우가 있다.

人文 高等學校에 매학년 12單位로 못 막아 놓은 特別活動의 운영실태를 보면, 많은 경우에 部署 組織이 活動의 진부라고 할 수 있다. 部署만 조직해놓고 實際로는 活動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며 처치 困難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또 實際運營을 한대해도

① 學校施設 및 與件의 不備,

② 教師의 業務負擔過重,

③ 教師 및 學生의 認識不足,

④ 大入 爲主의 학교운영,

⑤ 活動 目標 및 指針의 模糊,

⑥ 多樣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全校生이 떠들썩하게 시간만 낭비할 뿐, 個人의 趣味나 特技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評價의 問題에 있어서는, 評價의 方法과 管理 機構 문제도 重要하지만 現行의 單位數 評價制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한다.

이는 單位數가 적은 教科를 輕視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各 教科 100점 만점제, 단위수 비례 만점제와 각 교과 100점 만점제의 併用, 單位數 비례 만점제의 의도는 살리되 총점보다는 各 教科의 成績을 重複하는 方法 등을 考慮해 볼 必要가 있다.

3) 運營指針

現行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運營指針은 地域의 特殊性과 學校의 實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實際 教育課程 운영과 교사의 학습지도에 具體的이며 充分한 시사를 주지 못하고 있다.

3. 教育課程 改善의 方向

1) 目標

國家·社會의 要求 및 學生의 要求와 發達段階를 고려하여 高等學校의 特性과 機能에 맞는 高等學校 固有的 目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우리 나라 未來 社會에 副應하는 人間像을 기를 수 있는 內容이 充分히 反映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敎科教育에서의 學習 經驗의 選定과 指導에 充分한 示唆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上下級 學校와의 相互 關聯性이 維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學校級間的 位階性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2) 敎科 編制와 內容

現行 教育課程의 人文·自然·職業課程의 分類를 止揚하고 보다 多樣한 敎科目 및 單位 선택 方案을 講究하여 選擇의 機會를 擴大하고 融通性을 賦與함으로써 學校社會의 自率性을 增進하고 教育 課程 運營의 效率化를 기하며 學生들의 선택 및 意思決定 能力을 伸張시킬 수 있다.

現在의 履修 單位數를 180~200 單位 정도로 縮少할 것과 敎科目의 統合·調整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適當 授業時間 및 學習效果面에서 가장 적절한 學習時間에 대한 研究와 敎科 統合 可能性 및 그 적절한 方案에 關한 多角의 인 探索이 必要하다.

學校教育은 대부분이 敎科教育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學校教育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各 敎科의 內容이 타당하며 학습자의 發達水準에 맞게 構成되어야 한다. 高等學校에서 健全한 身體發達과 情緒 涵養, 學習 能力의 開發 및 職業準備, 個人의 潜在力 開發과 여가 選용, 問題 解決力 및 創意力, 未

來 社會에의 대화능력의 伸張에 力點을 두고, 教育學者와 敎科 專門家의 진지한 協力과 共同 作業에 의하여 高等學校의 教育課程 內容을 選定 組織하도록 한다. 그리고, 國民共同體 意識, 民主主義에 대한 確信과 信念, 民族文化에 대한 긍지와 文化 創造 意慾, 正直하고 誠實한 生活 態度, 社會活動을 營爲하는 데 필요한 諸 社會 規範을 준수하는 習慣의 형성과 價値觀의 習得 등을 이룰 수 있는 教育課程 內容을 選定 組織 하도록 한다.

評價 管理方法에서는 學校의 自律性을 強調하여야 하며, 評價 內容은 知的 能力面의 學業成就 뿐만 아니라 行動이나 態度를 同時에 評價할 수 있도록 教育課程이 構成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의 單位數 比例 滿點制는 점차 改善되어야 하며 單位數가 적은 敎科를 輕視함으로써 全人 教育에 支障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特別活動 運營의 效率化를 위하여, 多樣한 特別活動 프로그램의 開發, 學年 및 領域別 目標와 活動指針의 具體的 提示, 評價基準 및 方法의 開發 등 教育課程 次元에서의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4) 運營指針

現行 高等學校 教育課程에서는, 總論의 運營 指針과 各 敎科의 指導上의 留意點이 실제 교육 과정 운영과 敎科의 學習指導에 具體的인 示唆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새 教育課程에서는 이를 보다 細分하여 總論部分의 運營 指針에서는 教育課程의 全般的인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1) 計劃 作成 (2) 學習指導 (3) 學習評價 (4) 其他事項으로 나누어 提示하고, 各 敎科의 指導上의 留意點에서는 (1) 學習 指導 (2) 學習評價로 나누어 學校 現場 教師들이 教授活動을 하는 데 必要한 事項들은 具體的으로 示唆해 주어야 하겠다. —————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改編方向

郭 相 萬

(本院 責任研究員)

1. 現行 教育課程의 運營 實態 및 問題點

실업계 고등학교의 教育課程은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의 教育課程과 통합된 형식으로 1955년에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여 오던 것을 1963년에 개정하여 別冊으로 분리 공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1971년에 다시 한 번 대폭 개편하고 1976년과 1977년에 각각 소폭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系別·學校別로 適用 運營하고 있어 그동안 實業教育의 發展向上과, 實業教育을 본연의 軌道에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教育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運營實態와 관련지어 가며 이 教育課程의 法令上의 問題點과 教育目標, 教科編制, 專門科目의 精選·縮小統合 問題, 運營上의 問題等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法令上의 問題點은, 첫째로 普通科目의 教育課程을 各各 別도로 制定해 놓음으로써 高等學校의 教育을 完全히 異質的인 것으로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教科를 같은 教科書(國, 英, 數는 人文高와 別途 教科書)로 教授함으로써 教育課程을 따로 制定한 意義를 찾아볼 수 없게 하고 있다.

教育課程 自體를 別途 制定해 놓고 教科書를 같은 것을 쓰게 하는 데에 矛盾이 있으며, 教科書가 같은 바에야 구태여 教育課程의 指導內容을 달리해 놓을 필요는 없다.

高等學校의 教育에서는 教育法施行令 第111條에 明示된 바와 같이 普通教育을 主로하는 普通科와 專門教育을 主로하는 여러 가지 課程(農, 工, 商, 水産, 家政, 看護, 藝術, 體育, 交通, 科學, 外國語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人文系 高等學校 教育課程과 實業系 高等學校 教育課程으로 二大別하는 자체에 矛盾이 있으며, 이것은 마땅히 人文系 또는 普通課程對 專門課程으로 區別되어야 한다.

實業系, 藝術系, 體育系, 其他系 등에 대한 普通科目 教育課程을 일일이 따로 制定하고 이에 대한 教科書도 따로 편찬하는 것은 矛盾된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普通科目의 共通履修部分을 最大公約으로 訂定 편제하여 어느 系나를 가릴 것 없이 必須로 이수하게 하는 부분과 選擇으로 이수하게 하는 一定限度의 單位編制를 두어 高校水準으로서의 均衡을 도모해야 한다.

이것은 教育內容에서 뿐만 아니라 教科書行政이나 入試行政 등의 潛亂을 피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現行課程이 法令上으로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問題點의 하나는 普通科目對 專門科目의 履修比率이라 하겠다.

이 比率를 文章으로 나타낸 部分은 教育課程令의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3년 동안에 이수해야 할 총 이수 단위 204~222 중 농업계와 상업계의 68~102, 공업계의 68~90, 수산·해운계의 68~82 단위는 各各 50% 이하의 普通科目 履修比率를 표시하는 것이며, 농업 및

상업계의 102~154, 공업계의 114~154, 수산·해운계의 122~154 단위로 된 專門科目 履修表示은 50 또는 60% 이상의 專門科目 履修를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教育法 第 156條에는 30% 이상의 實業을 課하는 學校에 實業學校라는 名稱을 冠할 수 있게 하고, 大統領令으로 된 시범 실고 육성법에는 現場實習을 포함한 專攻課程을 적어도 100분의 70 이상 課해야 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文教法令 자체에서 各各 30%, 50%, 70% 등으로 最低限線을 다르게 規程하고 있어 自體矛盾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線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第 156條의 '30% 이상의 實業'이라는 句節은 '30% 이상의 專門科目'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다.

實業學校는 그것이 종극적 教育機關이라 할지라도, 技能 또는 中堅技術者의 養成所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學校이고 全人教育의 場이다. 우리가 集中的으로 어떤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技能을 연마시켜 技能士가 되게 하는 養成教育과, 科學이나 語學 등 實業의 基礎學力 部分이나 藝能 등의 情緒教育까지도 充實하게 하는 學校教育과를 比較할 때, 卒業後의 轉移價에서나 全人教育面에서나 어느 누구도 前者의 경우만이 바람직한 實業教育方式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것은 수많은 工高卒業者, 一般企業體의 幹部, 一線學校의 敎職者들의 意見에서도 엿볼 수 있는 일이며, 앞으로의 중요한 研究課題의 하나이다.

現行 實高教育은 法令上的 問題點 뿐만 아니라 施行上的 問題點도 내포하고 있다. 敎科書 行政만 보더라도 從前에는 모든 敎科書中 7種을 除外하고는 人文系 高校와 別途의 것을 편찬 사용하게 하였다가 현재는 3種(國語, 英語, 數學)만을 別途로 편찬 사용하게 하고 여타의 敎科書는 全部 人文系와 같은 것을 쓰게 하고 있다.

教育課程이 人文系와는 다르게 따로 制定되어 있고, 單位數가 人文系와 다르다면 모든 敎科書를 별도로 편찬하여 사용하든지 아니면 同一 敎科書를 쓰게 하든지 분명한 決定이 있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問題에 관한 규정은 아무곳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教育法施行令 第 185條 '敎科書의 選定' 또는 敎科用 圖書에 관한 규정 등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慣習의으로 矛盾되게 施行하고 있다.

이 밖에도 實高 教育課程令은 學校教育 目標表示, 學科設置, 專門科目의 細分化, 學校間·學科間의 同一科目 別途重復設置, 專門必須와 專門選擇의 이수단위 표시 방법 등 여러 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問題點들을 教育課程令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教育目標

教育法 第 1~3條 등에는 教育의 基本目的 내지 方針이, 104~105條에는 다시 高等學校 教育의 目的과 目標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별도로 各級學校 教育課程에는 다시 해당 학교의 教育目標가 教育法에 표시된 것과는 아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實高의 경우 教育課程令을 보면 앞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전체 實業系 高校 教育目標를 제시하고 農·工·商·水產 등 學校別 教育目標와 學科別 教育目標가 다시 記述되고 있다.

學校教育目標를 이와 같이 法令에 의하여 中央官署에서 2重3重으로 표시하는 것은 혼돈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여러 가지 점에서 모순이 있다.

原則의으로 中央에서는 어디인가 한 곳에만 제시를 하고 이것을 一線學校에서 자기 學校에 알맞게 재구성하고 부연해서 學校教育目標를 구체화하면 되는 것이지 中間段階에서 2重3重 거듭 表現을 달리해 가며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外國의 경우를 보면 法令에만 표시를 하고 教育課程이나 敎授要目類에는 敎科目的 지도 목표 정도만 표시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런 觀點에서 보면 高等學校 教育課程이 한 책으로 통합되는 경우, 실업계 고등 학교의 교육 목표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으며, 다만 系別 學校의 목표 정도만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教科編制 및 單位配當에 대한 檢討

1) 普通科目對 專門科目의 履修比率

現行教育課程의 問題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教育法이나 教育課程令, 大統領令 등에서 普通科目對 專門科目의 比率이 各各 專門科目 30%, 50%, 70% 以上 등으로 달리 규정되어 혼선을 빚고 教育的으로는 基礎學力의 不足으로 인한 産業社會에의 適應力 弱化, 情緒教育의 부실 등 허다한 問題點을 들어내고 있는데, 특히 實高卒業者와 實高在職敎員, 教育專門家들이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普通科目의 履修比率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現行課程은 農高와 商高가 50% 이상, 工高가 55% 이상, 水產高가 60% 이상의 專門科目을 課하게 되어 있고, 示範實高의 경우는 70% 이상을 課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教育法 第 156條 대로 30% 이상이면 一線의 裁量으로 적절히 伸縮할 수 있게 하고, 별도로 規制를 안 하는 것이 原則이겠으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 現行보다는 대폭 融通성을 주어 적어도 40~60%의 범위 안에서 상호 교차되게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普通科目의 編制表示

高等學校 課程은 어느 系나 한 表로서 표시하는 것이 좋다. 普通教育을 주로하는 普通科(人文系, 自然系)나 專門教育을 주로하는 여러 가지 系(實業, 藝術, 體育 등)를 共通必須部分은 같게 정하고, 系別로 選擇할 選擇普通科目만 따로 정하여 표시해 주는 것이 合理的이다.

이 表示方法을 例示하면 다음 表와 같다.

3) 普通科目 指導內容의 人文系 高校 指導內容과의 관계

普通科目의 指導內容을 人文系 高校의 것과 상이하게 조직한 것은 그것이 單位數의 차이 때문이라 하더라도 教育的인 面에서 여러 가지 問題點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高校의 專門課程이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는 점, 高校教育의 水準에 따른 均衡, 教科書 行政面, 入試管理面等 問題點이 있으며, 가능하면 共通履修科目들을 정선 추출하여 최저선에서 제시하고 系別로 다시 普通 選擇科目들을 選擇履修하게 하는 것이 合理的이고 順理的이라 할 수 있다.

4. 專門科目의 精選·縮小 統合 問題

學校間에서 중복된 同一教科目, 예컨대 農業系 農產製造科의 '식품 화학', 工業系 食品工業科의 '식품 화학' 水產系 水產加工科의 '식품 화학' 등이 각각 별도의 教育課程과 教科書가 있고 工業系의 '식품 위생'이나 水產系의 '식품 위생 家事實業系의 '식품 위생'이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며, 同一系 속에서 工業系의 경우 力學이나 材料 등의 分野가 너무나 여러 갈래로 분할되어 있어 工業力學, 또는 工業材料 등으로 정선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연구할 문제이다.

'測量'이나 '製圖'는 그 앞에 學科의 名稱을 붙여 지도해 오는 것이 慣例였으나 그것이 絕對的인 것은 못되며 基礎部分은 共通的인 單一本으로 써 可하다.

여하간 專門科目의 數가 系別을 가릴 것 없이 너무 많고, 細分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産業的으로 先進하고 있는 諸國의 高校 教育課程이나 우리나라의 實業系 專門大學 또는 實業大學의 教育課程과 對比해 보아도 自明하다.

專門科目을 정선하기 위하여는 高校 全體 또는 實高全體를 總괄적으로 검토 분석할 수 있는 眼目이 있어야 한다. 한 系 안에서도 工業系면 工業系 全體를 總괄적으로 검토 분석할 수 있는 研究委員會 같은 것을 構成하고 工業發展의 추세에 비추어 긴요한 教科中心으로 정선 통합하는 作業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學科別 專門科目의 編制에 있어서는 原則적으로 一線學校에 맞겨 學校나 地域社會의 實情에 맞는 教育課程 運營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中央에서 구체적인 내용 편제, 단위 배당까지 제시해 주는 관습에서 서서히 탈피하게 하기 위

<表>

普通科의 編制表示

교 과 목	현 행		개 정 안(예 시)			
	인문고	실업고	과 목 명	공 통	인문과정	전문과정(실업계)
국 민 윤 리	6			6		
국 어 1	20-24	14		14		4-8
국 어 2	8-10					
국 사	6	4		4		
정치 경제	4-6	2				
사회 문화	4-6	2-4		중1-2 과목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는 과목 4-6
세계사	4-6	2-6				
국토지리	4-6			4		
인문지리	4-6	2-6				
수학 1	14-18	8		14		4-14
수학 2	8-14	4-16				
물리	8-10			중1-2 과목		
화학	8-10					
생물	8-10	6-12		8		4-14
지구과학	8					
체육	14	6		6		
교련	12	12		12		
음악	4-6	2-4				2-4
미술	4-6	2-4				2-4
한문 1	4-6	2-4				2-4
한문 2	4-6					
영어 1	10-12	6-24				12-24
영어 2	10-12					
독일어						6-10
프랑스어						
중국어	10-12					
에스파냐어						
일본어						
기술						
농업	8	4-6				
공업	8-10					
상업						
수산업						
가정	8-10	6-10				
가사	8-10					
자유선택	0-6					
직업에 관한 교과						
	소 계			68		14-54
	계			82-122단위		

하여 學科別 必須·選擇別로 編制는 하되 單位數 표시는 하지 않고 3년간 총 이수 단위만을 표시 해 주는 方式으로 절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學科別 必須科目의 數나 單位合計를 現行

보다 줄이고, 選擇科目의 數나 單位合計를 증가 시키는 것이 合理的이라 하겠다. 이것은 學科 안에서 다시 細分된 專攻課程(U.T.T. system)을 밝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가 된다.

5. 教育課程 運營上의 留意點

現行課程은 實高 全體의 留意點과 農·工·商·水產別 留意點을 各各 따로 표시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高校 全體 教育課程 運營上의 留意點에 다 통합시켜 서두에 가져오는 것이 合理的이다.

系別 留意點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자기 系에 국한된 一部分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一線學校에서는 총론 부분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총론 부분에 몰아넣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普通科目은 科目마다 말미에 教科의 '지도상의 유의점'을 붙여 普通科에서 지도하는 경우와 專門課程의 學科에서 지도하는 경우의 유의점들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專門科目의 말미에는 굳이 번잡한 지도상의 유의점을 科目마다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教科目的 選擇과 卒業에 필요한 履修單位, 全日制와 定時制 運營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운영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국민학교 (1, 2, 3)학년의 교과용 도서 개편의 실험을 위하여 본원에서는 실험학교를 선정하였다. 이 실험은 81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1982년 2월 28일에 종료된다.

연락 주소는 강남구 서초동 232-2 은성빌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부> 전화 : 52·1122/52·1123/52·2085

국민학교 1, 2, 3, 학년 교과용 도서 개편 실험학교

시 도	연 수 실 험 학 교			자 율 시 험 학 교		
	학 교 명	학 교 수	학 생 수	학 교 명	학 교 수	학 생 수
서울	서울사대부국	9	540	윤중국교	11	676
	서울교대부국	12	720			
	대신국교	18	1,163			
부산	부산교대부국	9	540	초읍국교	21	1,306
	남일국교	23	1,417			
경기	인천교대부국	9	540	안성백성국교	18	1,173
	남양주양정국교	26	1,538			
강원	춘천교대부국	9	540	춘천교동국교	14	802
	강릉신영국교	6	288			
충북	청주교대부국	9	540	제천남천국교	21	1,242
	옥천이원국교	11	555			
충청	공주교대부국	9	493	대전대신국교	17	883
	전의국교	12	577			
경북	남구교대부국	9	540	상주옥산국교	11	534
	영일군기계국교	13	595			
경남	진주교대부국	9	540	양산하북국교	8	417
	거창월천국교	6	239			
전북	전주교대부국	9	540	부안백산국교	9	405
	김제중앙국교	23	1,358			
전남	광주교대부국	9	540	광주동산국교	32	1,856
	신양하의국교	9	363			
제주	제주교대부국	9	540	제주서귀포국교	21	1,328
	제주구좌중앙국교	6	245			
계	22개교	255	14,411	11개교	183	10,622

學校의 社會的 風土改善의 方向

金 炳 聲

(本院 責任研究員)

I. 目的과 背景

最近에 수행된 몇 가지 연구결과(Brookover et al., 1979; Rutter, et al., 1979)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조해 온 個別學習이나 個人處方 教授方法보다는 學校의 集團規範이나 社會的 體制에서 야기되는 學習風土의 特性이 學生의 學業成就에 미치는 중요성을 實證的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學校를 學習行爲가 誘發되는 하나의 社會的 單位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學生에게 기대되는 學究的 行爲가 社會化되어지는 하나의 社會的 體制를 中心으로 學校教育의 效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稿는 學校 社會의 社會的 體制나 風土要素와 學業成就와의 깊은 관련성을 實證的 研究를 中心으로 論議하고, 學校의 社會的 風土改善의 方向과 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교가 學業成就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見解가 있다. 그 하나가 학교는 學生의 學業成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견해로서, 이것은 가정이나 부모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學業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옴을 뜻한다. 다른 견해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學業성취의 차이를 造成하는 데 主役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먼저 첫번째 견해의 根據와 背景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社會경제적 수준과 學生의 學業성취와의 강한 相關性은 오래 전부터 믿어져 왔고, 또

이를 위한 경험적 자료도 많이 제시되었다(예, Coleman, et al., 1966; Jencks, et al., 1971; Hauser, Sewell,과 Alwin, 1976).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결핍된 학생(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을 교육하는데는 매우 悲觀的인 感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수많은 교육자들은 學生의 낮은 學業成就를 그들의 낮은 社會經濟的 水準에서 파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하여 왔고, 결과적으로 학교는 이러한 學生들의 生來的 가정환경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뒤따른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론은 계속되어져 가정환경의 결핍으로 인한 낮은 學業성취는 불행하고 救濟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했다. 미국에서 1964년 民權法의 制定에 따라 행해진 전국적 규모의 학교교육의 기회 균등에 관한 연구보고서(Coleman Report, 1966)에서도 지적하듯이, 學校教育의 效果는 거의 學生의 家庭背景과 學生집단의 構成要素의 特性에서 비롯되어지며, 다른 관련연구 자료에서도 제시하듯이, 빈민층이나 소수집단의 學生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 있어 教育의 非能率性은 일반적으로 認識되어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현상의 因果關係는 바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교육적 신념이나 태도에서 찾을 수도 있다. 즉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學生들이 빈약한 배경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低成就(low achievement)의 自己充足豫言을 가져, 그것이 직접·간접으로 학교의 教育體制나 授業實踐過程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학교 자체가 學業 성취의 차이를 조장한다는 견해는 사회경제적으로

빈약한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學業成就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빈민층이나 소수집단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Coleman의 보고서를 再分析하므로써 비롯되었다. 그 하나가 바로 Mayeske 등(1969)이 Coleman 연구를 중심으로 각 학교를 分析單位로 사용하였을 때 이 학교단위가 가정배경의 영향과는 별도로 학생의 成績差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물론 가정배경 요인도 學校集團變因과는 별도로 성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가정배경이 독립적으로 成績差에 준 효과는 학교집단변인과 가정 배경을 합친 효과보다는 매우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비슷한 시도로 Frederickson(1975, Edmonds, 1979에 引用된 것)도 Coleman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학교를 최종분석 단위로 하여 55개의 效果的인 학교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들 학교간의 사회 경제적 차이가 個別學校의 성적차를 나타내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學業成就水準에서의 差異는 가정배경보다는 學校自體內的 學習效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편의 연구결과는 학교 자체가 다른 배경 요인보다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충분한 자료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學校自體의 內的 構造와 學業成就의 關聯性을 밝히기 위하여 Weber(1971)는 빈민층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나타낸 네 개의 학교를 事例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學校特性을 발견하였다.

그 特性에는 ① 강한 指導性 ② 教師의 높은 期待(higher teacher expectation) ③ 좋은 學校 風土 ④ 讀解學習에 대한 강조, ⑤ 學生의 수업 진행에 관한 周到한 점검 등이 있었다.

학교가 성적차에 깊게 영향을 준다는 입장보다 包括的인 社會心理的 變因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Brookover와 Schneider(1975)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시간주 24개 국민학교를

그 성적 高下에 따라 住居地, 가정배경 그리고 人種에 의하여 작지어 검증한 결과 학교의 사회 심리적 風土—예컨대 교사의 期待, 學生의 風土 知覺 등이 學校間的 成績差의 變量을 크게 좌우한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Brookover와 Lejotte(1977)는 지난 4년간 성적이 增加되거나 減退된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Brookover의 先行 研究에서 제시한 학교풍토의 영향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 학생성적이 改善·增加하는 학교는 교사들이 모든 학생에 대하여 높은 기대와 누구나 잘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읽기와 산수에 우선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학생의 성적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학력평가에서 絕對基準評價에 치중하는, 즉 積極的인 風土가 지배적이었다. 또 이런 학교들은 교장들이 수업 지도에 원활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사들은 덜 만족된 상태에서 긴장감을 갖고 있는 한편, 減退 學校에서는 교사들이 자기 만족이나 安逸한 態度를 더 많이 가졌다.

II. 學校의 社會的 體制 및 學習風土

위에 제시한 몇 가지의 實證的 研究나 事例分析의 결과에 의하여 우리는 학업성취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은 그 학교의 社會的 體制¹⁾나 學習風土에서 비롯되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社會的 體制라 함은 共同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集合體(Collectivity)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떤 態度, 知覺, 信念, 動機, 期待 및 評價 등을 포함한다.

학교의 사회적 체제는 주로 학교의 學習風土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학습풍토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며 一次的인 관심사는 비교적 오래동안 학교 조직체에서 지속되어 온 規範, 態度, 信念 등을 반영하는 樣式과 實踐行爲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학교의

1) 社會的 體制의 概念과 構成要素에 대하여 朴容憲(서울 師大) 교수는 그의 저서, 學校社會(서울: 배영사, 1968, pp.39-66)에 파슨즈(T. Parsons), 호만스(G.C. Homans), 그리고 머튼(R.K. Merton) 등의 見解를 中心으로 자세히 論하고 있음.

사회적 체제는 각 학교의 학습 풍토에 의하여 規定지어지게 된다.

학교의 社會的 體制나 풍토요소²⁾는 크게 학교의 社會心理的인 (1) 知覺的 要素(態度, 信念, 期待, 役割 및 評價의 차원) (2) 學校의 制度的 類型(教育課程의 組織과 分化, 行財政的 支援形態, 學校內 社會的 關係構造 등) 그리고 (3) 行動的 實踐過程(個人 혹은 集團的으로 表出되는 意思疏通形式, 補償方法, 規制나 制約, 集團 活動形態 등)으로 集約될 수 있다.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에 수행된 관련연구에 의하면 낮은 학업성취를 이룬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에서의 對人的 期待나 학교의 制度的 實踐過程에서 낮은 수준의 학업성취가 피할 수 없고 당연하다고 보는 태도나 신념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다(Brookover, et al., 1979; Brookover, Schneider, 1975; Rutter, Maughan, Mortimore, 그리고 Ouston, 1979), 이런 학교들의 조직이나 풍토가 낮은 학업성취를 낳은 것은 마치 효과적인 학습풍토³⁾를 가진 학교가 높은 학업성취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현상으로 認知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社會的 風土를 이해하는데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는 社會的 關係의 場이다. 학생들은 意識的·無意識的으로 학교내의 집단적인 구성원과 相互作用하면서 갖가지의 행동유형을 배우게 된다. 이 상호작용관계는 매우 複合的인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態度, 知覺, 信念, 動機, 期待 그리고 評價 등을 자기가 소속한 社會的 體制的 集團員과 共有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그 사회체제를 규정하는 相互關係類型을 구축하며 社會心理學的으로 볼 때, 예컨대 役割 規範, 그리고 價值的 3가지로 집약된다(Katz와 Kahn, 1978). 여기서 役割은 어떤 사회체제에서 構成員들의 行動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교조직

체 내에서 교장, 교사, 보조교사 기타 직원 등의 각자 地位에 부여되는 役割-期待를 나타낸다. 規範은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의 지원에 따른 行動에 대한 集合的인 期待를 의미하며 그런 期待 동행에 逸脫되는 경우에 어떤 제재나 罰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규범은 학교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각 학교가 소유한 集團規範의 형태가 그 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이러한 규범의 형태가 한 社會的 體制에서 구성원의 信念體制로 表出되게 된다. 또 價値는 역할이나 규범보다 더 包括的인 의미를 가지며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의 社會的 風土要因을 상호 관련지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심리적 요소는 학교의 사회적 체제의 根幹을 이루어 그 구성원의 핵심을 이루는 학생, 교사, 행정가의 對人期待나 評價體制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바로 어떤 學校의 社會的 風土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學級內 相互作用 및 授業行爲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學校間의 학업성취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⁴⁾

Ⅲ. 學校의 社會的 體制改善의 可能性

學校의 社會的 體制的 改善을 위하여 여기서는 첫째로 그러한 體制變化를 個人보다 集團體制에 力點을 두고 접근하려 하였으며, 둘째로 體制變化의 力動性에 관련하여 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個別化 授業處方에 의한 學校學習模型은 低成就 學校의 수업 개선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여러 先行研究의 結果와 提言을 中心으로 그 改善可能한 方

2) Wilbur B. Brookover교수(michigan 州立大)는 학교의 社會的 體제나 風土의 개념을 學習環境(Learning environment)의 범주 속에서 해석하며 이 두 개념은 학교의 사회심리적 관련 구조 속에서 서로 代替할 수 있는 概念으로 定義하고 있음.

3) W.B. Brookover교수는 그의 최근 연구,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1977)의 學習風土를 學生-教師-校長의 풍토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학교의 사회적 풍토」에 관련된 측정 도구보다 매우 深層的으로 分化되고 발전된 것으로 모두 14가지 학습풍토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4) 姜相哲(忠南大)교수의 「學校의 社會的 風土와 學業成就」(교육학연구, 한국교육학회, 13권 2호, 1975, pp.5-11)에서 이에 대한 概念, 關聯變因, 그리고 관계연구를 잘 考察하고 있음.

向을 찾아 본다.

1. 個人 對 集團變化

이에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學生個人的 必要나 學習能力 또는 教師個人的 授業指導能力 등은 學生個人이 소속한 學校集團의 同時的인 변화없이는 별로 성공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Project LONGSTEP, 1976). 個人的 행동은 그가 소속한 集團과의 關係에 따라 의미를 갖게 된다. 즉 개인의 행동은 대부분 集團規範, 標準 그리고 制裁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한 집단행위의 기준을 逸脫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강요되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집단을 떠나야 한다. 학습의 授業狀態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태를 이룬다.

수업상황에서 학생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構成員으로서 행동하고 학습한다는 것이다. 個人的 행동이나 학습은 그가 속한 집단의 規範과 집단에서의 그의 位置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개인의 個體로서 特定한 행동의 변화에 抵抗하더라도 그가 속한 집단 전체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과거 社會心理學的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다(李相周, 1979, p. 28).

학교에서의 집단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原理는 집단에 無關한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 보다는 집단규범을 바꾸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즉 學生個人은 同僚集團의 가치에 예속되어진다. 동료들이 學究的 面에서 적대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학생은 學究的 面에서 잘 할 수 있도록 動機化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사 집단이 그 학교의 학생능력을 過小評價 하거나 좋은 결과를 예견하지 않는 風土에서 어느 한 교사가 그런 견해와는 獨立的인 태도나 신념을 갖기는 어렵다. 이 모두는 개인은 현재 소속된 社會的 體制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그 조직체 내에서 役割定義와 조직의 期待에 제약받게 된다. Williams(1978)는 學校革新과 變化에 관한 두 가지 주요 연구를 분석한 결과 學校單位가 변화의 焦點이 될을 지적하고 이를 중심으로 學校 教職員開發模型을 구축하였다. 教師個人 역시 組織體의 강력

한 壓力에 지배되어진다. 예컨대 교사가 초등학교 학습집단을 同質集團에서 異質集團으로 바꾸는 시도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는 年初(學期初)에 學生을 能力別로 점검하고 그들의 前學年 成績水準을 中心으로 구분하고 校長의 재가를 받게 된다. 만약 그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설득하여 그들도 異質集團 구성을 행하게 하지 않고서는 학교조직 구조에서 오는 저항감 때문에 어떤 實踐도 하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학습집단 구성의 변화는 그 學校地域群의 정책에 힘입어 그 지역 내의 여러 학교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어야 效果的으로 試行된다. 비록 한 교사 개인이 자기의 獨斷的인 教育實踐 方案을 가졌더라도 그것은 그가 소속한 집단규범의 변화까지 초래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教師個人的 제약점이나 役割行動은 教育課程, 校內的 教育實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地域學群의 教育政策에까지 연장되며, 個人的 次元보다는 學校全體의 社會的 體制에 초점을 둔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학교의 사회적 체제나 풍토를 개선함으로써 학습성취를 가져온다는 前提下에 이러한 체제 변화는 個人的으로 치중된 戰略보다는 규범적이고 組織的인 변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2. 變化의 力動性

흔히 변화에 대한 저항은 피할 수 없는 現象이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사례이다. 학교는 역동적인 조직이며 언제나 변화 가능한 制度이다. 예컨대 소련의 스푸트닉 時代(The Sputnik era)에 즈음하여 그 社會的 要求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내에 많은 변화가 초래된 것들을 수 있다. 社會的 힘은 社會的 單位에 변화를 낳게 한다. 변화에 관계된 이러한 주변 세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보다 計劃된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1) 組織內的 指導性

대부분의 경우 조직체 내의 구성원들은 役割遂行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조직체 내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 구성원들은 그들의 役割機能을 수행하는 데 自律性을 구사할 수 있다 학교의 경우도 효과적인 변화를 지향해 주는 指導性은

학교체제 자체 내에 있거나 中央의 教育行政 當局에 있다. 흔히 지도자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오히려 官僚的 體制에 묶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필요성은 過小評價되지 않는다. 새로 부임한 행정가들은 자신의 과업의 시작과 아울러 새로운 政策이나 變化를 받아들이는 데 매우 意欲的이다.

2) 변화의 또 다른 압력은 作業強化를 위한 專門的地位의 擴充에서 비롯 (Pincus, 1974).

학교 조직의 가장 중요한 부담은 專門的인 교사의 報酬이다. 그러므로 전문적 教師陣(特殊教育, 補充教育課程 등)의 확보는 관료적인 조직체에서 환영받는 일이다.

3) 體制의 변화를 지향하는 압력은 조직 체내에서 到來

많은 지역학교 당국에서는 革新的인 교사와 행정가들을 통하여 학교의 非形式的 組織構造(예컨대, 교사간의 協力體制, 共同計劃수립, 학급간의 交替指導 등)를 변화하려고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거나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革新은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學生中心의 변화는 학교의 成人(教職員)에 의한 것보다 행정당국의 位階秩序에 더 쉽게 反映되게 된다.

4) 變化指向의 주요 세력은 變革을 認定受容하는 組織體內的 同僚엘리트

이들에 의해 인정한 지도성은 形式的 혹은 非形式的 教育體制 속에서 變化의 過程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5) 변화의 壓力은 학교 밖에서 온다

이것은 다양한 양태로 제기된다. 부모의 자녀교육의 質에 관한 관심은 변화의 道具的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의 압력 역시 이에 못지 않는다. 매스 미디어를 통한 교육적 문제의 提起도 변화의 압력으로 등장한다. 어떤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의 학업성취가 改善 혹은 減退되었다면 이에 대처하여 그 효과를 재확인하기 위한 教職員의 集團의 노력이 擴充되어진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나 지방교육당국의 立法的인 조치도 학교변화의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의 사회 경제적 변동이 학교의 內的 體制變化에 자극을 주게 된다.

IV. 學校의 社會的 風土 改善의 戰略

여기서 변화는 반드시 학교의 社會的 체제를 규정짓는 態度, 信念, 行動의 유형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前提로 한다. 또 個人的 水準에서의 변화란 전체적 學校社會體制에 意味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변화란 전체 學校社會에 勿의미한 構造的인 變化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1. 教師의 自我效能感 開發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學究的 無力感(Sense of academic futility)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40% 이상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음이 밝혀졌다(Brookover, 1977). 이는 교사가 자신의 능력과 수업행위에 대하여 어느정도, 긍정적인 신념을 갖느냐하는 것이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에 밀접히 연관됨을 뜻한다. 교사의 소극적인 自己能力感 또는 自我期待感은 알게 모르게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생 자신도 자기들의 학업성취에 낮은 기대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학교내 教師風土, 協力體制, 그리고 업무분담 등에서 야기되는 여러 곤란성이 그 예가 된다. 한편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하여 긍정적 신념이나 높은 기대를 가지면, 수업활동을 통하여 이러한 기대나 신념이 학생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오게 된다(Peng, 1974). 學究的 無力感을 갖는 教師는 校長과의 논하여 동료 교사의 協助, 支援을 받아 問題解決의 方向을 찾을 수 있다. 自己效能感에 회의론을 가지는 教師는 教師集團을 中心으로 한 校內集團的인 專門性 開發 프로그램이나 研修課程을 통하여 교사의 自信感을 고무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제공받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 教師의 協力體制 確保

이것은 教師間의 集團的 協同體制를 뜻한다. 어느 일부 집단의 選好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전체 集團規範을 깨뜨리기 쉽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선택은 교사간의 協議的 過程

을 통하여 行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補強하기 위하여 교사의 專門性 開發 프로그램이나 자체 研修課程을 도입하여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상호협동적 집단체제를 만듦으로써 학습지도의 효과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구축하게 된다 (金炳聲, 1980).

3. 現在의 學習風土를 認識

학교의 수업풍토 개선을 위하여 우선 학교 내에 현재 과급되어 있는 학습에 대한 信念, 態度, 期待, 規範, 行動樣式을 파악해야 한다. 그 방법은 교사는 휴게실 등 敎職員의 담화가 惹起될 수 있는 장소에서 相互間에 나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日誌에 기록한다. 이 기록의 결과는 학습지도를 위한 교사의 신념을 이해하는 일장에서 點檢되고 討議되어야 한다. 직원간에 우연한 이야기나 농담, 웃음꺼리 등은 흔히 그들의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학습체제나 풍토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이른바 “風土 調整機能”(climate monitors)을 의미한다. 풍토조정기능은 低成就學校나, 낮은 經濟背景의 학교에서는 교사간에 不正의인 感情이나 信念을 誘發할 수도 있으므로 바른 태도로 받아 들여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4. 非形式的 授業調整者의 役割

누가 非形式的 授業調整者 혹은 指導者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 물론 형식적인 지도자는 교장이지만 학교의 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다른 교직원과 相互意思疏通과 협의적인 노력을 촉진해 주는 역할은 비형식적인 수업조정자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또한 學級間, 學年間의 진행과정을 調整, 統合, 그리고 點檢하는데 中介役割을 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學年主任, 研究主任, 科目主任 수준에서 또는 平敎師의 수준에서 상호 협동체제의 구성 役割을 할 수 있다.

5. 可視的인 成就感

학업성취는 또 다른 학업성취를 낳는다. 한 과정의 성취는 다음 단계의 성취를 위한 動機를 유발한다. 어떤 형태이든 학생과 교사에게 可視的인 성공은 다른 학습과제의 성취를 따라오게 하고 보다 後續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한다. 經驗的 연구에 의하면 학년의 고하를 막론하고 學究的 集團놀이⁵⁾ (academic group game, Slavin과 Devries, 1978)가 학생의 직접적 또는 可視的 成就感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異質集團을 중심으로 학습과제를 相互協同的으로 해결하게 하여 학급의 수업체제에 자의적으로 변화를 초래하게 한다. 이외에도 學級內의 수업풍토 개선을 위하여 集團的인 補償方法과 學習機會의 強化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학교의 사회적 체제 및 풍토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요소 그리고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學校의 社會的 體制에 관련된 집단적 풍토개선의 方向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경험적 연구가 교육현장에서 뒤따라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姜湘哲, 「學校의 社會的 風土와 學業成就」, 교육학 연구, 13卷 第2號, 서울: 한국교육학회, 1975, 5-11.
- 金炳聲, Teacher's instructional climate, mastery model strategy and student achievement at different grade levels, 非出版博士學位請求論文, Michigan State University, 1980.
-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 培英社, 1968, 39-66.
- 李相周, 「學級の 社會的 環境과 授業體制的 改善」, 教育社會學報, 3號, 1979, 28-37.
- Brookover, W.B., Abbot, R., Hall, R., Hathaway, D.V., Lezotte, L., Miller, S.K.,

5) W.B. Brookover와 그의 동료(1977)들은 「학교 풍토 개선」 연구의 하나로 10가지 학교 풍토 개선 모형에 관한 지침서를 구안하였는데 그 중에 이 학구적 집단놀이를 국어와 산수과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 金炳聲, 前掲書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집단의 학구적 풍토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 Passalacqua, J., & Tornatzky, L.G. School climate activities training: A program in 10 modules. East Lansing, Mich.: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8.
- Brookover, W., Beady, C., Flood, P., Schweitzer, J., & Wisenbaker, J. *School social systems and student achievement: Schools can make a differe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9.
- Brookover, W. B., & Schneider, J. Academic environments and elementary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1975, 9, 83-91.
- Brookover, W.B., & Lezotte, L.W. Changes in school characteristics coincident with changes in student achievement (Executive Summary). East Lansing, Mich.: College of Urban Development,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7.
- Coleman, J., Campbell, E., Hobson, C., Mcpartland, J., Mood, A., Weinfeld, F., & York, 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6.
- Edmonds, R.R. Some schools work and more can. *Social Policy*, 1979, 9, 28-32.
- Hauser, R.M., Sewell, W.H., & Alwin, D.F. High school effects on achievement. In W.H. Sewell, R.M. Hauser, & D.L. Featherman (Eds.),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Jencks, C., Smith, M., Acland, H., Bane, M., Cohen, D., Gintis, H., Heyns, B., & Michelson, S.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72.
- Katz, D., & Kahn, R.L.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2nd ed.). New York: Wiley, 1978.
- Mayeske, G.W., Wisler, C.E., Beaton, A.E., Jr., Weinfeld, F.O., Cohen, W.M., Okada, T., Proshok, J.M., & Tabler, K.A. A study of our nation's school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Office of Education, 1969.
- Peng, Samuel S. Expectations, instructional behavior and pupil achievemen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1974.
- Persell, C.H. *Education and inequality: The roots and results of stratification in America's schools*. New York: The Free Press, 1977.
- Pincus, J. Incentives for innovation in the public school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74, 44, 113-114.
- Project LONGSTEP. *Impact of educational innovation on student performance*. Palo Alto, Cal.: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1976.
- Rutter, M., Maughan, B., Mortimore, P., Ouston, J., Smith, A. *Fifteen thousand hours: Secondary schools and their effects on childre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Schiffer, J. A framework for staff development. *Teachers College Record*, 1978, 80, 4-22.
- Slavin, R.E., & Devies, D.L. Learning teams: Changing the reward and task structures of the classroom. In H. Walberg (Ed.),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effects: Evaluation and policy*. Berkeley, Cal.: McCutchan Publishing Corporation, 1978.
- Weber, G. Inner city children can be taught to read: Four successful schools (Occasional Paper No. 18). Washington, D. C.: Council for Basic Education, 1971.

國民學校 物理的 環境의 問題點*

李 正 福
(本院 主任研究員)

I. 緒 論

1.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目的은 國民學校의 物理的 環境들을 調査·分析하여 그 問題點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國民學校의 物理的 環境은 그 種類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여러 物理的 環境 중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주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教室, 階段, 給水와 그 施設 및 備品, 運動 및 놀이 施設, 便所의 5 가지를 調査·分析 대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環境에 대한 問題點은 그것을 어떤 側面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問題點을 보는 側面을 이런 環境을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생들의 健康·衛生, 安全, 生理的 欲求·充足, 便利性의 4가지로 하였다.

2. 研究의 制限點

다양한 器具들을 操作해서 測定하고, 複雜한 節次를 거쳐야 필요한 資料를 얻을 수 있는 本 研究는 時間, 人力, 費用의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가지고 있다.

1) 標集對象 學校의 制約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資料를 수집하려면 막

대한 費用이 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本 研究에서는 標集對象 學校를 8개교로 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의 資料는 우리 나라 國民學校의 物理的 環境을 代辯한다기 보다는 이런 環境의 학교가 있다는 事例研究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調査期間과 時間의 制約

학교의 物理的 環境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變因들에 관한 資料는 그것을 觀察하고 測定하는 時期와 時間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수집된 資料는 다른 期間이나 時間에 수집된 것과 다를 수 있다.

3) 調査對象의 制約

한 학교에 같은 種類의 物理的 環境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資料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수집된 資料는 같은 種類라도 다른 環境을 선택하여 調査했을 때와 다를 수 있다.

4) 資料 解釋上의 制約

어떤 物理的 環境이 問題가 있느냐 없느냐를 判斷하는 基準이 曖昧하거나 없는 것은 수집된 資料를 解釋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解釋을 하지 못한 것이 있다.

* 本稿는 1980년 본원 기초연구과제인 「國民學校의 物理的 環境 分析研究」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Ⅱ. 研究의 方法

1. 調査對象 學校

本 研究를 위한 調査對象 學校는 大都市 4개 교, 中都市 2개 교, 農村 2개 교로 모두 8개 교이다.

2. 資料蒐集 方法

수집 資料 중 일부는 本院과 用役契約을 맺은 延世大學校 附設「環境公害研究所」의 研究員들이 수집했고 나머지는 本院 研究員들이 觀察, 測定, 面談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3. 資料蒐集 節次

資料 수집은 2次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次는 1980년 8월—9월 사이에, 2次는 1980년 9월—10월 사이에 대상 학교에 출장하였다.

Ⅲ. 調査 結果

1. 教 室

1) 健康·衛生的 側面

(1) 空氣汚染 狀態

開窓時의 教室內 CO_2 濃度는 별로 問題가 없다. 그러나 閉窓時에는 怨限量인 1,000ppm보다 많은 CO_2 濃度인 學급이 16개 學급 중 6개 學급(37.5%)이다. 가장 심한 學급은 CO_2 濃도가 1,880ppm이나 되며, 中都市 學校의 學급은 모두 이 怨限量을 넘고 있다.

教室內的 먼지 수는 일반적으로 閉窓時보다 開窓時가 더 많다. 그러나 먼지 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은 閉窓時로서 cc當 291.7개이다.

落菌數의 許容値는 cc當 30개 이하인데 農村 學校는 대체로 이 許容値보다 많으며, cc當 72개가 검출된 學급도 있다.

(2) 清潔 狀態

清掃時의 쓰레기 成分 중에서 學生들의 健康·衛生과 관련이 많은 物質인 흙·먼지가 전체 쓰

레기 量의 25%가 되는 學급이 있으며, 이 學급은 空氣 중에 浮遊하는 먼지 수도 다른 學급보다 훨씬 많다.

清掃用 걸레에 있는 大腸菌數는 大都市 學校가 中都市나 農村 學校보다 약 3배 정도나 많다. 清掃後의 걸레 4cm²에서 발견된 가장 많은 大腸菌數는 150개이다.

(3) 照 度

가장 밝은 교실의 평균 照度는 1,470Lux인데 가장 어두운 교실의 그것은 136Lux이다. 또한 같은 교실에서 가장 밝은 곳의 照度는 3,240Lux, 가장 어두운 곳의 照度는 238Lux로서 그 차이가 3,000Lux 정도나 되는 學급이 있다.

칠판의 평균 照度는 가장 밝은 것이 1,078Lux, 가장 어두운 것이 76Lux인데 대부분의 교실의 평균 照度보다 어둡다.

(4) 騒 音

교실은 防音施設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開窓時와 閉窓時의 騒音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 騒音은 50dB(A) 이하가 되어야 學업에 放害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學급이 이보다 시끄러운 실정이며, 수업시간의 騒音이 72dB(A)나 되는 學급도 있다.

2) 便利性 側面

(1) 座席配置

학생당 교실 面積은 中都市 學校가 가장 좁다. 학생당 교실 面積으로 적절한 것은 1.4m²인데 大都市와 中都市 學校는 대부분이 1m² 미만이며 .75m² 밖에 안되는 學급도 있다. 이처럼 좁은 교실에서는 學生들이 활동하는데 便利하도록 座席配置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책상 사이의 통로 너비는 다니기에 不便할 정도로 좁고, 앞·뒤 책상의 간격도 좁아서 學生들이 일어나고 앉기에 不便하다. 또한 앞줄 양끝에 앉은 學生은 칠판의 글씨를 보기 위하여 고개를 53°나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책상·걸상

일반적으로 低學年 學生과 高學年 學生의 무릎까지의 길이의 차이는 低學年用 책상과 高學年用 책상의 발 놓는 곳까지의 높이의 차이보다 심하다. 어떤 學生의 무릎까지의 길이는 49cm

인데, 그가 사용하는 책상의 발 놓는 곳까지의 높이는 42cm로서 무릎까지의 길이가 7cm나 길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不便하게 앉을 수 밖에 없다.

高學年用 걸상 중에는 좌면까지의 높이가 그것을 사용하는 책상의 오금까지의 길이보다 낮은 것이 많다.

2. 階 段

1) 安全性 側面

한 區間의 階段에서는 한 칸의 폭과 높이가 일정해야 事故의 위험성이 적다. 그런데 한 區間의 階段에서 각 칸의 폭의 차이가 5cm, 높이의 차이가 7cm나 되는 階段이 있다.

2) 便利性 側面

건물 각 층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때는 3개의 階段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층에 490명의 학생이 있는데도 1개의 階段 밖에 없는 건물이 있다. 또한 階段 1區間의 길이로서 적절한 것은 240cm 이하인데 1區間의 階段 길이가 540cm가 되는 것도 있다.

3. 給水와 그 施設 및 備品

1) 生理的 欲求充足 側面

학급당 적정 給水栓數는 2개이다. 그러나 각 학교의 실태는 학급당 1개도 안된다. 더구나 학급당 2개 밖에 안되는 학교도 있다.

하루에 교실에 떠오르는 물의 量을 보면 대부분의 학급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量보다 적다. 어떤 학급은 하루에 6l 정도의 물을 떠오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먹고 싶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衛生的 側面

消毒된 물이라도 일단 물탱크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면 大腸菌이 검출된다. 그리고 農村 학교의 食水인 地下水는 大腸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汚染된 것 같다.

上水 자체는 깨끗하더라도 학급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주전자와 컵은 管理가 부실하여 大腸菌이 검출된다.

4. 運動 및 놀이 施設

1) 欲求充足 側面

運動 및 놀이 施設 중 학생들의 選好度가 높은 것은 미끄럼틀, 철봉, 정글짐이다. 이 중 미끄럼틀과 정글짐의 施設數는 이것들을 좋아하는 학생수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다.

2) 安全性 側面

철봉은 運動 및 놀이 施設 중 事故率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봉의 지름이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약간 크고, 철봉 주위에 모래받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5. 便 所

1) 生理的 欲求充足 側面

학급당 필요한 대변실 수는 1.5개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이 基準에 미달된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大都市 학교가 더욱 심하며, 학급당 대변실 수가 .5개 밖에 안되는 학교도 있다.

2) 安全性 側面

학생들이 학교의 便所를 이용하기 싫어하는 이유로는 都市 학교의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교의 便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水洗式과 다른 收去式인 것, 低學年 학생의 경우 대변기의 排泄口가 큰 것, 대변실 문을 잠그는 고리가 없는 것, 便所가 어두운 것 등을 들 수 있다.

대변기의 排泄口 크기는 學年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低學年用과 高學年用의 차이가 별로 없으며, 어떤 학교는 低學年用의 규격이 高學年用의 그것보다 더 크다. 대변실을 잠그는 고리를 보면, 農村 학교는 모두 이것이 없으며, 都市 학교는 없거나 고장난 것이 전체의 30% 정도가 된다. 대변실의 照度는 평균이 20Lux, 이고 가장 어두운 것이 5.3Lux인 학교도 있다. (62페이지에 계속)

特殊教育 現況分析研究*

姜 善 甫

(本院 研究員)

I. 研究의 必要性

20世紀에 들어서면서 人間尊重과 人間の 平等性을 중시하는 民主主義思想의 發達과 함께, 傳統의인 否定的 障礙者觀은 肯定的이며 積極的인 障礙者觀으로 변모하게 되어 장애자를 하나의 人格의 主體로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人間尊重思想과 人間平等思想이 民主的 教育理念으로 등장하면서 그 教育의 實現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教育의 領域도 擴張되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 무시되어 왔던 소수의 障礙者 疎外集團에게까지도 教育的 關心의 초점이 놓이게 된 것이다. 障礙의 有無에 관계없이 모든 兒童들에게 똑같이 教育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教育의 機會均等思想이 民主的 教育理念으로 부각된 것이다. 萬人을 위한 機會均等이란 民主主義 理念에 있어서 基本理念이다. 그러나 萬人을 위한 機會均等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부여함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즉 不平等에 대한 똑같은 처리만큼 不平等한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先進各國에서는 障礙者들을 可能한 한 最大限度로 社會에 統合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왔으며, 教育에서의 이러한 具現은 統合教育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 同時에 社會福祉政策과 相關하여 世界各國은 心身障礙者에 대한 教育的 期待와 理解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國際的인 關心事로 대두되게 되었다. 즉 1968年 精薄兒 國際聯盟의 精薄兒를 위한 權利宣言宣

布와 1975年 유엔에서 채택한 障礙者 權利宣言等 여러 國際的 團體에서 心身障礙者를 위해 積極的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유엔은 1981年을 “世界心身障礙者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로 定하여 完全한 參與(full participation)라는 主題下에 心身장애자에 대한 世界的인 關心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國際的인 움직임과도 相關하여 韓國의 特殊教育도 國家的인 關心 속에서 劃期的인 전환을 할 수 있는 機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特殊教育의 重要性和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特殊教育 現況은 여전히 그 실태파악조차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다. 따라서 心身障礙者에 대한 社會的 關心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教育機會의 擴大 및 進路指導等에 대한 教育政策의 配慮가 크게 要求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特殊教育 運營上의 問題점을 파악하기 위해 心身障礙者 및 特殊教育機關에 대한 全國的인 규모의 體系的인 實態調査分析이 要請되고 있다.

II. 研究目的 및 內容

本 研究의 目的은 學齡人口(滿6~17歲) 內의 心身障礙者數를 推定함과 동시에 就學實態를 把握하고, 特殊教育機關 및 教育活動에 관한 全般的인 實態를 把握하며, 特殊教育 施行上의 問題점 진단 및 特殊教育 振興을 위한 示唆點을 提示하고, 教育政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

* 本 小論은 1980년 本院 基礎研究 課題인 「特殊教育現況分析研究」 報告書의 主要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하는 데 있다.

本 研究에서 設定한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心身障礙者라 함은 視覺障礙者, 聽覺障礙者, 精神薄弱者, 그리고 肢體不自由者의 4種만을 指稱한다.

(1) 心身障礙者 學齡人口 現況: 全國의 心身障礙者 學齡人口(滿 6~17歲)를 障礙種別과 學校級別로 推算.

(2) 障礙種別 特殊教育 現況: 障礙者 教育機關 實態, 就學兒童 實態, 學生選拔 및 學習集團 組織, 教育課程 運營, 教科書 및 教材教具, 教師 實態.

(3) 特殊教育的 綜合的 實態: 特殊學級の 領域을 부분적으로 包含시키면서 障礙種別·學校級別로 分析한 結果를 綜合하여 全體的인 眼目에서 問題點 診斷.

Ⅲ. 研究方法 및 節次

本 研究의 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方法이 사용되었다.

(1) 文獻研究 및 關聯資料 蒐集·分析.

(2) 實態調査 實施: 全國의 56個 特殊學校를 중심으로 調査紙를 사용하여 3段階(豫備調査, 本調査, 再調査)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한편 類層別 群集無線標集에 의해서 추출된 特殊學校 教師 및 學父母에게는 各各 教師用 質問紙와 學父母用 質問紙가 發送·回收되었다. 國民學校內의 特殊學級에 관한 調査紙 및 質問紙는 資料處理의 不可로 部分的으로만 採擇되었다.

(3) 本 協議會 運營 및 인터뷰 調査.

Ⅳ.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에서는 첫째, 學齡期(滿 6~17歲) 心身障礙者 人口와 그 就學率을 파악함에 있어서 本院의 직접적인 實態調査에 의한 것이 아니라 障礙者 出現에 관한 國內外的 各種 先行研究 結果에 의한 理論率에 의거하여 推定하였기 때문에 精確한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없었으며 둘째, 障礙種別 및 程度別, 就學別 實態를 把握함에

있어 本院에서 各種 判別檢査道具를 開發하여 직접 調査한 것이 아니라 各 特殊學校 自體의 既存 判別結果에 全的으로 依存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誤差를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이 研究의 制限點으로 지적된다.

V. 研究結果

1. 心身障礙者의 學齡人口 實態

障礙者의 出現率은 時代나 場所, 그리고 調査者의 判別基準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지역일지라도 障礙者의 概念規定, 判別基準이나 方法, 그 道具에 따라 出現率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한 地域의 出現率이 다른 地域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는 어렵다. 즉 장애자의 出現率이 變化하는 定義(changing definitions), 變化하는 諸條件(changing conditions), 變化하는 判別基準(changing cut-off points)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kirk, 1972).

이 같이 心身障礙者에 대한 障礙種別 및 程度別에 따른 精確한 통계를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인 出現率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심신장애자의 실태조사를 各種方法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公認될 만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客觀的이고 信賴性있는 基礎資料의 제공이 시급하다.

本 研究에서는 國內外的 先行 研究資料를 分析하여 心身障礙者 出現率을 最低出現率(2.7%)과 最高出現率(5.523%)로 나누어 그 범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學齡人口(滿6~17歲內)에서의 障礙者 實態를 障礙種別 및 學校級別로 推定한 結果는 <表 1>과 같다.

教育分野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관련분야에 있어서 政策樹立을 위해 心身障礙者數에 대한 精確한 基礎資料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껏 全國의 心身障礙者를 파악할 수 있는 制度的 措處가 거의 없었다. 障礙者의 實態把握은 當국의 制度的 措處下에 持續的으로, 그리고 科學

〈表 1〉

學齡期(滿 6~17歲) 心身障礙者 推定

1980.10 현재 (단위: 명)

學校級別 障礙種別	國民學校過程 (6 - 11歲)	中學校過程 (12 - 14歲)	高等學校過程 (15 - 17歲)	計
視 覺 障 碍 者	5,450~15,642*	2,622~ 7,525	2,692~ 7,75	10,764~ 30,892
聽 覺 "	16,350~31,338	7,866~ 15,077	8,075~ 15,478	32,291~ 61,893
精 神 簿 弱 者	114,450~172,220	55,063~ 82,857	56,528~ 85,061	226,041~340,148
肢體不自由者	10,900~ 81,804	5,244~ 39,357	5,384~ 40,404	21,528~161,565
計	147,150~301,004	70,795~144,816	72,679~148,668	290,624~594,488

* 最低出現率適用 推定數~最高出現率適用推定數

註)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的 1980年 10月 現在 6~17歲 人口에 의거하여 算出함.

의인 方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心身障礙者數에 대한 精確한 基礎資料가 마련되어야 效率的인 教育政策이 樹立될 수 있는 것이다.

2. 特殊教育機關 實態

心身障礙者를 위한 全國의 特殊教育機關은 主障礙를 中心으로 보았을 때 56個校(視覺障礙者 學校: 13個校, 聽覺障礙者 學校: 18個校, 精神簿弱者 學校: 20個校, 肢體不自由者 學校: 5個校)이며, 2種의 障礙者들을 취학시키고 있는 학교를 해당 장애종별에 따라서 各各 1個校로 처리하면 64個校(視覺障礙者 學校: 13個校, 聽覺障礙者 學校: 20個校, 精神簿弱者 學校: 25個校, 肢體不自由者 學校: 6個校)이다. 이를 다시 設立別과 學校級別로 보면 다음의 〈表 2〉와 같다.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國의 特殊學校는 國立學校가 2個校 7個過程, 公立學校가 15個校 27

〈表 2〉 特殊學校의 設立別 및 學校級別 實態

區分	設立別	國立	公立	私立	計
		2	15	47	
學校數*					
學校級別 過程數	就學間 過程	1	0	0	102
	國民學校 過程	2	15	47	
	中學校 過程	2	8	17	
	高等學校 過程	2	4	4	
	小 計	7	27	68	

* 障礙種別學校의 경우 各各 한학교로 처리함.

個過程, 그리고 私立學校가 47個校 68個過程으로 모두 64個校 102個學校級別 過程이 있다. 따라서 全國 특수학교의 73%가 私立學校로서 特殊教育에 대한 國家의 無關心과 지나친 私立依存度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全國의 國民學校 特殊學級 설치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表 3〉과 같다.

〈表 3〉

全國 特殊學級 實態

1980.6 현재

구분	지역별											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설 치 학 교 수	4	2	48	40	24	34	33	50	37	50	6	328
특 수 학 급 수	4	2	48	40	24	34	33	52	60	50	6	353
특수 학급 입학아수	95	29	943	616	511	720	512	813	823	900	115	6077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國의 特殊學級數는 353個 學級이며 入級兒童數는 6,077名이다.

韓國의 특수교육이 70年代에 접어들면서 特殊學級을 중심으로 점차 公教育化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の 地域別 按配問題, 心身障礙者들의 教育機會의 擴大를 위한 特殊學校 및 特殊學

級の 增設問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 關連한 特殊教育의 公教育化 問題等 시급히 解決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就學兒童 實態

1980年 10月 現在, 全國의 特殊教育機關에 취

〈表 4〉

特殊學校 就學兒童의 障礙種別 및 程度別 實態

()안은 백분율 (단위:명)

障礙種別 學校	障礙程度別 學生數	單純障礙	重複障礙類型						計
			視覺	聽覺	精薄	肢體	言語	行動	
視覺障礙者 學校	盲 817	1070 (92.9)		11 (1.0)	33 (2.9)	12 (1.0)	2 (0.2)	24 (2.0)	1152 (100)
	弱視 335								
聽覺障礙者 學校	聾 2185	3329 (95.6)			117 (3.4)	25 (0.7)		11 (0.3)	3482 (100)
	重難聽 882								
	中等度難聽 354								
	輕難聽 61								
精神薄弱者 學校	教育可能 1392	1467 (45.7)	20 (0.6)	41 (1.3)		203 (6.3)	262 (8.2)	962 (30.0)	3208 (100)
	訓練可能 1279								
	要保護 284								
肢體不自由者 學校	單下肢麻痺 190	580 (60.1)			159 (165)		9 (1.0)	217 (22.5)	965 (100)
	兩下肢麻痺 294								
	單上肢麻痺 63								
	兩上肢麻痺 0								
	四肢麻痺 226								
	體幹變形 98								
	片麻痺 75								
計	8807	5574 (63.3)	20 (0.2)	52 (0.6)	309 (3.5)	240 (2.7)	273 (3.0)	1214 (13.7)	8807 (100)

학하고 있는 아동은 視覺障礙者 學校 1,152名(초 : 699명, 중 : 258, 고 : 195명), 聽覺障礙者 學校 3,482名(취학전 : 9명, 초 : 2,582명, 중 : 592명, 고 : 299명), 精神薄弱者 學校 3,208名(초 : 2,861명, 중 : 276명, 고 : 71명), 肢體不自由者 學校 965名(초 : 789명, 중 : 176명), 그리고 國民學校內 特殊學級 6,077名으로서 總 14,884名이다. 그리고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特殊學校 就學兒童의 대다수는 重症의 障礙現象을 보이고 있으며 就學兒童의 重複障礙率도 36.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教材教具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취학아동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각 학교급별로 심한 過齡現象을 보이고 있어서 早期教育의 제도적 조치와 더불어 過齡兒童에 대한 就學保障 그리고 사회 및 학부모에 대한 國家의 次元의 계몽이 요청된다. 즉 국민학교의 경우 7령기를 넘긴 過齡兒童이 전체의 53.1%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68.7%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62.5%인 實情이다. 이같은 특수학교의 취학

아 過齡現象은 心身障礙者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부족과 학부모의 비뚤어진 障礙者觀에 의한 장애자녀의 은폐 그리고 特殊教育에 대한 理解不足과 그 成果에 대한 회의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全國 特殊學校에 就學하고 있는 兒童들의 障礙種別 就學率은 〈表 5〉와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特殊教育機關(特殊學級除外)에서 特殊教育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취학아동은 學齡期(滿 6~17歲) 全體心身障礙兒童의 2% 內外로서 극히 저조한 취학율을 보이고 있다.

障礙의 早期發見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早期治療 및 早期教育도 중요하다. 이미 心身障礙者에 대한 早期教育의 重要性은 여러 先行研究에서 밝혀진 바 있다(Bloom, 1964; Weikart, 1967; Guskin & Spicker, 1968; Skeels, 1966; Skeels & Dye, 1939; Kirk, 1965; Kirk, 1958, Kirk, 1972). 따라서 心身障礙兒들을 위한 早期教育強化와 아울러 就學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心身障礙者 教育機關의 擴充과 함께 國家의 次元에서

〈表 5〉

障 碍 種 別 就 學 率

(단위 : %)

	學齡期(滿 6~17歲)내의 취학 아동에 의한 就學率*	全就學兒에 의한 就學率**
視 覺 障 碍	2.61 ~ 7.48	3.73 ~ 10.70
聽 覺 障 碍	5.06 ~ 9.69	5.36 ~ 10.78
精 神 薄 弱	0.80 ~ 1.20	0.94 ~ 1.42
肢 體 不 自 由	0.58 ~ 4.32	0.60 ~ 4.48
計	1.27 ~ 2.61	1.48 ~ 3.03

註) 最高出現率適用~最低出現率適用

* 各 學 校 級 別 每 年 年 齡 에 屬 하 는 취 학 兒 童 들 的 취 학 율

** 年 齡 에 關 係 沒 有 各 學 校 級 別 에 취 학 된 兒 童 들 的 취 학 율

의 꾸준한 사회제몽도 아울러 요청된다. 모든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韓國의 特殊教育에 있어서 장래의 課題는 特殊教育을 必要로 하는 兒童과 그것을 받고 있는 兒童數와의 갭을 줄여감으로써 就學率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4. 教育課程 運營

視覺障 碍者 學校, 聽覺障 碍者 學校, 그리고 精神薄弱者 學校를 위한 教育課程은 1979年에 制定·公布되었으며, 현재 이들 3種의 障 碍者 學校는 이에 준하여 教育과정을 運營하고 있다. 그러나 肢體不自由者 學校의 경우는 一般學校의 教育과정에 준하되 학교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運營하고 있으며, 一般學校의 特殊學級은 精神薄弱兒 教育課程(教育可能級對象)을 運營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特殊學校에서 제시되고 있는 教育目標은 공통적으로 신변처리 및 生活能力, 社會的適應力, 자립능력, 건강위생, 안전생활, 기초학력, 직업적 기능, 예절생활, 그리고 애국애족의 국가관 등이며, 障 碍種別에 따라 언어교육, 잠재 능력 개발, 그리고 克己와 誠實의 再活能力 등과 같은 다양한 德目들이 첨가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는 特殊學校의 教育領域이 一般學校의 教育領域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一般教育目標 외에 더 첨가되는 德目들 즉 特殊教育目標가 要講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교육목표는 궁극적으로 일반학교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知的 領域(intellectual areas,) 身體領域(physical areas) 그리고 適應領域(adjustment areas)에 있어서의 異狀을 보상·극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補完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特殊教育의 目標은 障 碍兒童의 特殊要求(special need)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障 碍種別과 程度에 따라서 個別化의 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各 特殊學校에서 제시하고 있는 教育과정 運營의 基本方針은 학교의 특성에 맞는 教育과정 運營, 개별화 학습을 통한 기초학력의 신장, 학습·생활훈련의 반복, 적성에 맞는 職業·技能教育의 強化, 그리고 각 개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治療教育의 실시 등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살리면서 특수교육의 目標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教育과정 運營에 있어서 學校教育目標과 現場運營과의 괴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교육목표 자체의 불명료성 등이 現場具現에 근본적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特殊教育이 다른 영역의 교육에 비하여 教育과정 運營面에서 학교수준에서의 自律性이 크게 要求되므로 學校와 教師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專門分野의 學者나 擔當行政家들의 전문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특히 이를 위한 人的·物的 支援體制가 강화되어야 한다.

特殊學校에서의 教科目은 視覺·聽覺·肢體不自由者 學校의 경우 국민학교 과정에서 9개 과목(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체육, 미술

실과, 도덕)이 설정되어 있으며 장애중별학교에 따라 보충과목이 더해지기도 한다. 예컨대 視覺障礙者學校의 경우 「9個 教科目 外에 보행, 감각훈련, 점자 등의 生活訓練과 特別活動이 첨가되며 聽覺障礙者學校의 경우는 언어지도, 청능훈련 등의 과목이 첨가되고 그리고 肢體不自由者學校의 경우는 양호·기능훈련 등의 과목이 첨가되어진다.

精神薄弱者學校의 教科目은 生活領域과 教科領域 그리고 特別活動의 3領域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生活領域에는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도덕이 포함되며, 教科領域에는 低學年의 경우 5教科(언어, 수량, 자연, 보건, 예능), 中學年의 경우 7教科(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高學年의 경우 8教科(中學年의 教科目에 실과가 첨가됨)가 포함된다.

이들 各種 特殊學校에서의 教科目에 대한 시간배당은 國民學校 1學年의 週當 23~25時間에서부터 6學年의 30~36時間까지 배당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療育活動 혹은 生活訓練 등의 시간이 1~6時間까지 배당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성격상 現場에서의 教育活動에 있어서는 이들 教科目과 時間配當이 教師의 재량에 의해 다소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自律性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特殊學校에 있어서의 教育課程 開發은 現場教師에 의해 學校水準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普及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教科書

視覺障礙兒用 初·中等學校 教科書는 一般學校用의 教科書를 文敎部가 주관하여 집역한 국정교과서이며, 職業指導를 위한 專門教科目에 한해서 담당교사가 必要한 教材를 제작하고 있다. 聽覺障礙兒用 教科書는 서울농학교가 제작한 교과서와 一般學校用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으며 精神薄弱兒用 教科書는 초등학교의 教育可能級 精神薄弱兒用이 大邱의 南陽學校를 통하여 제작·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精神薄弱兒의 경우 訓練可能級 兒童對象의 教科書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肢體不

自由兒用의 경우는 국민학교 교과목에 한하여 南陽學校에서 제작된 教科書를 사용하거나 일반 학교용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視覺障礙學校를 제외하고는 障礙程度에 맞게 개발되어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매우 적으며, 대부분 일반 학교용의 교과서를 教師의 재량에 의해 水準을 낮추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障礙種別 및 程度別에 알맞는 特殊學校用 教科書의 전문적인 開發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6. 教師實態

特殊學校에 在職하고 있는 특수교사는 모두 902명이다. 이들의 性別分布를 보면 男子가 56% 女子가 44%이며 年齡別로는 25~30歲에서 23.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36~40歲에서 18.2%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74.2%이며 學力別 水準에 있어서 4年制 大學 以上の 학력소지자는 초등학교 교사가 35.1%, 중등학교 교사가 81.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特殊教師의 量的 不足과 함께 資質問題가 지적되고 있으며, 療育教師 및 직업지도 교사 등의 전문교사가 매우 不足한 실정이다. 동시에 과도한 업무량과 現處遇水準에 대한 불만 등이 현직 교사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VI. 提 言

本 研究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改善點을 提言하고자 한다.

1. 特殊教育制度의 確立과 特殊教育機關의 設置

1) 特殊教育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特殊教育關係法 制度의 정비와 特殊教育 專擔機構의 設置 運營이 시급하다.

2) 特殊教育의 機會擴大를 위해 地域別 按配를 고려한 國公立 特殊學校를 확충하여야 하며

既存私學에 대해서는 財政의 支援等으로 既存教育施設을 充實化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現在 國民學校 過程에서만 설치되어있는 特殊學級을 中學校 過程에서도 설치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3) 障礙의 早期發見에 의한 早期治療 및 早期教育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早期發見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특수교육 대상자 판별을 위해 特殊專門機構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就學前 教育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의 具現을 위해 취학전과정의 義務化 및 無償化 方案이 단계적으로 檢討·實施되어야 한다.

2.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 教育課程 運營의 再檢討

1) 學校水準에서의 자율적인 教育課程 開發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각종 支援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

2) 統合教育의 세계적인 추세 및 그 교육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統合教育의 段階的 實施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障礙種別과 程度別에 맞도록 現行 教育課程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됨과 동시에 장애 정도별 및 個人差에 따른 能力別 多段階 教育課程의 검토 제정이 요청된다.

4) 職業指導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다양화와 함께 標準化된 職業技能 教育課程을 制定하여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5) 現行 教科書 內容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

청된다. 즉 교육내용이 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教科內容의 選定과 組織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改善이 시급하다.

3. 教科書 및 教材·教具의 改善

1) 現行 特殊學校用 教科書의 內容 및 體制의 전반적인 改善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綜合的인 研究·開發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障礙者에 대한 教育政策的·福祉政策的 次元에서 個人用 補裝具, 個人用 教材教具 그리고 學校用 教材教具 등에 대해서는 이를 法的·制度的으로 支援해 주어야 하며 특히 障礙者 教育用 施設·設備에 대해서는 最低水準에 대한 기준령을 강화하고 이들 장비구입에 대해서 면세 조치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特殊教師 養成制度的 전반적인 再檢討 및 特殊教師의 處遇改善

1) 교사의 資質涵養과 專門化를 위해 各 障礙種別로 資格證 種別을 具體化하여 教師를 양성함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言語治療師等과 같은 專門要員의 養成을 위한 體制의 확립이 시급하다.

2) 特殊教師를 위한 各種 研修機會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으로 定期的이며 持續的인 研修를 실시하여야 한다.

3) 最小限의 각종 手當支給과 人事上의 혜택 등을 통해 사기양양을 위한 特殊教師 優待策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

(55페이지에서)

3) 衛生的 側面

모든 便所가 收去式인데다가 換氣扇이 없고, 1개월에 1번 정도 消毒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고 대변실 안이 더럽다. 또한 대변실에 防虫網이 없는 학교도 있다.

IV. 提 言

(1) 교실 내에 人工 照明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便利하도록 적절한 水準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3) 학생들은 자기의 體格에 맞는 책상과 걸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衛生的 食水를 提供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야 한다.

(5) 학교의 便所는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不安感을 주지 않도록 改善되어야 한다. □

入試制度 比較研究*

朴 修 賢
(本院 研究員)

I. 緒

入學試驗制度는 크게 3가지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그 첫째는 學生選拔機能으로 入學試驗制度가 가지고 있는 第1次的 機能으로서 上級學校 進學에 보다 적절한 자를 가려내는 作業을 의미한다. 「적절한 자」를 規定하는 概念은 한 社會가 가지고 있는 歷史·文化 및 理念的 差異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適格者를 선발하는 方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둘째는, 教育的 機能이다. 入學試驗이란 下級學校 教育課程의 성공적 履修程度를 측정함으로써 上級學校 進學에 보다 적절한 學生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입학시험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운영되는가는 직접적으로 下級學校 教育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上級學校 進學機會가 進學需要에 비해 협소한 社會에서는 入學試驗에 대비한 進學準備教育이 불가피해짐으로써 입시제도의 이러한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세번째 기능은 社會的 機能이다. 教育制度가 발전함에 따라 教育期間 및 教育水準의 受惠程度가 곧 社會進出의 方向을 결정짓는 最大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教育을, 보다 水準 높은 教育機關에서 받고자 하는 要求가 증대되었으며, 教育履修期間 및 教育水準을 결정짓게 되는 入學試驗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入學試驗制度는 學父母를 비롯하여 社會一般이 教育에 대처하는 態度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같이 入試制度가 教育內·外的으로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本稿에서 主要國의 入試制度를 比較·分析함과 동시에 解放 이후의 우리나라 入試制度를 歷史的으로 考察하여 現行 入試制度의 問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入試制度 改善方向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

II. 主要國의 入試制度

1. 主要國의 入試制度 概括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改善方向 모색에 필요한 示唆點을 얻고자 外國의 入試제도를 概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美 國

大學의 設立類型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公립대학은 高校內申을 기초로, 사립대학은 高校內申 이외에 進學適性檢査와 學力檢査를 통하여, 극소수의 대학은 독자적인 入學試驗을 실시하여 學生을 선발한다. 각 대학은 高校內申의 內容으로서 이수과목·취득단위수·학교성적 등을 규정하거나 진학적성검사와 학력검사의 과목 및 성적을 규정하게 된다.

2) 日 本

國·公立大學과 私立大學의 學生 선발방법이 서로 상이하다. 국·공립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學生은 共通 第一次 學力試驗에 합격한 후

* 本稿는 1980년에 過熱課外 解消對策 研究의 일환으로 수행된 「入試制度 比較研究」 結果를 要約한 것이다.

각 대학별로 치루는 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학력시험은 고등학교의 학력 도달 정도를 평가하는 성격을 띠며, 이 결과는 입시에 반영될 수도 있다. 사립대학은 학력시험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入學試驗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3) 自由中國

“中學教育證書考試”라는 시험을 통하여 大學 入學銓衡이 이루어 진다. 이 시험은 중등학교 졸업 및 대학입학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는데, 이 결과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지망한 수개의 대학 중 성적에 해당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4) 泰 國

國·公立大學은 大學入學聯合試驗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들은 이 시험에 응시하면서 6개 대학 및 학과를 동시에 지망하게 되며 시험의 결과에 따라 합격된 학교를 통보받게 되면, 해당 학교에서 형식적인 면접과 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이 결정된다. 私立大學은 이상과 같은 國·公立大學의 學生選抜이 끝난 후 독자적인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5) 英 國

大學入學銓衡의 基本資料는 中等學校 卒業資格試驗(GCE)의 성적과 『中等學校의 內申이다. GCE는 大學入學資格試驗의 성격을 띠어 그 결과는 입학전형에 반영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GCE의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그러나 옥스포드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등은 GCE와 內申 이외에도 독자적인 入學試驗을 실시하여 學生을 선발하기도 한다.

6) 프 랑 스

大學入學銓衡은 전적으로 Baccalauréat에 의한 다. Baccalauréat는 中等學校 卒業資格試驗인 동시에 大學入學資格試驗의 성격을 갖는다. 이 시험은 종류에 따라 시험과목·내용·수준·시험기간이 다양하며 이에 內申點 및 面接이 점수화되어 포함된다.

각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응시생의 Bacc-

alauréat 수험과목을 규정하게 된다. Grandes écoles은 Baccalauréat의 성적 이외에 별도의 入學試驗을 실시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7) 西 獨

Abitur의 결과에 의해 입학전형이 이루어진다. 이 시험은 中等學校 修了 및 大學入學 資格試驗으로서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행하여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실습시험도 병행된다. 대학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Abitur 이외에도 適性檢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8) 스 웨 덴

高等學校를 졸업 후 大學에 進學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大學教育의 기회가 부여된다. 이 때 高校의 內申成績을 기초로 학생이 지망한 학교 또는 학과의 우선 순위에 따라 大學教育廳이 학생을 배정한다. 內申 이외에도 직장생활 경험도 점수로 가산되어 선발에 반영되는 등 학생의 필요에 따라 언제나 大學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9) 소 련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Attestat-Zrel-osti를 치루어야 한다. 이 시험은 완전중등학교의 졸업자격시험인 동시에 大學入學 資格試驗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시험은 대학의 입학자격만을 인정할 뿐 그 성적이 대학입학 사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자기 입학자격이 있는 해당 대학에 응시하여 독자적인 入學試驗을 치루어야 한다. 노동경력 및 군경력은 大學入學銓衡에 반영된다.

2. 主要國의 入試制度 改革動向

이상 살펴본 각국의 입시제도를 종합하여 그 개혁동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공통적으로 大學進學 機會擴大 및 均等化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平生教育體制를 지향하여 취업자와 만학자들에게 대학진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

려고 한다(스웨덴·소련).

세제, 대학생 선발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별도의 기구)에서 관장하는 資格考査 또는 學力考査를 통하여 실시된다. 英國의 GCE, 프랑스의 Baccalauréat, 독일의 Abitur 등은 資格考査이고, 美國의 SAT와 ACT는 學力考査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 또는 별도의 기구가 관장하는 시험 외에도 大學別 筆答考査를 별도로 부과하기도 한다(英國의 Oxford와 Cambridge, 프랑스의 Grandes ecéle). 그리고 英國의 GCE나 프랑스의 Baccalauréat 등은 자격고사는 자격기준을 等級化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네째, 國家管理試驗은 주로 교과별 필기시험이지만 실험·실습 등을 포함한 두루시험 성과도 점수화하여 대학입시에 반영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항 외에도 주관식 문항이 포함되어 출제 된다(BAC, Abitur).

다섯째, 시험관리는 개별대학에 의하기보다는 入試全擔機構를 설치하여 운영되며, 이 기구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評價道具 開發에 주력하고 있다.

III. 韓國의 入試制度

1. 入試制度의 變遷過程

1) 中等學校 入試制度

韓國의 中等學校 入試制度는 解放 이후 1969年度의 中學校 無試驗 抽籤配定, 1974年度 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이 실시되기까지 약 25년 동안 다음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변경 실시되어 왔다.

- (1) 學校管理制(1945—1950)
- (2) 國家聯合考査制(1951—1953)
- (3) 內申·筆答合算制(1954—1956)
- (4) 無試驗 銓衡制, 聯合出題制 並行(1957—1961)
- (5) 國家考査制(1962—1963)
- (6) 市·道別 共同出題(1964—1965)
- (7) 問題銀行式 共同出題, 單獨出題 並行(1966—1968)
- (8) 無試驗 抽籤配定制(1969—)

(9) 高等學校 聯合考査 및 抽籤配定制(1974—)

이상에서 분류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中等學校 入試制度는 크게 學校管理 單獨出題, 內申制, 國家聯合考査制, 問題銀行式 共同出題制의 4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特徵을 가진 다양한 入試方法이 실시되어 온 것은 각각의 入試制度가 施行될 때마다 教育內·外的으로 여러가지 폐단이 부각,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大別한 4가지 入試制度를 채택하면서 기대한 效果 및 초래된 結果를 入試制度를 評價할 수 있는 몇 가지 側面에서 比較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表> 中等學校 入試제도 비교

	학교관리	내신제	국가연합고시제	문제은행식	문제은행식		
	단독출제	내신제	국가연합고시제	문제은행식	문제은행식	공통출제	공통출제
	기대수준	기대수준	기대수준	기대수준	기대수준	기대수준	기대수준
선발의 공정성 확보	×	×	×	×	○	○	○
문항의 양호도 향상(학업성취예언타당도향상)	×	×	○	×	○	×	○
학교의 학생선발권 보장	○	○	○	○	×	×	×
하급학교 교육정상화	△	×	○	×	○	×	×
입시준비 부담감소	○	×	○	×	○	×	×

○ 만족 △ 중간 × 불만족

選拔의 類型을 入試管理 主體에 따라 크게 分類하면 入試를 各 學校가 個別的으로 管理하는 方法과 市·道 또는 國家에서 共同으로 管理하는 方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 中等學校 入試制度는 이러한 두가지 方法이 반복 실시되어 왔으며, 절충안으로서 이 두 가지 方法이 並用 실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入試管理 主體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入試制度 改善의 주요한 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은 入試의 公正性을 기하고자 하는 國家의 努力과 學生選拔의 自律性을 요구하는 學校側의 要求가 相衡되었기 때문이다.

入試의 가장 중요한 機能으로 지적되고 있는 適格者 選拔의 側面에서 보면 위의 4가지 入試制度 가운데 問題銀行式 共同出題가 適格者를 선발할 수 있도록 비교적 問項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提案된 制度 중 어느 制度도 下級學校 教育을 正常化시키지 못한 것으로 評價되었을 뿐만 아니라 學生들에게

入試準備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또다른 入試制度의 導入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2) 大學 入試制度

大學 入試制度는 中等學校 入試制度에 비해 比較的 變化가 적었다. 그러나 大學入試制度 역시 中等學校 入試制度和 유사한 方式으로 變遷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變遷過程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大學別 單獨試驗制(1945—1953)
- (2) 大學入學 國家聯合考查制(1954)
- (3) 大學別 無試驗(內申制), 單獨試驗 並行(1955—1961)
- (4) 大學入學國家資格考查制(1962—1963)
- (5) 大學別 單獨試驗制(1964—1968)
- (6) 大學入學豫備考查制(1969—)
- (7) 內申制

大學校의 入試改善은 中等學校 入試制度 改善에서와 마찬가지로 大學入學 適格者를 選拔하여 大學의 質의 水準을 向上시키는 한편 高等學校의 教育正常化를 達成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入試制度의 改善意圖와는 달리 施行上에는 많은 問題點들이 露呈되었다. 즉 大學入學을 징집보류 수단으로 利用하거나, 一部 私立大學의 募集定員 超過로 인한 大學의 質의 低下 현상과 결과적으로 高等失業者 量產으로 社會不安을 조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大學入試制度 改善은 定員超過 募集을 規制하고 國家人力需給 計劃에 부응하도록 大學生의 數를 조절하는 데 크게 力點을 두도록 國家考試制를 수 차례에 걸쳐 試圖하였다. 그러나 施行上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으로 인하여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는 바 國家考試制 實施에 따른 問題點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大學入學 國家聯合考查制(1954)
 - 權力層 子女의 다수 不合格으로 權力層 人士의 不滿惹起
- 大學入學 國家資格考查制(1962—1963)
 - 國家考查成績의 入試反映으로 大學의 自律性 侵害(1962.)
 - 科別査定으로 文教事務負擔 加重
 - 科別選拔로 優秀學生 脫落現象 惹起

- 未達學科 未達學校 誘發
- 大學間 隔差露出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內申制 또는 單獨出題에 의한 大學別 入試管理가 부활되었으나 大學別 入試管理는 定員을 超過募集하는 사태를 계속적으로 유발시켜 大學의 質的 低下를 가져옴으로써 大學에 대한 國家의 統制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問題點들은 1969년 大學入學 豫備考查制가 실시됨으로써 그 解決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評價되었는 바 大學入學 豫備考查制의 效果는 다음과 같다.

- (1) 高等教育 正常化 促進
- (2) 大學入學 適格者 選拔에 寄與
- (3) 評價의 客觀性 信賴性 保障
- (4) 教育의 質的 向上 圖謀

이와 같이 豫備考查의 寄與도가 높게 評價되고 이에 豫備考查의 成績이 入試에 反映됨에 따라 學生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各 大學에서는 大學別 本考查의 科目을 축소시키고(主로 3 科目)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試驗을 난해하게 出題함으로써, 高等學校 教育을 다시 왜곡시키고 치열한 入試準備教育을 조장하여 또 다시 入試制度 改善의 必要性이 대두하게 되었다.

2. 韓國 入試制度의 特徵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入試制度의 變遷過程에서 나타난 主要 特徵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韓國의 入試制度는 學校 單獨出題와 共同出題가 반복되어 실시되어 왔으며, 이는 주로 下級學校의 教育正常화와 試驗管理의 公正性 確保라는 측면에 그 變更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學校差가 계속적으로 深化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入試準備教育이 가열되어 왔으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해 入學試驗科目 및 出題範圍를 國家가 統制하여 왔다.

(3) 內申制를 實施하는 無試驗 銓衡은 下級學校 教育을 正常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높게 評價되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內申成績 管理 및 入試反映上의 不合理性이 社會問題化되어 기대했던 만큼 效果를 보기가 어려웠다.

(4) 面接과 身體檢査는 주로 授業에 支障을 주

는지의 有無를 判別하는 정도로 실시되었다.

(5) 學力檢査와 아울러 銓衡補助資料로서 適性檢査를 실시할 수 있음이 入試要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달되었으나 適格檢査가 銓衡資料로 사용된 예는 드물었다.

(6) 筆答試驗은 客觀式 選多型으로 출제됨으로써 단편적 知識의 暗記教育만을 조장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7) 實業系 高校 出身의 同系大學 進學時 特惠賦與는 산업진흥과 관련하여 專門技術人 養成이라는 側面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8) 中學校 無試驗 抽籤配定制, 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중전의 入試制度에서 야기되어 오던 여러가지 問題點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반면, 初·中等學校 學生의 學力低下 및 한 學級內 학생의 심한 水準差로 因한 學習指導 곤란과 大學入試 準備教育 가열 등 중전과 유사한 問題點을 노출시켜 왔다.

(9) 入試制度 改善을 위한 政策決定過程에서 入試制度가 지니고 있는 根本的인 취약점을 補完하기 보다는 施行上에 따르는 제한문제를 除去하기 위한 近視眼의 方向에서 政策決定이 이루어짐으로써 향구적인 教育政策이 樹立되지 못했다.

IV. 結 論

1. 基本方向

지금까지 比較·分析한 外國의 入試動向과 우리나라 入試制度의 歷史的 變遷過程을 개괄해 볼 때, 向後 우리나라의 入試制度는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下에서 修正·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1) 教育機會는 보다 더 擴大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教育機會의 均等化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大學入學은 一定水準 이상의 適格者에게만 資格을 부여함으로써 大學入學者의 質의 低下를 防止해야 한다.

(3) 大學入試制度의 改善은 高等學校 教育의 正常的 均衡的인 발전을 指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入試制度의 改善은 入試制度가 가지는 社會的 逆機能을 極小化시킬 수 있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教育의 持續성을 보장하는 平生教育體制의 構築을 支援할 수 있는 方向으로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改善方向

이상의 基本方向에 따라 現行 大學入學 試驗制度는 豫備考査의 資格考査化 및 高校內申反映의 擴大와 더불어 大學別로 學生選拔의 機能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基本방향 아래 우리나라 大學入試 制度改善 方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 大學入學 豫備考査制度는 資格考査로 性格을 轉換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轉換은 平生教育體制의 確立을 支援할 수 있으며, 大學入學을 위한 過熱競爭을 緩和할 수 있어서 教育의 正常的 運營이 可能해질 것이다. 그러나 入學資格의 有效期間을 設定해야 하고, 資格考査 成績을 下點數 등과 같이 等級化를 하여야 하고, 대학·전문대학, 지역별로 자격기준의 다양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격고사의 질을 高度化시킬 수 있는 方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高等學校 內申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내신반영 비율을 점진적으로 擴大해 나가야 하며, 고등학교 全學年의 成績을 反映함과 동시에 行動發達狀況·特別活動狀況 등의 反映을 研究·檢討하여야 하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학력평가 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現行 當落단을 決定하는 面接試驗制度를 탈피하여 教科筆答考査 이외에 大學別로 學生을 선발할 수 있는 機能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教育課程研究

教育課程研究部에서 遂行해야 할 주요 研究事業은 初·中·高等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 初·中·高等學校 教科用·圖書 研究·開發, 初·中學校 教育發展 事業, 教授·學習資料開發 및 教員研修의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事業의 重點的인 內容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初·中·高等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

우리 나라 現行 教育課程은 國民學校와 中學校 教育課程이 1973년에, 高等學校 教育課程이 1974年(人文高)과 1976年(實業高)에 公布되었다. 그 동안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國際關係 등 教育의 外的 상황과 教育哲學, 學問內容, 教育方法 등에 많은 發展과 變化가 있었다. 그리고 現行 教育課程은 學習者의 水準에 비해 너무 어렵다는 점, 知識 위주의 分科의 編制라는 점, 內容의 過多, 人間으로서의 價値觀 教育이 소홀하다는 점 등이 많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展開될 새 社會에 적합한 國民精神 教育內容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上記한 바와 같은 問題를 해소하며, 自我實現과 社會化, 그리고 앞으로의 새 時代에 부응하는 國民的 資質을 涵養하고, 새 歷史 創造에 기여할 수 있는 國民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文敎部에서는 本院에 幼稚園,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을 위탁하였다. 教育課程 研究部에서는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人文系, 實業系) 總論案을 금년 3월까지, 各 教科의 總論案을 7월까지 開發하여 文敎部에 報告하기로 되어 있다. 이 案은 4월과 8월에 각각에 대한 文敎部 審議와 公聽會를 거쳐 修正·補完한 후, 9~11월에 文敎부의 최종 審議로 確定하여 12월에 告示하기로 되어 있다. 告示된 教育課程은 1982년부터 단계적으로 現場學校에 適用하여 1983年度에 全國 國民學校에 完全 適用할 것이다.

○ 初·中·高等學校 教科用 圖書開發 및 實驗

本院은 1979년에 國民學校 教育課程案을 研究·開發하여 文敎部에 報告하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에 1,2,3學年 學生用 教科書 28책, 教師用 指導書, 29책, 도합 57책을 研究·開發한 바 있다. 이 教科用 圖書는 금년도에 全國에서 類層標集된 33個 實驗學校에 投入하여 正式 및 略式實驗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 實驗에서 여러가지 問題點과 오류를 파악하고, 實驗用 圖書를 修正·補完하여 本 教科用 圖書를 製作하게 될 것이다. 本 教科用 圖書는 82年學年度부터 현장학교에 適用될 것이다.

금년도에 연구 개발할 國民學校 4,5,6學年 教科用 圖書는 學生用 教科書 43책, 教師用 指導書 43책, 도합 86책이다. 이 開發된 教科用 圖書는 文敎부의 審議를 거쳐 政策教科(道德, 社會)는 1982學年度부터 全國 國民學校에 適用되고 기타 教科는 1982년에 正式 實驗을 거쳐 修正·補完 作業이 있는 후 1983學年度부터 全國國民學校에 適用될 것이다.

中學校 高等學校의 道德, 國民倫理, 國史, 社會(中學校), 政治·經濟 등 政策教科에 해당하는 教科用 圖書, 즉 學生用 教科書 9책, 教師用指導書 7책, 도합 16책을 研究·開發하기로 되어 있다. 이들 教科用 圖書는 中·高等學校 教育課程의 研究·開發과 병행하여 開發되며 금년 12월에 教育課

程이 告示된 후 1982學年度부터 全國 中·高等學校에 適用되기로 계획되어 있다.

○ 初·中學校 教育發展 事業

1975學年度부터 1979學年度에 걸쳐 제 5차 綜合示範을 끝내고 이제 정착기에 접어든 初·中學校 教育發展 事業은 今年에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今年도에 이에 참여하는 國民學校는 全國에 걸쳐 示範學校 18個校, 協力學校 232個校이며 이들 각 學校에 보급되는 資料는 教師用 指針書 80종, 學生用 배움책 47종, 總括 評價紙 207종, 評價觀點 및 正答表 11종에 이른다.

本 事業에서 今年도에 추진하는 또 다른 일은 그간의 成果를 綜合적으로 分析하고, 이 事業의 핵심이 되는 새 教育體制의 長點을 새로 開發되는 學生用 教科書와 教師用 指導書에 反映하여 內容의 인 면에서 全國化를 이루는 일이다.

○ 教授·學習資料 開發 및 教員研修

1977年度부터 유니셉의 지원으로 中央教育研究院과 共同으로 추진하여 온 本 事業에서는 이미 開發하여 現場에서 實驗한 바 있는 資料 중 그 效率性이 적은 투시 및 슬라이드 자료 300매와 指針書를 修正·補完하고, 새로이 슬라이드 및 패도 1000종을 開發할 예정이다. 그리고 修正·補完된 資料 및 새로 開發된 資料는 15個의 國民學校에 投入하여 그 效用性을 檢證하고, 全國 學校에 대한 普及 方案을 마련할 것이다.

이미 開發하여 全國의 示範學校에 普及한바 있는 中學校 技術教育 資料(영사자료 60종 : 1080편, 패도자료 1, 2, 3학년 각 1권 : 총 405매)를 135個 男女 中學校에 복사·보급할 것이다.

한편 위 資料普及 對象學校의 技術(家政)教師 약 135名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 중 2주일간에 걸쳐 研修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앞에서 밝힌 135個 男女 中學校는 各市·道에서 中學校 技術教育의 센터學校로서의 役割을 遂行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中學校 技術教育의 正常的 運營과 教授·學習의 效率化가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73 페이지에서)

○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학비로 시간을 절약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高度産業社會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4년 4월에 11개교가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44개교로 증가되었으며 1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의 계속사업으로 정규 교과 강의로 1752편의 프로그램 제작과, 학기말과 학기초 공백기에 특집 방송으로 120편의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고 14개 과목에 걸쳐 강의 모니터를 운영하며, 방송통신 교육현장 연구 및 그 발표회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아울러 80년도 개편 교재(24책)의 수정 보완, 4개 과목(정치경제, 사회문화, 국민윤리, 국사) 개편 등을 병행할 것이다.

○ 방송교육연구

교육매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라디오 프로그램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용연구로서 방송연구학교 운영, 교과 및 매체전문가 협의회, 연구학교 연구평가회, 방송프로그램 의견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대상별 교육방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선정한다.

教育發展研究

教育發展研究部の事業은 크게 基礎研究와 政策研究 두 部門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독립적으로 추진되었던 이 두 연구 분야는 앞으로 한층 더 상호 보완관계에서 이루어져 연구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新年度 事業은 총 8개 課題이며, 이들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平生教育制度 確立을 위한 學制發展研究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學校制度의 骨格은 변함 없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政治·經濟·社會·文化 등 教育外的 狀況의 급격한 변화는 教育에 대한 社會的 要求나 期待의 양상을 또한 크게 변화시켰다고 본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早期教育과 平生教育論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역사발전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특히 국민의 教育熱을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學制改善의 方向을 탐색하고 필요하다면 現行 學制의 改編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먼저 현행 학제의 定着過程을 학교 교육에 대한 정치·경제 및 사회적 요구, 현행 학제의 문제점, 主要國家의 學制 動向 등을 분석하고 平生教育制度의 觀點에서 學制發展을 위한 方案이 제시될 것이다.

○ 教育人事 行政制度 改善研究

教育人事行政制度 운영에 있어서, 관련 法規와 실제 운영상 상호 모순점이 있게 될 때, 또한 人事制度 자체의 불합리성이 팽배하게 될 때, 이들 要因은 教職員, 教育行政家의 士氣와 勤務意欲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阻害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本 研究은 현행 교육인사 제도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人事制度 및 制度運營의 合理化 方案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① 制度·法規를 포함하는 支援體系, ② 誘因體系, ③ 養成體系, ④ 現職訓練體系, ⑤ 行政要員의 專門化 등에 관한 理論的 考察, 國際比較, 實態·調査, 協議會, 세미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人事行政組織의 模型開發과 教育의 專門化를 기할 수 있는 人事制度 개선안을 제시한다.

○ 教育의 均衡發展에 관한 탐색연구

우리의 교육 현실은 教育의 機會均等과 均衡발전의 觀點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교 教育體制나 그 外的 環境要素에서 야기되는 교육의 격차나 불평 등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교 교육의 질적 均衡 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教育의 機會均等 개념 정립과 그 분석모형을 개발하고,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學校의 社會體制要素, 學校의 學習風土要素, 學校內 社會關係構造, 그리고 學級內 相互作用要素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文獻分析, 實態調査, 세미나,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본 연구는 우리 나라 教育隔差의 실태와 이를 해소하고 교육의 均衡發展을 도모할 수 있는 政策課題를 제시할 것이다.

○ 青少年問題의 綜合的 診斷研究

青少年問題의 根源은 깊고 광범해서 一回의 研究나 處方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의 人生觀, 價値觀 내지는 社會觀, 國家觀에 결부되는 문제이지만, 한편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은 바로 사회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의 自我概念, 價値觀 및 病弊的인 면에서 그들의 사회·심리적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이 처한 諸環境要因을 비교·분석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自我概念 형성과 유능한 社會 役軍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 幼稚園 教育課程 改善을 위한 연구

本 研究는 文敎部 告示 제424호(1979. 3. 1)의 教育課程을 改定하여, 未來 韓國社會의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여 건실하고 유능한 國民으로서의 資質을 함양시키는데 적합한 幼稚園 教育課程案을 研究 開發하기 위한 것이다.

主要 內容은 總論 開發과 各論 開發로 區分될 수 있다. 총론의 연구내용으로는 幼稚園 教育의 一般目標, 構成方針, 編制와 教育日數 및 時間, 運營方針 等이며, 各論의 研究內容은 幼稚園 教育課程 內容의 領域을 확정짓고 각 영역별로 目標와 內容要素를 作成하는 일이다. 전문가 협의회, 광범한 輿論調查, 국제비교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教育課程 試案을 作成하고, 文敎部 審議를 거쳐 修正·補完된 뒤 공포되면 우리 나라 幼兒教育의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 英才教育 研究

英才教育 研究는 1980年度에 수행한 英才의 心理的·行動的 特性과 發達 및 家庭環境 特性研究와 연결되고 사업으로서 先行研究를 기초로 하여 금년도에는 英才를 위한 教授·學習프로그램을 開發하는 것과 그것의 妥當性을 檢證하는데 目的이 있다. 具體的인 研究內容은 첫째, 英才프로그램의 模型開發, 둘째 模型에 따른 學生用, 教師用 教授·學習資料의 開發, 셋째 現場檢證 및 수정을 한다.

○ 學習不振兒 研究Ⅱ : 情報處理過程의 分析

'80년도에 수행된 學習不振兒 類型分析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금년에는 각 유형의 정보처리과정의 특이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작년의 연구대상이었던 D국민학교 학습부진아 600명을 추적하여 표집하고, 검사도구는 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學習不振兒 診斷道具를 개발하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실제 자료를 만든다.

○ 兒童發達 基礎研究

이 연구는 우리 나라 幼兒發達의 基礎資料를 蒐集하려는 것으로, 學習準備度·言語發達·概念發達의 3個 下位課題가 遂行될 것이다.

學習準備度 研究는 3年제 繼續된 課題로 그간 開發·實施된 檢査道具의 妥當化 作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울지역 幼稚園 兒童을 對象으로 學習準備度 檢査의 信賴度와 妥當度를 檢證하고 實在的 學習不振兒 早期·選別道具로서의 價値를 立證하기 위한 心理檢査와 함께 事例研究도 進行될 것이다.

言語發達 研究도 繼續 課題로서 3~5歲 兒童의 母音發達 傾向을 分析하려는 것이다. 이 研究는 1979年度에 子音發達 爲主로 遂行된 音韻發達 研究와 連結될 것이다.

概念發達 研究는 4~5歲 兒童의 數 및 기타 概念들을 中心으로 發達 傾向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教育放送

7.30 教育正常化 措置의 하나인 過熟課外 解消對策으로 '80년 9월부터 본원이 TV고교 教育방송을 통하여 教育放送이 실시되고 금년부터는 UHF·TV가 개설되었으며 라디오도 AM에서 FM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방송의 기획·편성에서 송출(방영)까지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원활하지는 않으나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하여 본원은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교육방송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교육병폐인 과열과외, 과밀학급, 과대학교, 교육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지역간 교육 및 문화의 격차 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사명감 고취, 과학적 사고력 신장, 평생교육체제를 가장 효과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점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금년도 본원 교육방송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UHF·TV 프로그램 개요

대 상	프로그램영역	목 표	프로그램 길이	주당편수	연간편수	비 고
유아 및 주부	유아·육아교육	· 취학전 아동의 조화로 운 발달 촉진 · 유아 지도법	20분	6편	312편	유아 3편 육아 3편
국민학교	도덕	·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 · 기초 기능 습득 · 학습 의욕 고취	20분	1"	52편	사회(영화)는 외화자료 이용.
	자연		20분	1"	52"	
	예능 I 음악		20분	1"	52"	
	예능 II 미술/체육		20분	1"	52"	
	사회(영화) 생활지도		20분	1"	52"	
중학교	도덕	· 반공이념, 국가관교육 · 중학교 기초영어(회화 중심) · 과학적 사고력 신장	20"	1"	52"	사회(영화)는 외화자료 이용.
	영어		20"	3"	156"	
	과학		20"	1"	52"	
	사회(영화)		20"	1"	52"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물 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국사, 국민윤리 정치경제, 세계사, 사 회문화, 국토지리, 인 문지리, 진로지도	· 과외해소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실화 도모 · 학교교육의 보조학습 자료 · 진로지도	각30분	국, 영, 수 주 6편 기타 1편 계 30편	1560편	국어, 영어는 1,2,3학년 분류 수학은 I, II로 분류 기타 과목은 공통으로 한다.
계				49편	2548편	

○ UHF·TV 교육방송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던 고교교육 방송이 81년 2월 1일부터 UHF전파로 옮겨지면서 청취대상을 확대하여, 유아, 국민학교 학생, 중학생 및 교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결국 본원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학생(학교) 대상의 교육방송을 실시하게 되었고 KBS는 여타의 성인교육(사회교육) 부문을 맡게 되었다. 이에따라 UHF·TV를 운영하는 교육방송부의 편성내역은 앞의 표와 같다.

UHF·TV는 오후 5시 30분부터 방영되어 9시 30분에 본방송이 끝나는 편성(중간에 KBS시간 30분 포함)이나, 시청자의 수상기 보유율을 감안 고교교육의 국어, 영어, 수학은 VHF(KBS 제1TV)를 통해서 아침 5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 그리고 MBC를 통해서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고교 기타 과목을 재방송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81년)의 편성균형은 고등학교에 너무 기울어져 있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상 낮 방송이 불가능함으로써 교실에 연결되는 수업 보조자료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하겠다. 이런 점은 본원이 계획하고 있는 장기 계획에 의해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임을 밝혀둔다.

○ FM·라디오 교육방송

오래동안 일선학교의 교실을 연결하여 AM(KBS 제2방송)으로 방송되던 라디오학교 방송은 81년 2월 1일을 기하여 FM전파로 전환하며 지금까지 본방송 3시간에서 약 50분의 증가편성을 실시, 재방송 포함 5시간을 받게 되었다. 방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국민학교 오후반을 위한 재방송대를 설치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편성개요는 다음과 같다.

라디오 학교방송 프로그램 개요

대 상	영 역	프로그램길이	주 당 편 수
유아(육아)	유아 육아	20분	4
국민학교	도덕	각15분	14
	자연		1
	예체능		12
	국어		7
	사회		9
	국사 안전교육		2 6
중 학교	도덕	20분	2
	영어	20분	6
	음악	20분	6
교 사	교원교육	20분	1
홍보, 기타		5분	7
계			77

라디오와 TV가 교육적 사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순기능(順機能)상의 교육적 효과를 단시일 내에 얻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TV·FM 라디오 공히 수상기 보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효과의 측정 및 증대방안을 점진적으로 효율성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학교의 운영을 보다 적극적인 체제로 강화하는 한편 워드 백의 수합 및 반영도 폭을 넓힐 예정이다.

(69페이지에 계속)

教育資料·情報管理

暴發적으로 增加하는 研究資料 및 情報의 體系인 處理·管理는 研究者의 時間과 努力의 浪費를 極少化할 뿐 아니라 政策樹立의 效率的인 뒷받침을 爲해서도 必須不可缺한 支援業務이다.

資料·情報센터의 主要機能은 資料情報源의 探索 및 情報 研究業務와 資料情報, 蒐集業務, 處理業務, 提供業務로 大別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基本計劃에 依하여 業務를 遂行한다.

教育情報研究分野

○ 教育研究 動向分析

現在까지 遂行된 教育研究의 現況과 動向을 分析, 把握하여 그 結果를 紹介함으로써 새로운 研究의 着想과 重複研究에 따른 時間·努力·經費의 浪費를 極少化하는 등 새로운 研究에 必要한 情報源을 探索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課題는 繼續事業으로 發展시킬 것이며 今年度는 教育課程과 教育社會學 分野의 研究概要誌의 發刊으로 매듭지어 질 것이다.

○ 研究資料의 分析과 加工

情報의 保管, 探索 및 利用을 簡便하게 하기 爲한 專門分野別 索引, 抄錄은 主題別 研究資料를 그 內容의 構成要素인 重要概念으로 分析·處理하는 專門的인 作業으로서 昨年度의 教育理念, 哲學 및 院內 研究報告書 抄錄集에 이어 今年度에는 國內 碩·博士學位論文 抄錄集, 教育心理·教育課程 篇이 作成 發刊될 것이다.

○ 教育資料檢索 自動化를 爲한 基本用語 편찬 연구

컴퓨터에 依한 資料의 蓄積, 檢索은 現代 情報管理의 必須的 課題로서 將次 本院이 計劃하고 있는 資料情報處理의 電算化에 對備한 教育用語(Thesaurus)의 研究開發은 우리나라 最初의 作業이 된다. 本 研究은 1980년에 着手, 3年次計劃으로 遂行되는 課題로 이미 ERIC Thesaurus를 初釋, 1次 試案을 作成하였으며 今年에는 國內用語를 精選, 插入하여 컴퓨터에 依한 資料檢索用 教育用語(Thesaurus)集을 發刊하게 될 것이다.

○ 教育資料·情報 流通網 組織運營

必要한 情報를 即時에 蒐集하고 利用者에게 迅速히 提供할 수 있는 情報流通 network의 確立은 앞으로 3年次 計劃으로 推進될 것이며 今年은 그 1次 年度로서 各 市道 教育研究院 11個處와 서울 市內 3個 師範大學을 中心으로 資料情報源의 探索 및 資料交換·寄贈·蒐集活動을 展開하게 된다.

○ 情報管理要員 訓練

專門要員의 確保는 무엇보다 優先해야 할 일이다. 80年度에 實施한 情報管理 集中研修(KORSTIC에서)와 電算要員訓練에 繼續하여 教育資料·情報處理 및 system 開發을 爲한 集中研修를 計劃하고 있다.

○ 資料處理 電算 system 開發研究

教育資料 流通網을 確立하고 研究資料 情報管理運營의 自動化를 爲한 電算業務는 妥當性 調査를 바탕으로 適正 器機의 選定 및 綜合 電算化 開發 基本計劃을 樹立, system運營에 關한 基礎研究를 지난 해에 이미 끝냈으며 今年度에는 他機關의 電算機를 活用하여 本院 給與管理業務의 電算化와 各種 資料郵送業務에 對한 電算化 研究에 力點을 두고 各種 研究統計處理의 技術의 支援 및 앞으로 展開될 本格事業의 準備作業을 繼續 遂行하게 한다.

文獻資料管理 및 情報서비스 分野

○ 資料情報源의 探索 및 蒐集業務

研究者가 研究·開發에 필요한 資料情報를 入手하기란 經濟的, 地理的, 時間的 制約 때문에 거의 不可能한 狀態가 되었다. 이에 本院은 無秩序하게 存在하는 資料中에서 그 目的, 規模, 範圍, 展望 利用效果 등을 考慮하여 資料蒐集計劃을 樹立, 基本藏書(1500卷), 學習資料(300卷), 教科書(900卷), 學術雜誌(200여種), ERIC Microfiche 80年度分 全量(20,000여매) 등을 購入할 것이며 資料·情報 流通網의 組織活用을 통해 各種 資料의 寄贈, 交換業務를 遂行한다.

○ 文獻資料의 分類·整理業務

分類整理業務는 收集된 資料를 利用者에게 쉽게, 빨리 情報를 活用提供할 수 있도록 體系的으로 分類·整理할 때 그 價値를 發揮하게 된다. 目錄은 資料의 形態나 性質, 主題別로 分類하여 事務用 目錄, 書名目錄, 著者目錄, 主題名目錄, 分類目錄 등으로 作成된다. 目錄作成은 約 22,500장으로 豫想되며 180년에 發刊한 藏書目錄 洋書篇에 이어 東書篇의 藏書目錄을 發刊할 計劃이다.

○ 資料情報提供 및 複寫 서어비스業務

열람 및 대출 서어비스가 있고, 특히 複寫 서어비스는 本院이 所藏하고 있는 各種 印刷資料와 Microfiche資料의 複寫는 受惠者 實費負擔으로 自由롭게 複寫 支援하게 될 것이다. 특히 ERIC microfiche는 國內 唯一한 資料로 學界의 많은 關心 속에 活用이 날로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

또 레프런스 서어비스는 利用者의 要求와 그것에 適合한 情報源과 연결하기 爲해서 情報活動組織이 그 組織力을 使用, 繼續的이고 組織적으로 利用者에게 直接, 間接으로 行하는 레프런스 서어비스는 情報管理業務 중 가장 專門的인 서어비스 業務로

· 直接 電話, 文書 등을 利用한 사실에 關한 質問, · 情報檢索, 抄錄作成, 文獻探索, 資料解說 등 의 調査·公式, 非公式을 網羅한 目錄이나 所藏資料의 利用指導 案內, · Group이나 個人의 調查研究를 爲한 書誌作成, · 圖書館 相互貸借의 交涉 등 資料·情報探索 支援業務를 提供하게 된다.

各種 出版物 發刊 및 情報提供

○ 資料情報 案內 및 2次文獻資料發刊 配布

情報需要의 增加와 情報管理 技法의 發達에 따라 學術情報는 地理的, 專門的 領域을 超越하여 交流되고 그 流通 pattern도 多樣하게 變化해 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出版物을 發刊 配布함으로써 利用者의 便易를 도모하고자 한다.

- 研究資料 및 學術雜誌 contents sheet service 每日發行
- 教育資料情報(신착자료 안내, 신간문헌 안내 등) : 每週發行
- 學術雜誌 目次速報(教育學, 心理學, 社會學篇) : 격월간 發行

- 外國學術雜誌目錄(全國 主要機關保有) : 연 1회 發行
- 藏書目錄(본원 소장 東書篇) 主題別, 著者別索引 : 1981年版
- 教育學 碩·博士學位 論文抄錄集 : 연 2회 發行
- 教育研究 概要誌 : 연 2회 發行
- 教育資料檢索用 教育用語集(Thesaurus) : 1981年版

■ 원내 동정 ■

회의 개최

- 초·중·고 교과서 개발을 위한 반공교육 내용검토 회의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서울대학교 박 용현 교수 외 7명의 관계인사가 참석하였다.
- 교과서 실험을 위한 관계자 회의가 2월 10일에 개최되었는데 문교부 박 용진 장학관 외 2명, 각 시도 교육위원회 장학관 11명, 전국 34개 실험학교 교사 60여명이 참석했다.
-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의 종결방안에 관한 협의회가 문교부 연구관, 편수관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2일에 개최되었다.
- 중·고 교과서 개발회의가 서울대학교 이 홍우, 김 영철, 김 영식 교수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내 방

- 1월 26일 영국 BBC 방송 Mr. Howse(영어담당)씨가 본원을 방문했다.
- 1월 30일 국내일간지 문화부 기자 6명이 본원을 방문하여 2월 2일부터 시작되는 UHF 교육 방송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연 수

- 국립영화제작소 직원 12명이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본원에서 VTR 기술연수를 마쳤다.
- 국립경찰대학 권 영학 사무관 외 5명이 2월 9일부터 21일까지 본원에서 VTR 실무연수를 받았다.

직원 공개채용

- 직원 공개채용 시험이 1월 24일 은광여고에서

267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21명인데 직종별로 보면 연구직 8명, 기술직 4명, 방송직 9명 등으로 되어 있다.

안 내

본원 청사의 연구실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연구부가 별관으로 옮기고, 기초 연구부가 정책연구부와 통합, 교육발전 연구부로 기구가 개편되어 본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별관주소는 강남구 서초동 232-2 은정빌딩이며 전화는 57·7239/52·1122/52·1123/52·2085/57·6824.

연구부장실은 57·6820이다.

방송 통신 교육 연구실은 변동없이 종전대로 같은 별관 내이고 전화는 57·7815이다.

격월간	교 육 개 발
	(제 3 권 1 호 · 통 권 10 호)
<비매품>	1981년 2월 25일 인쇄
	1981년 2월 28일 발행
發行人	洪 雄 善
財 團 法 人	韓 國 教 育 開 發 院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7-5121, 57-5021
	印刷處 신 창 인 쇄 사
	1975년 8월 20일 등록 바-574

□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

교육개발 발간안내

1.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 개발 및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 전문잡지이다.
2. 본지의 편집내용은 교육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설 및 연구보고, 교육개발 소식, 현장교육 연구, 교단자료, 그 밖의 연구정보 등으로 한다.
3. 본지는 독자의 투고를 환영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의 채택여부, 게재순서는 본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본지는 격월간 정기 간행물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하여 비매품으로 교육기관, 교육관계 인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투 고 안 내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처는 **1374-0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2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내 교육개발편집실 (전화 57-5020, 57-5121)로 한다.
2. 원고는 200자 원고지에 횡서로 하며 16매~32매로 한다.
3. 원고의 모두에는 표제, 필자명, 소속기관, 또는 소재지를 명기한다.
4. 원고는 한글을 주로 하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과 외국어를 쓸 수 있다.
5. 고딕체는 밑줄(—)으로, 이탤릭체는 (w)으로 명시한다.
6. 도표는 백지, 또는 청색 모눈종이에 먹으로 명료하게 그리고 바로 동판할 수 있도록 별지에 그려 원고에 별첨하고 본문 중에는 그 위치만 비우고 직접 첨부하지 않는다.
7. 별지 인쇄를 희망할 때는 필요 부수를 별지에 명시하여 원고 모두에 첨부하되 별지 인쇄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